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돼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0월 2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23호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조계종 법인관리법 보완책 시급하다

2014년 6월 제정 이후 시행 900일을 맞은 조계종의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이 법과 행정 미비로 '지원없는 관리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법 개정 ·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인관리법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은 조계종 제207차 중앙종회에서다. 중앙종회의원 광전 스님 등은 종책질의를 통해 법인관리법 제정 이후의 조치에 대해 물었다.

지원은 미비, 제한 · 의무만

현재 대표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은 안거 기간에 이뤄지는 결계 · 포살이다. 법인관리법 의무 관련 조항인 16조에는 "'종단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임직원 · 권리인 · 관리인의 도제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에 따라 포살을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무와 제한이 늘었을 뿐 이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광전 스님은 "결계 · 포살 신고의 경우 종단 소속 사찰은 주지 스님이 일괄로 제출하면 되는데, 법인 소속 사찰은 개인이 일일이 다해야 한다. 등록 법인 소속 사찰에 대한 행정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시행 과정서 '전법 · 포교' 역기능

또한, 법 제정 당시 우려대로 전법 · 포교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님과 재가자가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불교계 유수 재단인 A재단의 경우 최근 조계종 법인 등록을 두고 스님 이사가 전부 사퇴했다. 해당 재단은 대전의 한 사찰을 기본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찰보유법인이지만, 현재 재가자만으로 이사회가 구성돼있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보유 사찰 주지직이 수개월째 공석으로 있어 사찰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법인 목적과 구성이 다양한 상황에서 일률적 법인관리가 전법 포교에 역기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A재단 관계자는 "스님들이 재단의 종단 미등록시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소임을 내려놨다"며 "현재 前 이사장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사찰과 재단과의 연결 관계는 없는 상황이다. 사찰은 연말 쯤 운영에 관해 이사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경 스님은 "법 시행 과정에서 오히려 스님의 사회문화 등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스님과 재가자가 결합하거나, 외부와 타종단 법인에 스님이 임원을 맡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이런 가운데 스님들 사이에 법인 활동을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인식만 만연해 가고 있다. 지속적인 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종회의원 스님도 "재가자가 포교를 위해 법인을 세운 후 스님을 추대해 모시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 미등록으로 스님이 물러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계 · 포살 의무 명시하고
행정 서비스 지원은 全無

출가 · 재가 출연법인 경우
등록 두고 스님 이사 사퇴
일률적 법인관리의 역기능

대각회 특별교구화 연기 등
法 운영 불안요소도 산재해

장기화된 갈등 불안 요소

애초 타 법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가져왔던 대각회의 특별교구화가 미뤄지고 있는 것과 선학원과의 갈등이 장기화 되는 부분도 법인관리법의 불안요소들이다.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은 제207차 중앙종회에서 다시 연기됐다. 204회 제출된 안건으로 모두 3차례 연기된 것이다. 조계종과 대각회는 2014년 5개 조항을 합의했고, 올해 8월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가시적 성과로 나타난 것은 아직 없다.

이에 대해 대각회 관계자는 "이번 종회를 앞두고 양측 대표단이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의 주장이 달라 협의가 안됐다"며 "대각회 내부에서는 법인 설립 취지를 담은 정관까지 위배하면서 특별교구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晩秋, 사찰을 물들이다 완연한 만추의 시기, 서울 길상사는 곳곳이 단풍으로 빨갛게 물들어있다. 이르게 찾아온 한파에도 불자와 시민들은 사찰 단풍을 카메라에 담으며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가을이 깊어져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사찰 단풍 사이로 이는 바람이 아직은 그리 춥지 않다. 그저 반갑기만 하다. 안녕 가을, 내년에 다시 만나길. 글= 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출판문화상 대상 '아홉 개의 산문…' 수상

불출협, 올해의 불서 선정… 30일 시상식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아홉 개의 산문이 열리다(조계종출판사 刊, 이일야 지음)〉가 선정됐다.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 스님)는 11월 17일 제 13회 올해의 불서 10 및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우수상에는 〈지상에 내려온 천상의 미(서해문집 刊저, 강희정 지음)〉와 〈강미농의 금강경 강의(담앤북스 刊저, 강미농 지음/양관스님 번역)〉 등 2종이 선종됐다. 이어 올해 처음 시상하는 향산번역상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담앤북스 刊저, 켄포 소달지 지음, 신노을 지음)〉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본상은 수상하지 못했지만, 〈화엄경 80 변상도이야기(사유수 刊, 자훈스님 지음)〉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민족사 刊, 이자랑 이필원 지음)〉 〈어떻게 뚱보왕(참글어린이 刊, 김미숙 글/문서령 그림)〉 〈한국의 사찰숲(모과나무 刊, 전영우 지음)〉 〈명성(불광출판사 刊, 남지심 지음)〉 〈붓다 프로젝트(민족사 刊, 원담 스님 지음)〉 〈선종영가집 강해(불광출판사 刊, 한자경 지음)〉 등이 올해의 불서 10종에 뽑혔다. 또한 대상 수상작에는 1000만원의 상금(출판사와 저자 각각 500만원씩)이, 우수상에는 400만원(출판사와 저자 각각 200만원씩), 나머지 7종 및 향산번역상은 각 100만원씩 부상으로 수여된다.



한편 이번 불교출판문화상에는 총 30개 출판사에서 90종의 서적이 응모했다. 시상식은 11월 30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12월 5일 차기 종정 추대

현 종정 진제 스님 ·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거론

조계종 최고 어른인 종정을 선출하는 자리, 종정 추대회의가 12월 5일 열린다. 이런 가운데 차기 종정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 종정인 진제 스님과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이 차기 종정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1월 15일 조계종 측은 12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종정 추대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정 추대회의는 25명의 원로회의 의원 전원과 총무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이 참석한다.

현 종정 진제 스님은 2011년 12월 14일 종정 추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13대 종정에 선출됐으며 2012년 3월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2017년 3월 25일 임기 만료 예정으로 종헌에 따라 3개월 전 차기 종정을 선출해야 한다. 종헌 상 종정 임기는 5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현 종정 스님이 대부분 연임해왔지만 새로운 종정 스님이 추대될 가능성도 있다. 후보로는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원로 스님들을 중심으로 '종단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종정을 모셔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 새 종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종정 진제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해 1954년 해인사에서 석우 선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67년 향곡 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고 경허 혜월 운봉 향곡 선사로 이어진 선맥을 이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사로 평가받고 있다. 선사지만 전법에도 활발히 나서 1971년 부산 해운대에 해운정사를 창건했다. 금모선원 조실로 추대됐으묘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등을 지냈다.

진제 스님은 종정 취임 후 간화선 부흥을 위해 노력해 2015년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만 불자가 참여한 간화선 무차대회와 간화선 대법회 등을 열기도 했다.



진제 스님



월서 스님

조계종 최고 어른 추대하는 자리
진제 스님, 대표적인 선사로 꼽혀
월서 스님, 선 교학 행정 두루 밝아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선 금오 스님의 상좌로 청정수행 가풍을 위해 노력해왔다.

1936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월서 스님은 1956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분황사, 조계사, 불국사, 천왕사, 봉국사 주지를 지냈다. 제4 · 5 · 6 · 8 · 10 · 12대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종회의장, 조계종 호계원장 등을 역임했다.

30여년 전부터는 '선묵일여'(禪墨一如) 정신으로 정진한 선사이기도 하며, 원로 스님 중 종단 행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법주사 조실로 추대되 후학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2년 천호월서희망재단을 설립,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등에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2009년 금오선수행연구원을 설립해 불교학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백초월 스님 선양 사업 본격화

은평구 · 고성군 · 함양군 17일 업무협약

서울 진관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백초월(1878~1944) 스님의 선양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 은평구와 경남 함양군, 고성군은 11월 17일 은평구 진관사에서 '백초월 스님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은평구 · 고성군 · 함양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은 이유는 백초월 스님이 고향이 경남 고성군이며, 출가처가 함양군 영원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항일 운동을 전개한 곳은 진관사였다.

이번 협약으로 3개 지자체는 백초월 스님의 독립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사업을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자료 발굴을 비롯해 역사 콘텐츠 교류 · 협력 증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수익사업 본격화

사업지주회사 설립 입법 공시… '영리법인' 출범

조계종이 2017년 본격적인 수익사업 전개를 앞두고 사업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업지주회사 출범에 따라 기존 사업부 내 사업계획으로 잡혀있던 관광버스 운영, 사찰 건축설계 등에 관한 다양한 사업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11월 16일 '조계종 출판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월 5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이 령은 개정시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령'으로 변환된다.

공지된 '사업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령'에 따르면 사업지주회사는 (주)조계종출판사를 기반으로 이를 포괄 승계해 구성된다. 회사 재원은 조계종유지재단이 출자하며 △출판 및 서적의 도매 및 소매업 △기획물 제작 대행업 △미디어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제작 및 판매업 △행사기획 및 대행업 △유통업 △프랜차이즈업 △집합투자업 및 투자중개업 △부동산 중개업 및 임대업 △알선업 △전자상거래업과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업지주회사의 명칭은 지주회사 출범 후 주주총회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사무실은 서울시에 두도록 했으며 업무는 조계종 총무원 내 사업부가 관장한다. 사업지주회사의 수익금은 종단 목적사업, 교육 · 포교용 도서 발간 및 무료제작 · 배포, 기타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유지재단이 출연
주주총회서 정식명칭 부여
기존 출판사 한계 탈피

가톨릭 '평화드림'이 모델

이번 사업지주회사는 가톨릭이 운영하는 사업지주회사 '평화드림'이 모델이다. 평화드림은 법인 내 5개 계열사를 두고 물품구입, 건축, 레져, 상조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년에 2000억이 넘는 매출을 내고 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이 가톨릭 재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조계종은 2010년 포교원 산하였던 조계종 출판사를 주식회사로 전환, 사내 유통사업부를 두고 생수 및 달력 판매 등을 진행해왔으나 사업 진행에 있어 사업지주회사 및 영리법인 출범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출판사가 왜 생수와 상조상품 판매를 관리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계종은 이번 사업지주회사 설립에 대해 "2010년 6월 도서출판 조계종 출판사를 승계해 설립된 (주)조계종출판사가 6년간 종단 재정에 25억원 이상을 직접 기여해 왔음에도 종단 내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출판사라는 법인 성격으로 인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많고, 그동안 사업경험에 기반해 더 넓은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격으로 다시 출범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관장부서로 조계종 사업부
유통 · 중개업 등 사업 전개
종단 목적사업 수익 활용 기대

건축설계 · 전세버스 · 공제조합 진행

이번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출범으로 조계종 사업부가 기획하고 있던 다양한 사업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현재 조계종 사업부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은 △건축설계사무소 운영 △사찰 연계형 전세버스 사업 △불교 공제조합 운영 △태양광 발전사업 등이다.

이중 건축설계사무소 설립은 종단내 기획 검토 · 실무팀이 구성된 상태다.

이와 함께 수익사업의 실무 조력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9월 이한성 前 국회의원, 엄동수 유로모터 억셉턴스 대표이사, 장만석 울산대 초빙교수, 손상달 흥한건설 부사장, 박철성 미디어캠프 신원 대표, 이기현 삼우토탈 대표, 김공명 다올코퍼레이션 대표 등을 기획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9월 경 NH농협생명, A+라이프, 에이튜드, 맥스컨설팅 등 4개 업체와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양진수 조계종 사업부 행정관은 "사업지주회사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하는 회사"라며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천 직지사 주지 법등 스님 임명

16일 "포교 · 복지 중점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직지사 주지로 법등 스님을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법등 스님에게 "지역사회의 포교, 복지, 문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등 스님은 "승려복지에 내실을 기하고, 교구상황에 맞는 포교사업 개발,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등 스님은 녹원 스님을 은사로 1961년 수계(사미계)하였으며, 도리사 주지,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및 제12대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법등 스님(사진 오른쪽)이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조계종 종무원 대상 역사문화 보존 특강

가이드라인 제시해 눈길

최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비롯해 사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강조하고 있는 조계종이 종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1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사찰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 특강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일반직 종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조홍석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가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조 위원은 주변과 조화롭고 쾌적한 역사문화 환경 기반이 되기 위해 건축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사항에 대해 중점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조 위원은 "문화재 주변 건축설계 시 문화재의 조망 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모와 형태를 조정하고, 높이는 가능한 한 낮게 해야 한다"며 "문화재의 왜소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만공회 1주년, BBS 가족 '한자리에'

BBS, 12월 1일 후원회원 위한 행복콘서트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 이하 BBS)이 만공회 출범 1년을 맞아 BBS TV와 라디오 진행자들과 함께 만공회 회원들을 위한 축제 자리를 마련한다.

BBS는 12월 1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2016 BBS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만공회 출범 1주년을 맞아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BBS 출연진과 시청 · 청취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행사는 만공회 후원회원들과 그동안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불교방송과 인연 맺은 이들, 진행자 스님들, 그리고 BBS 전 직원 등 5천여 명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BBS불교방송은 글로벌 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을 제시하는 등 국내 유일의 공중파 불교 언론사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BBS 미래 발전의 청사진도 제시할 예정이어서 보다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콘서트에는 지광 스님, 성전 스님, 월호 스님, 마가 스님, 선업 스님, 정목 스님, 자용 스님, 주석 스님, 효민 스님, 원영 스님을 비롯해 배우 전무송, 김혜옥, 가수 주병선, 고한우, 세리, 국악인 남상일 등 BBS의 전 출연진들이 무대에 선다. 이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대중과의 소통도 시도한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BBS의 새 미래를 열어가려는 사부대중의 원력을 담아 발원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상신 BBS사장은 "지난 1년간 3만 5천명이 BBS 만공회에 가입해 프로그램 제작 환경 개선, 중계소 확충 등이 이뤄졌다"며 "모든 것은 만공회 공덕주의 정성과 원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 같은 후원 인연에 대한 감사함을 전달하고자 시 ·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각종 제30대 통리원 교육원 집행부 출범

11월 22일 신임 총인 및 통리원장 취임법회 봉행

교육원장 덕정 정사
총무부장 호당 정사 등 임명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정사)은 11월 10일 진각문화전승원 내 통리원장 접견실서 통리원과 교육원 부 · 실 및 국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30대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서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진각종은 모든 기관이 유기적로 연결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타 부서와 항상 소통하고 협조해 종무행정을 수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30대 집행부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각 부서 집행부 소임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집행부 인선을 살펴보면 교육원장에 덕정 정사(밀엄심인당 주교), 통리원 총무부장에는 호당 정사(실상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무부장에는 원명정사(대명심인당 주교), 통리원 사회부장에는 덕운 정사(유가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법연구실장 겸 교학처장에는 법경 정사(남부심인당 주교)가 각각 임명됐다.



11월 10일 30대 집행부 출범 직후 임명된 임원들이 종단발전을 서원하고 있다.

국장급에는 통리원 총무국장 겸 기획국장에 관명 정사(선륜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무국장에 수각 정사(밀각심인당 주교), 통리원 재무국장에 수혜 정사(능인심인당 주교), 건설국장에 진광 정사(선정심인당 주교), 사서국장에 법공 정사(명선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법연구국장에 혜담 정사(혜원심인당 주교)가 임명됐다.

이에 앞서 신임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10월 28일 진각문화전승원 내 총인예경실서 회정 총인 예하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또한 11월 22일 서울 성북구 진각종 총인원서 제 12대 회정 총인 추대법회와 제 30대 통리원장 회성 정사의 취임법회도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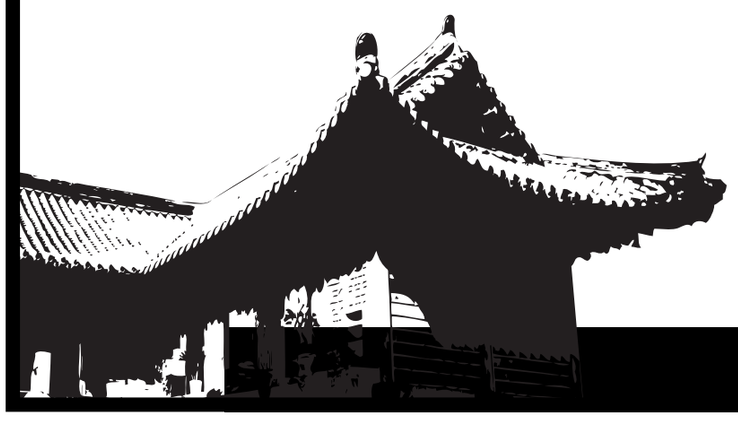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대승, 초기불교와 ‘단절’ 아닌 ‘계승’”

김성철 교수,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서 주장

육바라밀 · 불국토 · 법공 분석
“대승, 佛說 본질에 맞닿아”
‘대승비불설’ 정면으로 반박

“대승불교의 대표적 교리들은 그 근거나 취지가 초기불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나지 않는다. 초기불전에서 경전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사진〉는 11월 12일 동국대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단절인가 계승인가’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대승불교와 초기불교 간의 논쟁에서 근원적으로 맞서는 부분은 대승불설론(大乘佛說論)과 대승비불설(大乘非佛說)이다. 즉, 대승을 석가모니 부처가 설했는지 설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두 가지 학설에 대해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무착의 〈대승장엄경론〉에서 제시한 대승불설의 8가지 근거에 대해 분석한 김 교수는 “현대 문헌학적 연구에 비춰볼 때 대승불전은 소위 성문승의 초기불전보다 후대에 나타났다. 깨달음을 얻어 설한 자가 부처이라는 논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승불전을 만든 누군가도 모두 부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대승비불설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초기삼장은 불설 그대로인가’라는 기존의 비판을 받아들이며 “아쇼카왕의 비문을 보면 불전에서 선별한 7가지 법문을 신행지침으로 삼고 있고, 이들 불전들은 부처님의 직설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존하는 빠알리 니까야에서 해당 경전을 정확히 지목하기 어렵다”며 “대승도 부처의 직설이 아니지만 현존하는 니까야나 한역 아함경 역시 부처님의 교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김 교수는 초기불전이 대승불전에 비해 부처님의 직설에 가까움을 인정하고 대승불교의 교리가 불교이기 위해서는 근거를 초기불전에서 찾을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대승불교의 대표 교리인 △육바라밀의 보살도 △타방불국토의 우주론 △반야계 경전의 법공사상을 초기불전에 비추어 분석했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대승불교는 초기불교를 계승하고 있다고 봤다.

육바라밀 보살도의 경우 “초기불전에서 보인 현생의 삶과 전생의 삶 중에서 보살로 살아간 전생의 삶을 닮고자 한 것”이라며 “대승불전의 보살도는 초기불전 〈본생담〉의 발전적 계승”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방불국토 사상은 삼천대천세계의 공간론과 성주괴공의 시간론의 논리적 귀결임을, 반야계 경전의 법공사상은 법(Dharma)의 방편성을 가르친 뗏목의 비유와 취지가 같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흔히 껍질을 벗겨도 본질이 나오지 않을 때 양파를 비유하지만, 불교의 경우는 다르다. 불교를 비유한 양파는 껍질들이 모두 양파의 육질(肉質)이자 본질(本質)”이라며 “2500년에 걸쳐 전승되고 재해석되고 재창출된 대승의 불전은 바로 이런 양파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대승불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계관이 초기불전의 근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나의 인지와 정서를 불교적으로 향상시킨다면 불설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입시경쟁 속 죽어간 어린 생명 추모합니다”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1월 15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활개 친 광화문 한복판에선 입시경쟁 속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학생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스님 10여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현직 교사들은 성적비관으로 자살한 학생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천도의식을 진행했다.

참석한 스님들은 “어린 학생들이 입시경쟁 속에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리 방향 모색

11월 30일 ‘공익적 가치평가 정책토론회’ 개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종교 · 문화유산적 기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차별화된 관리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 이하 환경위)는 11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2016 토론회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익적 가치평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자리는 종단이 2014년 진행한 ‘국립공원 내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익적 가치평가 연구’를 토대로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포함된 대부분의 사찰림과 전통사찰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위 측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전통사찰 경내지 중에서도 사찰기능의 본체인 건조물지역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300m, 100m, 50m)에 지정됐기 때문에 종교적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며 “전통사찰지역의 거의 모든 문화재가 소속돼 있다. 가장 전형적인 사찰경관을 보여준단 점에서 문화유산가치가 집약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종교적 기능과 가치 뿐 아니라 문화유산적 가치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리방향 부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 권역별 가치평가 후속연구를 시행, 향후 관리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 및 주제는 △가치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이영경 동국대 교수) △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 사찰지와 공원문화유산지구 경제적 가치평가(한상렬 경북대 교수) △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 환경가치조사 및 관리방안(이병인 부산대 교수) △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 생태가치조사 및 관리방안(김지석 부산대 강사) 등이다.

한편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 · 이용하고, 문화유산인 사찰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지정됐다.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6호에 따르면 공원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독일어 수업을 들은 어르신들이 “Wunderbar!”를 외치고 있다.

어르신 독일어 삼매경 “Wunderbar!” 〈원더풀!〉

서울노인복지센터, 11월 15일 최초 원어민 독일어 수업

“wie heiβen sie?(비 하이쎈 지, ‘이름이 뭡니까’)”

교실에 모인 어르신들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독일어를 말했다. 곧 제각각 질문이 쏟아진다. 독일어를 향한 호기심이 봇물처럼 터지자 수업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11월 15일 독일 원어민이 지도하는 ‘독일어 기초반’ 수업 5강을 진행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1월 1일부터 매주 화 · 목요일 센터 3층 인생교실서 독일인 자원봉사자들이 지도하는 ‘독일어 기초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벌써 2회차다. 지난해 독일 국제워크캠프기구 ijgd(Intern ational Jugendgemeinschaftsdienste)와 협약을 맺은 후 독일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엔 켄과 제니가 파견돼 1차 독일어 기초반 수업을 진행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ijgd와 협업을 진행한 국내 유일이자 최초 복지관이다.

올해 파견된 독일 자원봉사자 루루(21)와 수진(20)은 지난 9월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첫 인연을 맺고 식사권 나눔 등 활동을 해왔다.

수진(20)은 “교재를 직접 만들면서 독일어 강좌를 하는 경험은 처음이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제는 어르신들과 스마트폰 · 이메일로 소통할 정도로 친해졌다”며 “센터가 주관하는 여러 행사서 활약하고 싶다”고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이들과 함께 독일어를 공부하는 어르신들은 젊음을 되찾았단 반응이다.

정문교(81) 씨는 “치매 예방을 위해 외국어 공부에 도전했다. 젊은 시절 독일에 광부로 취직하기 위해 3년간 독일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다시 공부하니 뇌가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의욕에 찬 어조로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측은 “어르신들의 독일어 실력이 나날이 늘어 중급반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2월 중 독일 자원봉사자들 및 수강생들과 함께 독일식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희 기자

대불련 회장 선거, 30여년만에 경선 구도

대경지부 이경수 · 서울지부 장민호 후보 등록

KBUF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55년차(2017년도) 중앙회장 선거가 30여년 만에 경선구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대불련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시리)는 최근 대불련 홈페이지에 제55년차 중앙회장 후보자를 공고했다. 선거에는 이경수 대경지부 금오공과대 지회원과 장민호 서울지부 숭실대지회장이 후보로 나섰다.

기호 1번 이 후보는 2012년 금오공과대 불교학생회에 입회해 지회장과 대경지부장을 역임했다. 대불련 템플스테이와 캠프에 두루 참여했으며, 중앙 문화부와 템플스테이 대학생 서포터즈단서도 활동했다. 올해에는 제5회 영부디스트캠프 공주 법등장을 맡았다. 기호 2번 장 후보는 2015년 숭실대 불교학생회에 입회해 지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올해 자유경제원이 실시한 이승만 시 공모전서 일명 ‘세로드립’으로 이승만 前 대통령을 풍자한 ‘우남찬가’를 써 내 입선하기도 했다.

이번 대불련 중앙회장 선거는 1980년대 이후 첫 경선이라는 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불련 측 확인결과 과거 사무실 이사 과정서 일부 자료가 소실돼 정확한 연도 파악은 어렵지만 대불련 출신 선배들이 “1970년대에 경선이 한 차례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불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서는 경선이 없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46회 화엄산림대법회 법사 일정표

법문하실품	요일	양력	음력	법사
입재법문/화엄경 현담	화	11/29	11/1	방장스님 입재 / 법선스님
세주묘엄품	수	30	2	도일스님
여래현상품/보현삼매품	목	12/1	3	선지스님
세계성취품	금	2	4	종광스님
화장세계품	토	3	5	보광스님
비로자나품	일	4	6	자광스님
여래명호품/사성제품	월	5	7	혜남스님
광명각품/보살문명품	화	6	8	수불스님
정행품/현수품	수	7	9	종석스님
승수미정상품/수미정상게찬품	목	8	10	신공스님
오전)월하스님 다례/십주품	금	9	11	월하스님 추모다례 / 현근스님
범행품/초발심공덕품	토	10	12	수진스님
명법품	일	11	13	각성스님
불승야마천궁품/야마천궁게찬품	월	12	14	중선스님
십행품/십무진장품	화	13	15	덕민스님
승도솔천궁품/도솔천궁게찬품	수	14	16	도문스님
십회향품 1-5	목	15	17	인환스님
십회향품 6-10	금	16	18 지장재일	시명스님
십지품	토	17	19	성우스님
십정품	일	18	20	현해스님
십정십통품/십인품	월	19	21	용학스님
아승지품/여래수량품	화	20	22	지현스님
제보살주처품/불사부의법품	수	21(동지)	23	법산스님
여래십신상해품/여래수호공덕품	목	22	24 관음재일	무비스님
오전)벽안스님 다례 / 보현행품	금	23	25	벽안스님 추모다례 / 현진스님
여래출현품	토	24	26	보선스님
이세간품	일	25	27	월파스님
입법계품(휴사우바니까지)	월	26	28	정우스님
입법계품(비목구사-바산바연주야신)	화	27	29	심산스님
입법계품 / 회향법문	수	28	30	성파스님

※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 주 문



군장병 자장면 위문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11월 15일 육군2사단 신교대서 훈련병들을 위한 자장면 위문행사를 펼쳤다.



청전 스님 초청법문

지운 성주 자비선사 주지 스님은 12월 3일 오후 1시 경내 대웅전서 '달라이라마 제자 청전 스님 특별법문'을 개최한다.



행복사 자비나눔콘서트

능인 한국불교금강선원 행복사 주지 스님은 11월 26일 오후 3시 강북청소년수련관서 '제1회 행복사 자비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



정기총회 · 회장 선거

신외균 조계종 국제포교사회장은 11월 26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보현실서 '정기총회 및 회장 · 감사 선거'를 개최한다.



"나라 격랑 속 작은 디딤돌 되길"

대한불교진흥원, 제14회 대원상 시상식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11월 11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서 제14회 대원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엔 대원상 출가부문 포교대상에 선정된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을 비롯해 수상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천호월서희망재단을 운영하며 국제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월서 스님은 "동남아에서 1달러로 일주일을 지내는 등 안타까운 현장을 접하고 국제구호를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 이를 장군죽비 삼아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출가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금강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전국 사찰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 템플스테이를 세계적인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실어주라고 상을 준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바른법연구원과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녹운회가 재가부문, 오숙진 작가와 불교포커스 팟캐스트 '이미령의 책잡히다'가 콘텐츠부문서 수상했다.

김규칠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고 세계 역시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등 파도가 출렁이고 있다"며 "이런 혼란 속에서도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고, 나아갈 방향 등을 생각하는 일에 대원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여성인재 적재적소 활용하겠다"

Interview

노숙령 제9대 불교여성개발원장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표현이 있죠. 불교여성개발원의 여성불자 108인은 각계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이지만 단순한 신행 · 봉사조직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이런 뛰어난 인재들을 불교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제9대 불교여성개발원장에 선임된 노숙령 중앙대 명예교수〈73 · 사진〉는 11월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앞으로의 포부를 이 같이 밝혔다. 2009년부터 불교여성개발원 이사를 시작으로 2012~2014년 여성불자108인 회장을 맡은 그의 경험이 밴 포부다. 노 원장은 정책 · 교육 · 홍보 · 출판 등 다양한 분야별 사업에 대해 부원장들을 중심으로 한 역할 분담을 계획하고 있다.

노 원장은 "지금까지 부원장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원장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넓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이사 · 회원들을 이끌며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중 · 노년기 여성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이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부원장들에 사업 역할 분담
'돌봄교육'으로 일자리 창출
회원 자부심 고취에도 앞장

이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웰다잉 교육' 등의 전문교육과도 맞닿아 있다. 노 원장은 여기에 중 · 노년기 여성에게 어울리는 '돌봄 교육'을 추가해 방과 후 · 신생아 · 환자돌봄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생각이다. 아울러 개발원 창립 당시 YWCA와 같은 체계적인 여성불자 조직을 구상한 것에 맞춰 회원 자부심 고취와 역량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노 원장은 "예를 들어 YWCA는 봉사활동 중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 단체가 법적인 해결까지 맡아 회원을 관리한다. 하지만 개발원 회원들은 불교계에서 단순한 봉사자로 취급받곤 한다"며 "심지어 사비를 털어 활동하는 일이 많을 정도다. 자부심을 갖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또 불교계 발전방향에 대해 "앞으로 불교정수를 어떻게 젊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대만의 자재공덕회 등 우수한 단체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 한국에 맞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원장은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사, 동 대학원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미국 텍사스 A&M대학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전북대 사범대 가정교육과 교수, 중앙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동 대학 가정대학장 · 여학생처장, 대한영양사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열린학문마당 조성에 최선"

최종남 중승대 교수, 불교학연구회장 연임



불교학연구회 제10대 회장에 최종남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사진〉가 연임됐다.

불교학연구회는 11월 12일 동국대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종남 9대 회장을 10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내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다.

최종남 회장은 추대 직후 연임사를 통해 "많은 부족함이 있는 저를 정기총회서 10대 불교학연구회장에 연임할 수 있도록 결정해줬다"며 "불교학연구회의 더 많은 학술적 발전과 세계불교학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불교학연구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역대 회장, 편집위원, 회원들의 적극적인 학술토론과 논문 투고로 한국불교학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9대에 이어 10대에서도 불교학연구회의 창립 취지에 맞게 열린 모습을 가지고 학문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0대 계획으로 학술상과 인문학 논단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4번의 정기학술대회 및 2번의 하계 · 동계워크숍 외에도 불교학연구와 인접학문과의 발전 및 학술교류 등을 위해 학술상과 각 대학을 방문해 개최하는 인문학논단을 계획하고 있다"며 "제9대에 이어 제10대에서도 회원들의 학술 발표를 독려하고 〈불교학연구〉가 한국불교학계 및 세계불교학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D등급 오명, 지혜 모아 극복"

김호중 금강대총동문회 초대회장



"2년간의 대학평가서 금강대는 D+와 D등급을 맞았습니다. 이런 현실에 재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가고, 상당수 졸업생은 취업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금강대는 현재 위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종단, 재학생, 졸업생이 함께 지혜를 모아 극복해낼 것입니다."

천태종립 금강대 총동문회가 11월 11일 개교 14년 만에 출범했다. 초대회장은 한국수출입은행서 근무하는 김호중 씨(통상통역중어 05학번 · 31 · 사진)가 호선됐다. 김 회장은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인적네트워크 형성 △선후배간 화합 △학교발전방향 모색이라는 3대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동문조직을 이끌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속적으로 졸업생 명단을 확보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 · 배포해 동문회원 경조사를 관리하는 한편, 재학생 학업과 복리증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재학생은 곧 미래의 동문이다.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선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과감하면서도 지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며 "당면 과제를 해결코자 학교와 재학생 사이에서 건설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

금강대는 총동문회의 평의회와 이사회 참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이를 통해 재학생 주요사안을 취합, 학교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수능합격 소원성취 등불 밝혀

선본사, 11월 16일 갓바위 부처님 전에서



팔공산 선본사(주지 법성)는 11월 16일 갓바위 부처님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합격을 위한 소원성취 등불을 밝혔다. 이날 자녀들을 위해 5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선본사 재무 선지 스님은 "수험생 및 부모들 모두 그동안 수고 많았다. 성심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며 찹쌀떡과 합격엿을 나눠주고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조계종, 창종 27주년 법회

11월 15일 연세대 동문회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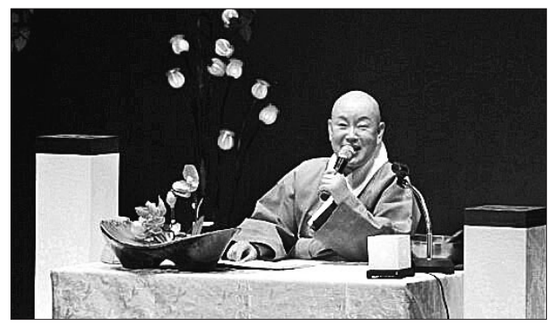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은 11월 15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불교조계종 창종 27주년 기념법회 및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대통령리더십 최고위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합심해 국난을 헤쳐 나가야 한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경륜을 모아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작은마음선원 힐링콘서트

11월 11일, '명상수행' 주제로



작은마음선원(주지 연우)는 11월 11일 용인문화원 마루홀에서 '2016년 명상수행을 통한 소원 이루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는 총 4부에 걸친 명상강의를 비롯해 문화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사부대중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승희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종교인답게 사는가? "아니요!"

시민들, 돌직구 날리다

11월 12일 KCRP '응답하라, 이웃종교! 토크쇼' 현장



11월 12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서 '응답하라, 이웃종교! 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패널로 나선 조계종 포교국장 성진 스님(불교), 정금교 목사(개신교), 이현숙 수녀(가톨릭), 〈연탄길〉 저자 이철환 작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직자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1번 따듯하다, 2번 윤리적이다, 3번 근엄하다, 4번 답답하다, 5번 특별한 인상이 없다. 자, 눌러주세요!"

이날 MC를 맡은 방송인 서경석 씨가 말을 마치자 관객들이 손에 들린 전자투표기 버튼을 눌렀다. 무대 위 자리 잡고 앉은 성직자들은 혹시나 '답답하다', '특별한 인상이 없다'란 답변이 많이 나올까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다.

"아, 다행히 2번 따뜻하다가 31.8%(35표)로 가장 많네요. 성진 스님 이제 긴장 좀 푸시죠. 하하"

11월 12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서 '응답하라, 이웃종교! 토크쇼'를 개최했다. 종교인과 종교인, 종교인과 시민 간 소통의 자리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조계종 포교국장 성진 스님(불교), 이현숙 수녀(가톨릭), 정금교 목사(개신교), 〈연탄길〉 저자 이철환 작가가 패널로 나서 약 110명 관객과 이야기꽃을 피웠다. 주제는 소통 · 생명 · 통일 3가지로 각 주제 당 5개 질문이 주어졌다.

첫 질문의 긍정적 결과도 잠시, 두 번째 질문 앞에 종교인들은 다시 마른침을 꼴깍 삼켰다.

"국내 수많은 종교인들은 상호 소통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투표 시작합니다."

결과는 '아니다'와 '잘 모르겠다'가 각각 37.4%(40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2%(27표)에 그쳤다. '소통' 하자며 모인 자리에 '소통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오니, 종교인들은 서로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이에 대해 이철환 작가는 "우리나라 종교는 서로가 서로를 욕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전체라고 말할 수 없다. 약간의 다름과 거리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 생각한다"며 "각 종교는 그 거리를 유지하며 시대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 및 합의하고,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번째 질문은 소위 가장 셌다. '각 종교의 성직자들과 교인들은 종교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날 MC를 맡은 방송인 서경석 씨.

를 묻는 내용이었다. "솔직하게 눌러도 된다"고 말했던 서경석 씨도 결과가 나오자 당황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 않다'가 65.8%(73표)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것이다.

"정말 솔직하게 누르셨네요."

관객들 사이에선 웃음보가 터져 나왔고, 종교인들은 '아뿔싸'를 외쳤다. 정금교 목사는 손을 모아 얼굴을 가렸고, 성진 스님은 씁쓸한 미소와 함께 이마를 짚었다.

정 목사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의 표가 적게 나왔다. 사실 종교인들은 저를 포함해 종교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종교인들이 수준 높은 가르침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다면 좋았을 텐데, 요즘의 혐오가 가득한 세상이 종교의 탓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소신 있게 말했다.

이어 성진 스님도 "'종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얼마나 훌륭하게 사는가'가 아닌 일상 속에서 진실한 성직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답변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제는 '생명'이었다. 각 종교마다 근본엔 생명존중사상을 내포하기 때문인지 종교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먼저 이현숙 수녀는 첫 번째 질문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태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에 대해 '인간의 탐욕'이라 답했다. 보기는 △분쟁과 전쟁 △과학기술문명 △환경파괴 △무한이윤



관객들이 토크쇼에 집중하며 미소 짓고 있다.

스님 · 목사 · 수녀 패널로 나서
소통, 생명, 통일 주제 토크쇼
시민 110여명 참석해 즉석투표
"한국종교, 서로 소통 안 해"
냉철한 답변으로 분위기 '후끈'

만 추구하는 경제 △인간의 탐욕 5가지가 제시됐다. 이 수녀는 "모든 종교의 답변이 같을 것"이라며 "과학기술문명은 중립적인 것과 다름없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인간 의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단 것을 일찍 깨달아야한다. 자신이 얼마큼 가져야 내가 행복한지 생각해보라"고 물음을 던졌다.

성진 스님도 "분쟁과 전쟁, 과학기술문명, 환경파괴 등 모든 문제가 바로 인간의 탐욕서 비롯된다"고 동조했다.

이에 서경석 씨는 "4살 때부터 탐욕을 버리려 했는데 마흔이 넘어가도 버릴 수 없다. 오늘을 계기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3번째 질문은 생명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를 묻는 것이었다. 결과는 △북핵 · 사드 등 분단과 군사적 대치(28.9%) △낙태(26%) △비정규직 등 노동현장(24%) △연명치료(16.4%) △4



사전 축하공연을 펼친 장애청소년합창단 '에반젤리'.

대강(4.8%)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비정규직'을 꼽은 정금교 목사는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개인 문제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기업과 노동자 간 생존권이 관련된 문제"라며 "나를 비롯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더 따뜻하고 세밀한 관심으로, 노동문제가 아닌 '생명존중의 문제'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에 대한 대화가 시작됐다. 마지막 주제였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패널들과 관객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분단 상황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계 역할을 묻는 질문까지 다양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인 '남북분단으로 발생되는 문제해소를 위해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가?'란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57.4%(58명)로 과반수였다. 이밖에 잘 모르겠다(22.8%), 아니다(19.8%) 순으로 나타났다.

성진 스님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서 탈북민들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부둥켜안고 우는 탈북민들과 남한 사람들을 보니 참 안타까웠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가까이 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다음세대에까지 물려줘야한단 사실이 참 안타깝고 슬프다"고 말했다.

특히 네 번째 질문인 '우리 사회에 대북지원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서 성진 스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견을 표출했다. 답변 중 '지원물품이 북한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 지원해야한다'가 다소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네가 ~을 하면 내가 도와줄 게'란 식의 조건을 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 조건 자체가 양자 사이에 벽을 만들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한 민족을 돕는 일에 어찌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 이현숙 수녀도 "우리가 그들이 느끼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한 관객들은 종교인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았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얘기들이 오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방영미(가톨릭대 종교학 박사과정) 씨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면 다소 원론적인 대답들이 이어져서 아쉬웠다"며 "하지만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 것만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오늘 자리는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원래 가장 필요하단 말은 가장 부족하단 뜻"이라며 "성직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부터 낮춰 대화를 위한 준비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축하공연엔 장애청소년 합창단 '에반젤리'와 가수 에릭남의 무대가 펼쳐졌다.

에릭남은 "종교계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이해를 좁히려는 움직임이 매우 좋은 것 같다"며 "난 한국서 가수 준비를 하며 종교에 많이 의지했다. 여러분도 어떤 종교를 믿든 각각의 믿음을 지켜가며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신행·포교 소식

"행복한 어린이법회 위해 공부를…"

(사)동련, 12월 3~4일 제61차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사)동련(이사장 성행)은 12월 3~4일 하동군청소년수련원서 '제61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장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실시한다.

연수회는 3일 오후 2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한나무인성교육(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등 만들기(연등회 보존위원회) △전래놀이 한마당(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법명 스님) △권역별 모임 △우수프로그램 소개(홍법사 어린이 동안거 수행) 등이 진행된다. 선착순 180명을 모집하며 동련 홈페이지(www.dongryun.net) 또는 전화(051-864-4569)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사전접수(~11/30까지) 8만원, 현장접수 10만원. 단체를 비롯해 학인 · 군종병 등에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이사장 성행 스님은 "격변하는 교육환경서 지혜로운 어린이불자를 양성하고, 행복한 어린이법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어린이포교에 앞장서는 지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스님도 템플스테이로 '마음 치유'

백담사-마음치유학교, 12월 1~4일 '스님 위한 힐링스테이'

인제 백담사템플스테이연수원(원장 백거)과 마음치유학교(교장 혜민)는 12월 1~4일 백담사서 '스님을 위한 힐링스테이'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템플스테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오로지 조계종 스님을 위해 열린다. 스님들도 여러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힐링스테이 진행은 백담사템플스테이연수원장 백거 스님과 마음치유학교장 혜민 스님이 맡는다. 세부 프로그램은 △애착유형 알아보기(윤성옥 마음치유학교 교감) △무의식 만나기(이다감 한국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만다라-성전찾기(신승녀 수원푸른교실&미술치료연구소장) 등이 진행된다.

선착순 30명 모집하며 백담사템플스테이 홈페이지(baekdamsa.templestay.com)서 신청 가능하다.

주최 측은 "자아의 빛과 그림자를 통한 자신의 이해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중생을 행복으로 이끌도록 돕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033)462-5565(백담사), (02)735-2589(마음치유학교)

윤호섭 기자

자살, 불교적 해법은 무엇일까?

불교상담개발원, 12월 7일 자살예방세미나

전 세계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민낯의 대한민국. 이 같은 현실서 자살예방을 위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무각)은 12월 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자살, 불교상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자살예방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주최하며, 불교상담개발원이 주관한다.

세미나서 좌장은 김재성 교수(능인불교대학원대 명상심리학과), 연구위원장은 박영숙 명예교수(이화여대)가 맡는다. 기조발제는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이 '불교에서 본 자살과 자살예방'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자살유가족을 위한 불교적 상담 사례(불교상담개발원장 무각 스님) △불교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 상담기법적 접근(황선정 마음여행심리상담연구소장) △불교계 자살예방 대처 현황과 과제(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 등의 발제가 이어진다. 종합토론은 이광자 명예교수(이화여대)가 진행한다.

윤호섭 기자

"내 火가 남을 아프게 했군요… 미안해요"

국제선센터, '수요 마음 쉼 명상교실' 8주에 걸쳐 마음챙김 자기연민 교육

12월 28일까지 MSC 교육
관계 · 감정 · 자애 등에 집중
강좌 지속적으로 열 계획



11월 16일, 국제선센터 수요 명상교실 참가자들이 국제차장 보관 스님 지도에 따라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

"눈을 감고 허리와 어깨에 힘을 빼세요. 두 손은 무릎 위에 살포시 올리고, 고개를 좌우로 어지럽지 않게 천천히 반복해서 돌리세요. 자, 긴장을 풀고 한 손을 가슴에 갖다 대세요. 그리고 애정 어린 마음을 가져온단 생각으로 호흡하세요."

11월 16일 저녁, 서울 국제선센터 5층 템플스테이관. 차분한 분위기를 위해 틀어놓았던 명상음악이 꺼지고, 10여 명이 모여 도란도란 나누던 대화가 끊기자 고요함만이 남았다. 그리곤 호흡하고 있는 감각이 서서히 느껴진다. 누구는 가부좌가 불편해 다리를 움직이고, 또 다른 누구는 코가 가려워 긁지만 표정은 모두 한결같이 온화했다. 10분쯤 지났을까. 끝을 알리는 주발소리가 울렸다.

국제선센터가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주간 실시하는 '수요 마음 쉼 명상교실'이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서 어지러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시간이다. 명상교실은 마음챙김 자기연민 MSC(Mindful Self-Compaassion)기법을 통해 누구나 쉽게 명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잠깐의 명상이 끝나고 지도법사인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보관 스님이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잡생각이 많았고, 한편으론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어떤 잡념이 들어서 없애려 하면 다른 잡념이 찾아오네요."

같은 공간, 그리고 같은 행(行)이었지만 각자 느낌은 달랐다. 그렇다고 누군가 틀린 것은 아니다. 보관 스님이 답했다.

"오히려 명상할 때 마음이 더 시끄럽지 않나요? 일상생활에선 마음이 시끄럽단 걸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동안 기계처럼 수많은 생각이 떠돌고 있던 걸 명상의 알아차림을 통해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사띠(sati)고,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느낌을 느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느낌과 감정의 차이를 설명했다.

"어느 아기가 내 볼을 살며시 꼬집었을 때 귀엽다고 생각하겠죠. 반면 미워하는 사람이 날 꼬집었을 땐 화가 날 겁니다. 여기서 꼬집는 것에 대한 순수한 강도를 느낌이라고 한다면 누가 날 꼬집었는가에 대한 생각이 감정입니다. 호흡 자체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이지만 감정이 붙을 때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느낌 뒤에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연민을 보내야 합니다."

'느낌을 느끼라'는 말에 갸웃했던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스님의 지도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두 발바닥에 닿는 것에 신경을 집중했다. 좌우로 발을 옮겨보고, 제자리에서 걸어보며 변화하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선옥(50) 씨는 "명상을 시작한 뒤부터 과거에 화를 내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옛날에는 화를 내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화가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는 걸 느낀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반성하게 됐다. 명상을 할수록 자비를 느끼게 돼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혜진(28) 씨는 "아직 긴 시간 배우지 못해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습관화가 되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 명상을 해야 하는지 조금씩 감이 온다. 강좌가 끝날 때쯤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토양이 생길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의 수요 명상교실은 8주간 MSC기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이는 하버드대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이 국내 보급을 주도했다. 보관 스님은 지도자과정을 이수하고,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자 명상교실을 꾸렸다. 현재 참가자는 총 18명. 강의는 △마음챙김 · 자기자비 실현 △마음챙김의 수행 △자애 수행 △자비로운 목소리의 발견 △깊이 살기 △힘겨운 감정 다루기 △힘든 관계 바꾸기 △삶을 끌어안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관 스님은 "MSC는 삶에서 느끼는 실존적인 불안감이나 관계에서 생기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의 일환이다. 불교신자든 일반인이든 위안을 얻고 싶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며 "8주가 끝난 뒤에는 또 다른 이들이 참여하도록 새로운 명상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올해 불교복지 위상 높인 유공자는?

조계종복지재단, 11월 15일 불교사회복지유공자 공개

제18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앞두고 불교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주역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1월 15일 '불교사회복지 유공자' 21개 단체 · 개인을 발표했다. 유공자는 조계종복지재단이 지난 9월 19일부터 전국 불교계 복지시설 · 단체 및 개인을 추천 받아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총무원장스님표창은 △사회복지시설 단체 운영부문 도제 스님(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 관장), 김은희(여주시장애인복지관장), 조수경(금정구종합노인복지관장) △사회복지발전 공헌부문 김경희(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김은영(부산서구시니어클럽 팀장), 신재원(광진노인종합복지관 부장) △자원활동 부문 김점순(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자), 보늬희(반야원 봉사단체), 여천NCC법우회(여수시노인복지관 봉사단체), LetsRun CCC.수원(영통종합사회복지관 봉사단체) △특별상 일운 스님(황송노인종합복지관장), 이미자(조계종자원봉사단 늘사랑회 봉사자), 태유 스님(지구촌공생회 라오스지부장)에게 돌아갔다.



총무원장스님표창 수상자 도제 스님



총무원장스님표창 수상자 김은희 관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수상자 태유 스님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사회복지시설단체 운영부문은 김희철(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 이수경(아우내은빛복지관장) · 이운희(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가, 보건복지부장관상 사회복지발전 공헌부문엔 심은형(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 · 유의천(송파복지센터 부장) · 임아화(해나라어린이집 원장)가 선정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자원봉사활동 부문은 석주화(사립재단 자비의전화 상담원) · 유경순(조계종자원봉사단 직할 봉사팀 함소회 봉사자)이 뽑혔다.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힘쓴 전국의 사회복지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 있기에 불교복지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자비나눔 실천가를 발굴 · 표창함으로써 불교사회복지인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정된 유공자들은 12월 1일 AW컨벤션센터서 개최하는 '제18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해 상장을 수여받는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핸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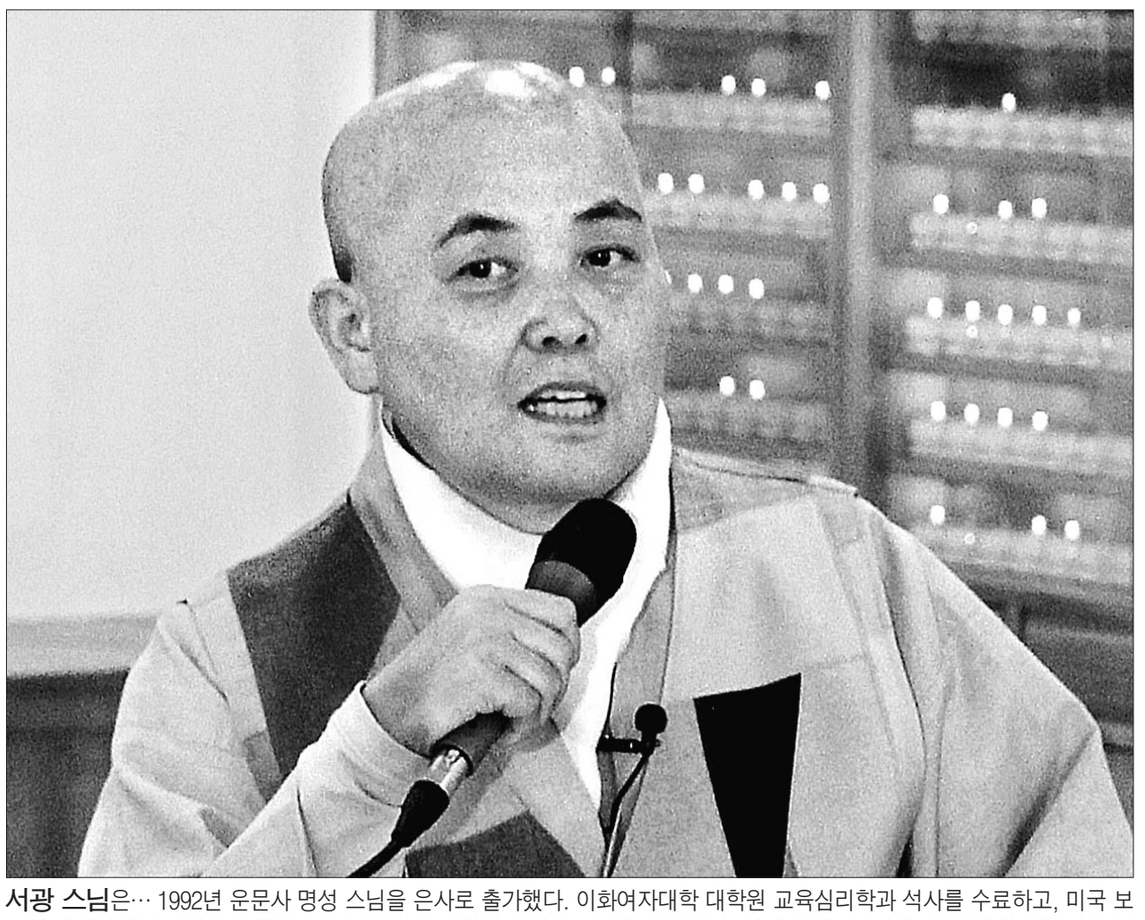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腦에 새긴 나쁜 흔적, 명상으로 지우세요”

참불선원 인문학강좌… 불교와 뇌과학, 그리고 명상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

광활한 평원 위에 마차가 한 대 지나간다. 그 길로 나버린 바퀴자국을 따라 연이어 다른 마차와 사람들이 지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마차 한 대가 남긴 흔적은 큰 길이 됐다. 불교와 서양 의학은 우리 행동과 감정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형성됐다고 말한다. 뇌과학자들은 수술이나 약물치료 없이 물리적 뇌의 변화를 부정했지만, 불교선 명상을 통해 뇌 자체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은 11월 14일 참불선원 인문학강좌서 “알아차림 명상이 뇌의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하고, 명상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에 답했다. 정리=이승희 기자



서광 스님은… 1992년 운문사 명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화여자대학 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석사를 수료하고, 미국 보스턴 대학서 종교심리학을 전공, 소피아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에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 30송〉,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등 있다.

뇌를 바꾸는 명상

오늘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다기보다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받겠단 생각으로 강의를 들어보세요. 강연을 듣는 주체는 ‘나’라고 생각합시다.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방편으로 활용하겠단 생각으로 공부에 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주 내내 우울과 명상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연구할 때, 가만히 있으면서 대상을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성과가 없습니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와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경계가 만나 이뤄내는 수많은 감정 상태가 곧 나라는 자아느낌을 형성한다는데, 단순히 대상을 놓고 본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공부했다는 상(像)만 쌓이고, 겉 개념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 우울이란 주제에 완전히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는데 우울한 감정이 느껴지더군요. 퍼뜩 주위서 우울증을 앓다 빨리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불교적 가르침이 절박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한때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줄을 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 TV 채널에서 우울증에 대한 특강을 하더군요. 거기서 강사는 우울증이란 마음의 작용이 아닌 뇌의 작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적 뇌과학 입장에선 마음을 뇌가 전기화학적 작용을 한 결과로 봅니다. 따라서 뇌가 죽으면 마음도 끝나게 됩니다. 전통적 불교 관점에서 뇌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마음의 작용 결과로 생각합니다. 양쪽이 전혀 상반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뇌과학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땐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뇌수술을 집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교의 관점에선 마음을 닦아야 하지요. 뇌를 바꿔서 마음을 바꿀 것인지, 마음을 바꿔 뇌를 바꿀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명상과 뇌과학이 만나게 됩니다.

달라이라마는 뇌과학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양 의료계에 마음이 뇌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지요. 신경학자들은 ‘뇌 가소성’ 개념으로 뇌에 접근합니다. 뇌 가소성 논리에선 한 번 생긴 뇌세포나 신경회로는 변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불교에선 어떨까요? 수행을 통해 뇌조차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MRI 기술이 도입되고 뇌 상태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자 이러한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이후 서양 정신치료와 불교가 만나면서 명상이란 분야를 활발히 개척하게 됩니다.

습관의 노예가 되지마라

여러분, 갓난아이의 두뇌 작용원리를 아십니까? 아이의 두뇌엔 수많은 신경이 있고, 전기화학적 전류가 특정 신경을 통해 흐를 때마다 해당하는 신경 통로가 형성됩니다. 뇌 작용을 연결하는 뉴런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 규칙적으로 사용되는 통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패턴으로 연결됩니다. 적게 사용되는 통로들은 연결이 약하거나, 작용하지 않을 땐 신경이 죽기도 합니다.

두뇌가 성장해갈수록 특정한 형태의 패턴은 강화됩니다. 우리 경험은 차별적이기 때문에 뇌의 발달부분도 다르지요. 화를 많이 내면 화를 담당하는 신경부분이 발달합니다. 이런 패턴이 형성된 것을 우리는 성격 혹은 인격이라고 일컫습니다.

평원을 지나가는 마차의 행로 자국을 떠올려 보세요. 마차의 흔적은 나중에 길이 되곤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두뇌는 과거 활동의 자취가 미래 활동으로 진행될 경향성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활동 패턴이 굳어지면 결국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행동들이 표출됩니다.

마음은 이렇듯 습관에 의해 강요될 때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삶의 습관적인 반응이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화를 내기 싫어도 불쑥 화가 나고, 모진 말을 내뱉고 싶지 않아도 이미 말은 나와 버렸습니다. 전에 쌓인 업이 너무 많으니 조건만 맞으면 불쑥 안 좋은 습관이 튀쳐나와 인간관계를 힘겹게 만들고, 중요한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고통과 갈등을 유발하는 정신적 · 사회적 · 신체적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학습된 악습이 작동하는 행동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세세생생 쌓인 업은 단지 한 번 깨달았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바꾸려면 당연히 힘이 들지만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꾸려는 의지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 똑바로 보기

이때 명상은 잘못된 습관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좋은 도구입니다. 마음챙김의 의식적 자각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마음 구조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합니다. 깊게 새겨진 무의식적 행동 패턴은 지각의 범주를 벗어나 작용하기 때문에 직접 관찰되진 않습니다. 명상의 핵심적 기능인 알아차림은 역동적인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행동패턴 따라 생긴 뇌회로서
무의식적 행동 불쑥 튀어나와
오랜 악습 바꾸려면 시간 걸려
명상 통한 알아차림부터 시작

평원 위에 새겨진 마차의 흔적은 누구나 평원을 응시한다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 뇌에 새겨진 통로도 자각하고 의식할 수 있습니다. 명상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 따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명상을 하면 지혜로워집니까?

우리는 각자 방식대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해석합니다. 명상을 하면 있는 그대로, 아무 편견도 없고 탐욕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반대는 망상입니다. 망상은 인지 · 사고 · 정서의 왜곡이고 이로 인해 번뇌가 일게 됩니다. 그러니 망상과 번뇌가 없다면 더욱 지혜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겠지요. 배가 고플 때 모든 감각이 음식에만 반응하고, 명예를 원하는 사람이 오직 명예만 추구하는 등 맹목적 상태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니 지혜로워지지요.

–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을 또렷이 뵙고 싶은데 관(觀)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또렷이 보고 싶다면 잘 그려진 그림을 보세요. 그리고 관이 잘 안 돼도 실망하지 마세요. 몇 십 년을 수련한 명상 스승님들도 앉아 있을 때면 망상이 떠오른다고 솔직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우리 모든 몸과 마음 구조는 생존을 위해 발달되었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행복을 위하기보다 생존을 위해서 작동합니다. 그러니 집중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아이를 부드럽게 타일러 데려온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보세요.

– 화를 알아차린 후에 오히려 여기에 집중만 하게 됐습니다. 결국 화병이 날 것 같아 화를 내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심리 상태 각각에 따라 효과적이거나 덜 효과적인 수행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불교는 화를 자비명상으로 다스리라는 지침을 줍니다. 화는 상당히 거친 감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각각의 다른 부드러운 욕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섭거나, 외롭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 이면엔 사랑받고 싶단 최초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비명상을 통해 현재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생각하고 이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에게 사랑을 주는 자기연민이 필요합니다.

– 남의 단점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말 화가 났을 땐 정작 화를 알아차리지 못해 자괴감이 듭니다.

마음공부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한심하다고 자신을 비난하는 겁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바탕에는 자만심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 그대로 효과를 볼 것이라는 생각은 더 큰 질책만 부릅니다.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고 너그러이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타자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긍정적인 요소를 발현하고 싶은데 남이 이를 가지고 있으니 좋아 보이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피할 수 없다면, 모든 일은 반드시 내가 필요한 공부가 남았기에 겪는 것이니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지 생각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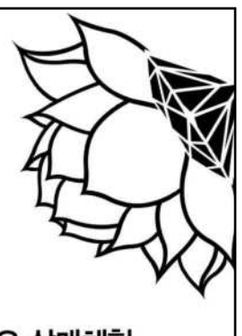
– 명상을 통해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니 가족들은 무관심하다며 섭섭함을 표합니다. 가족에 애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들을 서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 내려놓기는 단순히 무덤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 사무량심(四無量心)이 말하는 마음가짐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평정심’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중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서 자녀에게 관심이 쏠려 남편을 못봤거나, 가족에 쏠려 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때 이를 바로 잡는 걸 말합니다. 내려놓기보단 평등하단 표현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수행을 할 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자신을 포함하란 겁니다. 부처님 교리의 핵심 가르침은 요익중생(饒益衆生)입니다. 부처님은 살아있는 모든 중생이 서로 유익한 존재이길 바라셨습니다. 불법을 적용할 때에도 최대한 많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를 돌보고 따뜻하게 대할 때, 요익중생은 점점 확장될 수 있습니다.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5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2월 4일까지
◆ 개 강 일 :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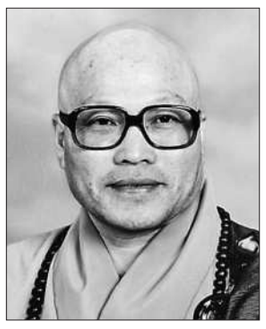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근현대 선지식 일타 스님 조명한다

한국불교학회, 11월 25일 추계학술대회

동곡문도회와 공동으로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중 한 명인 동곡 일타 스님〈사진〉의 생애와 수행정신을 학술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와 동곡문도회(대표 혜국)는 공동으로 11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2층 회의실에서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 스님'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세미나는 일타 스님에 대한 조명과 더불어 동아시아 불교 전반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오전 9시 50분 국제회의장에서는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선사상과 문화'(김재성, 능인대), '조선시대 선사상 연구의 현황과 과제'(정영식, 고려대장경연구소), '조사선에 대한 소고'(황금연, 동국대), '와비차에 나타난 선사상'(정영희, 동국대)이 발표되며, 같은 시간 2층 회의실에서는 '명상수행자의 촉각 주의력에 대한 실험적 연구'(김성철, 동국대), '아함경에 나타난 아나반나념 수증상 연구'(정문용, 동국대), '상월조사의 불성개현사상'(황상준, 천태불교문화원)이 발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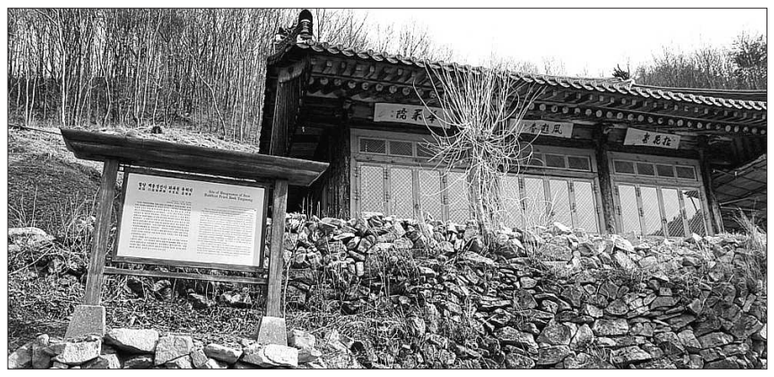
오후 1시 30분 국제회의장에서는 일타 스님에 대한 학술적 조명이 이뤄진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동곡 일타의 생애와 수행'(김경집, 진각대), '동곡 일타율사의 계율사상'(조계종 교육아사리 원영 스님), '한국불교의 계율적인 특징과 동곡 일타의 위상'(자현 스님, 중앙승가대), '동곡당 일타 큰스님의 교화행과 그 의의'(묘주 스님, 동국대), '일타의 자성적 노선과 조계종단의 좌표'(김광식, 동국대), '동곡 일타 대종사의 선사상'(신규탁, 연세대) 등이다.

2층 회의실에서도 '혜영 대지도론소에 대한 기초적 고찰'(최은영, 금강대), '일두 정여창의 불교적 혐의와 유 · 불 회통론'(김종수, 세명대), '정보구조를 활용한 경전번역의 점검 방안'(박윤철, 경남대), '아난다에 대한 비판의식-소소계 범위를 중심으로'(원혜영, 동국대)가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화과원, 항일운동 역사적 거점"

최영호 동아대 교수
국가 사적 승격 보고서 주장
중장기적 학술연구사업 필요



백용성 선사가 설립한 함양 화과원 전경. 함양군을 중심으로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된 함양군 '화과원(華果院)'이 독립자금을 대던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항일독립운동과 불교개혁의 역사 · 문화적 거점공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화과원을 국가 사적화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연구사업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양군은 11월 14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임창호 군수, 손병규 부군수, 실과소장, 용역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 백용성 선사 화과원 유허지 국가사적 승격 지정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맡았던 최영호 동아대 교수는 보고회에서 백용성 선사의 항일민족운동, 불교개혁실천운동, 화과원의 역사문화적 성격과 위상, 국가사적승격지정을 위한 단계적 방향을 차례로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현존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과원을 선농불교의 실천 '농장'으로 보는 제한적인 시각이 많아 아쉬웠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는 화과원에 담겨진 훨씬 방대한 다양한 역사 · 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화과원이 용성 선사가 활동한 핵심적 공간임을 전제하며 용성 선사가 3.1운동 후 고초를 겪고도 일제 통치에 포섭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용성 선사는 대각교 운동을 중심으로 1940년 입적할 때까지 불교 경전 번역과 출판에 매진했다.

최 교수는 "화과원은 백용성 선사와 당대의 선지식들이 선농 불교를 실천하면서 항일독립운동과 함께 불교의 개혁, 사원의 자립경제, 지역 빈민아동의 교육복지사업, 불교경전의 역경과 저술 등을 전개한 역사 · 문화적인 거점 공간"이라며 "이를 국가사적으로 승격지정받기 위해서는 단계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단계적 방향으로는 △원천 기록유산을 집대성하고 전산화 △관련 유적과 자료를 발굴 · 복원 △역사문화적인 위상 정립 및 대중화 △항일민족운동 체험교육현장으로 특화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임창호 함양군수는 "화과원이 독립자금을 대던 자립농장의 역할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당대에 민족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역할을 한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집단과 국가사적지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계각층과 숙의해 중장기플랜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제6회 반야학술상에 고영섭 · 박찬국 교수

12월 4일 반야암서 시상식



고영섭 교수



박찬국 교수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제6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와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한국불교사 탐구〉를 출간한 고 교수는 저역상에, '유식불교의 삼성설과 하이데거의 실존방식 분석 비교' 논문을 저술한 박 교수는 논문상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 오후 1시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월정사탑돌이 道무형문화재 지정

강원도무형문화재 28호로… 탑돌이 중 유일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의 탑돌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강원도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월 4일 열린 심의를 통해 월정사에서 봉행되는 '월정사 탑돌이'를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월정사 탑돌이'는 보유 단체 예능으로, 보유단체로는 '월정사탑돌이보존회'가 지정됐다.

'월정사 탑돌이'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던 것을, 1969년 주지로 부임한 만화(萬化) 스님이 전통적 탑돌이를 복원해 체계화 시켜나갔다.

이후 '월정사 탑돌이'는 1980~90년대 침체기를 거치다가 2004년 오대산불교문화축전에서 시연한 이후 매년 봉행되기 시작했다. 2013년 이후에는 매월 보름과 초파일 등에 지속적으로 탑돌이 행사가 진행돼 왔다.

탑돌이는 월정사뿐만 아니라 '법주사팔상전탑돌이', '충주중앙탑탑돌이', '통도사탑돌이', '만복사탑돌이' 등이 행해지고 있으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월정사 탑돌이'가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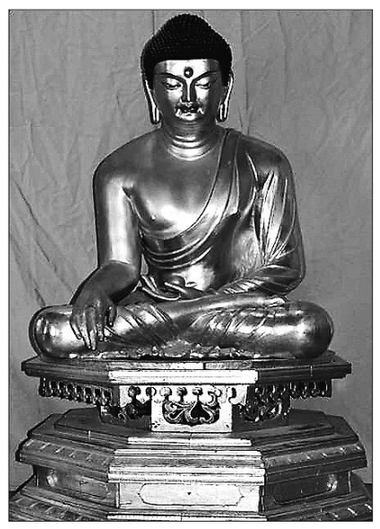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된 월정사 탑돌이의 시연 모습.

조성연대 논란 청량사 건칠불 보물된다

2009년 지정 신청 이후 7년만에 논란 일단락돼 탄소측정 결과 10세기 作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보물 지정 신청 이후 조성연대 논란이 있었지만, 탄소연대 측정으로 10세기 근작임을 확인됐다.

조성연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청량사 건칠불이 보물로 지정됐다. 2009년 보물 지정 신청 이후 7년만에 보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성 연대 논란이 일단락되게 됐다.

문화재청은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비롯한 문화재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건칠불의 시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돼 왔지만, 보물 지정 신청 이후 얼굴이 석굴암 본존불과 흡사하고 20세기 기법으로 만들어져 근대 작품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불상의 직물을 채취해 방사성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직물의 제작시기가 770~945년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높이 90㎝, 어깨 너비 54㎝, 무릎 너비 72㎝ 크기이며, 1560년과 1715년에 중수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번 보물 지정으로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보물 제999호)'과 함께 한국 건칠불의 시원이 되는 문화재로 인정받게 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임진왜란 직후 벽암각성 문도 조각승들이 조성한 고창 문수사의 불보살상과 시왕상들을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들은 보물 제1918호와 1920호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목조지장보살좌상, 시왕상은 벽암각성 문도들이 주도해 조성된 것으로 당시 주요 조각승인 해심 등 15명이 참여했다. 모두 17세기를 대표하는 불교 조각들로, 이 시기 불교 조각의 기준이 되는 문화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선시대 전기에 발행된 불교 경전인 양천구 본각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5~7과 은평구 심택사에 있는 〈묘법연화경〉 권4~7도 보물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 공모

내년 2월 28일까지 '불교 현대화' 주제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이 불교철학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제8회 원효학술상 공모를 실시한다.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 1부와 저서 2부, 논문의 경우 별쇄본 3부이며, 지원서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학술상 접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접수는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 부문은 교수 저술상 1000만원, 교수 논문상 700만원을 비롯해 비전임교수 논문상 500만원, 석 · 박사 과정 학생 논문상 금상(300만원), 은상(250만원), 동상(200만원) 등이다. 심사결과는 내년 4월 통보되며, 시상식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02) 719-2606

신성민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꿈을 가진 청춘, 이곳에 모여라!

12월 1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서 '2016년 로얄비츠 페스티벌' 열려

꿈을 위한, 꿈을 응원하는, 꿈이 성취되는 자리가 열린다. 인생의 꿈을 위한 축제 '2016년 로얄비츠 페스티벌-컴퍼티션&힙합콘테스트'가 부산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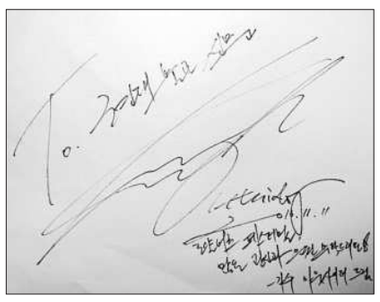
로얄비츠 페스티벌(대회장 원허)은 12월 10일 오후 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서 막을 올린다. '로얄비츠 페스티벌'은 불교문화의 현대화를 꾀하며 마련된 자리로, 참가자들은 힙합 무대를 펼치며 전문가 조언을 받고, 꿈에 다가가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

주최 측은 "경연에 참가하는 청소년 외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운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짐을 벗는 시간이 될 것"이라 밝혔다.

페스티벌은 1부 컴퍼티션으로 문을 연다. 오후 1~4시 진행되는 예선을 통과한 15팀에게 오디션 기회를 제공하고 랩, 댄스, 보컬 3가지 부문을 심사해 상금을 수여한다. 심사위원은 HW페스티벌 위원회 대회장 원허 스님을 비롯해 너의 목소리가 들려 OST 등을 작곡한 작곡가



2016년 로얄비츠 페스티벌-컴퍼티션&힙합 콘테스트 공식 포스터.


로얄비츠 아웃사이더 사인

겸 프로듀서 문규혁, JYJ 등 아이돌 전속 안무팀 '아이디묘' 대표 단장, MBC 위대한 탄생 시즌2 우승자 구자명, 아웃사이더, 타이미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컴퍼티션 참가는 홈페이지(www.royalbeatz-festa.com)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심사를 위한 음원 또는 동영상과 함께 이메일(royalbeatz@funnyworks.co.kr)로 제출하면 된다.

컴퍼티션&힙합콘서트로 여는 축제

대상 500만원, 총 상금 1천만 원

예선에 전국 청소년 뜨거운 관심

심사위원에 아웃사이더·구자명 등

참가 대상은 전국의 만 15세 이상 30세 이하(국적 불문)이며 예선 접수 기간은 11월 27일까지다. 결과 발표는 12월 2일 홈페이지 혹은 개별 연락으로 진행된다. 최종 본선 참가부문은 댄스, 랩, 보컬 각 5팀으로 총 15팀이다. 시상은 부문 구별 없이 통합 1위 대상 1팀에게 500만원, 각 부문별 1위 3팀에게 각 150만원, 인기상은 각 부문 구별 없이 1팀에게 5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2부는 힙합 콘서트로 진행된다. 콘서트에는 경연에서 우승한 대상 수상자가 함께 무대에 서며 아웃사이더, 슈퍼비, 면도, 타이미, 사포, 프리마테, 뉴챔프 등이 화려한 무대를 꾸민다. 시간은 오후 6~8시다.

당일 관람은 1부는 무료입장이며 2부 콘서트는 현장에서 표 100매(1만원)를 선착순 판매한다.

앞서 11월 11일 송정 쿠무다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아웃사이더는 "이번 경연대회엔 기획사의 캐스팅 매니저들이 참가한다"며 "진정성을 가진 실력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꿈을 응원한다. 꿈을 가진 자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회장 원허 스님은 "우선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불교를 접하도록 돕고, 그들을 이해하는 문화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서울 뿐 아니라 부산 및 지방에 있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2)3397-7180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연합신도회, 극락정토 대바자회

11월 14~17일 수익금 불우이웃 위해 회향

다가오는 겨울, 추위를 감싸줄 따뜻한 나눔의 장이 열렸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는 소외계층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극락정토 대바자회'를 11월 14~17일 4일간 개최했다. 첫날인 14일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부산 비즈니스 호텔서 오픈식을 열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

바자회는 고급 의류 패션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영희 디자이너가 동참했다. 이영희 디자이너는 전 패션을 50~80% 할인가로 제공하고 수익금은 모두 부산불교복지협의회에 전달한다.



이영희 디자이너는 "1년 동안 기획을 거쳐 마련한 바자회"라며 "수익금을 이렇게 나눔으로 회향할 수 있어 뜻 깊고 기쁘다. 불자로서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하는 기회를 자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051)245-4560 하성미 기자

응공조계종, 창종 5주년 기념대법회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11월 11일 총본산 칠곡 동명사서 창종 5주년 기념대법회를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수산·월산 스님 집전으로 시식축원과 육법공양, 발원문 낭독, 종사이운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법운 스님은 "오늘은 새 불교와 혁신적인 종지종풍 확립을 위해 출발한 지 5년이 된 날"이라며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기 위해 사부대중이 단합해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자리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의장 보운 스님, 원로위원 평원·혜담·홍원·수덕·법등·해담과 문도대중 스님 등 200여명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통도사, 31명 대강백 '화엄의 바다' 강설

11월 29일부터 화엄산림대법회

영축총림 통도사는 11월 29일~12월 28일 제46회 화엄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는 매년 음력 11월 1일부터 1달 동안 화엄의 도리를 알고 새기는 시간으로, 전국 대강백 법사 스님들의 화엄경 강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입재식은 11월 29일 오전 11시 방장 원명 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돼 옥련암 감원 법선 스님의 화엄경 현담이 이어진다. 법회 기간 동안 전국 대강백 31명의 법문이 펼쳐지며 회향은 12월 29일 오전 10시 통도사 수좌이자 원로의 원인 성파 스님 회향 법문으로 마무리된다. 법회는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로 각 2차례에 진행된다.

동참금은 온산림 20만원, 반산림 10만원이며 영가는 1위당 2만원이다.

통도사는 "진리에 대한 간절함으로 선·교·율의 큰 스승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055)381-1288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 환희의 佛音에 빠지다

2016년 부산불교합창제 성료

부산불교가 불음(佛音)에 취했다. 부산불교연합합창단 음성에 맞춰 불자들은 박수로 환호했고, 어느 순간엔 고요히 숨을 죽였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박화자, 이하 합창단 연합)는 11월 15일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서 '2016년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매년 열리는 합창제는 부산불자들의 음성포교 장이 될 뿐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원동력으로 발돋움했다. 또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 실력 향상 계기도 된단 평이다.

합창제는 먼저 창단 1주년을 맞은 부산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이 여는 무대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범어사 합창단이 '길', '들장미'란 곡으로 가을에 어울리는 곡조를 선보였다. 다음으로 특별출연자 통도사 우담바라 합창단, 서울제니스합창단의 우정 무대와 불교TV BTN 남성 중창단과 유용준 바리톤의 수준 높은 무대가 펼쳐져 큰 박수를 받았다. 그뿐 아니라 이번 합창제를 계기로 창단된 '로터스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함께 올랐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11월 15일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서 '2016년 부산불교합창제'의 막을 올렸다.

또 마지막 무대서 합창단 연합은 묘심스님이 작사한 '어느 암자의 사계절'을 불러 대미를 장식했다. '어느 암자의 사계절'은 23년 전 이찬우 불자가 작곡한 곡으로, 연주 시간만 총 14분인 대작이다. 합창단 연합은 이 곡을 위해 1년의 연습 기간을 거쳤으며 마지막 무대선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안소영, 바리톤 유용준, 불교TV BTN 남성 중창단이 함께 무대에 서 웅장함을 선사했다.

박화자 회장은 "부산불교합창제는 단순한 합창제가 아니라 부처님 법음을 찬탄하는 자리로, 대덕 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허공계를 장엄하는 음성공양을 올리는 시간"이라며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거룩한 뜻을 찬탄하고 온 세상이 불국토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은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불교계 무대 뿐 아니라 전국 단위 큰 무대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찬불가를 홍포하는 일에 큰 몫을 해내는 음성 포교사"라며 "이 성대한 합창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그간 노력과 신심을 아끼지 않은 박화자 회장과 배천종 지휘자를 비롯해 단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합창제에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상임부회장 효원정사,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을 비롯해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불국사, 병신년 동안거 결제 봉행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종우)는 병신년 동안거 결제를 경내 설법전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주지 종우 스님, 학장 덕민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귀중한 3개월을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지는 개인의 양과 질의 차이가 있다"며 "수행자는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의 원행을 얼마나 닮아 갈 것인지 알아차려야한다. 또 대중과 더불어 살며 부처님처럼 무한한 평화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BBS 힐링 콘서트, '함께하면 행복해요'

11월 30일 부산시민회관서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은 11월 30일 오후 7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서 '제4회 마인드 힐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올해 힐링콘서트는 '함께하면 행복합니다'란 주제로 서양과 동양의 음악, 그리고 대중가요가 만나는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먼저 동양 음악에선 마하연 불교실내악단을 이끄는 성의신 해금 연주가가 나선다. 이어 J. Jazz Trio와 이정현 성악가, 울랄라 세션, 박상민 등이 신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전 좌석 무료이며 공연에 앞서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 입장이 진행된다. (051)797-5120 하성미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로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신 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2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 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 등 자매품 다양)

“언제나 지금이 기회입니다”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순창 장덕사 주지 청암 스님

“항상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으로 전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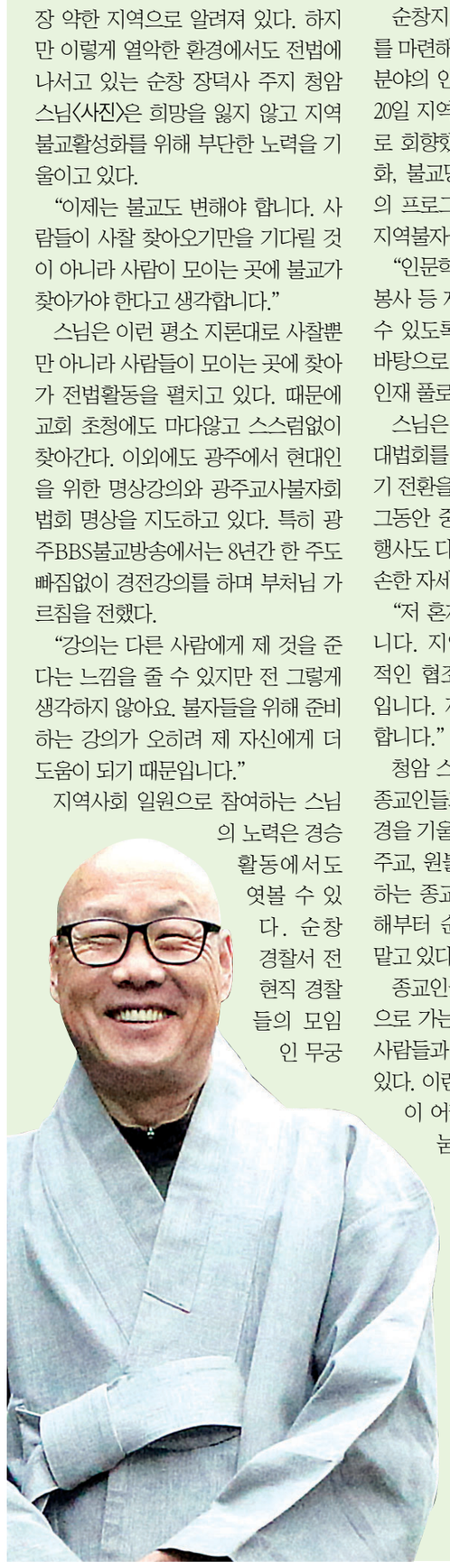
전라북도의 가장 남단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인구도 2만3천여 명에 불과한 순창은 전국에서도 불교교세가 가장 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법에 나서고 있는 순창 장덕사 주지 청암 스님〈사진〉은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불교도 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찰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 불교가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이런 평소 지론대로 사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교회 초청에도 마다않고 스스럼없이 찾아간다. 이외에도 광주에서 현대인을 위한 명상강의와 광주교사불자회 법회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광주BBS불교방송에서는 8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경전강의를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강의는 다른 사람에게 제 것을 준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자들을 위해 준비하는 강의가 오히려 제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하는 스님의 노력은 경승활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순창경찰서 전현직 경찰들의 모임인 무궁화포럼서 특강하는 것은 물론 4대악 근절 사업 등 경찰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전의 경들을 위한 전법활동에도 참여해 법회를 열고, 수시로 간식을 제공하는 등 위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순창사암연합회장에 취임한 청암 스님은 보다 적극적인 불법홍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창지역에서는 올해 인문학강좌를 마련해 16주 32시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강의를 실시하고, 11월 20일 지역 불교문화유적 탐방을 끝으로 회향했다. 부처님의 생애, 불교문화, 불교명상, 불교문화유적 답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인문학강좌는 지역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인문학강의를 수강한 이들이 염불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불자들의 단합과 불자 인재 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스님은 지난해에 순창지역 한마음대법회를 열어 불교계의 결속과 분위기 전환을 추진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그동안 중단됐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도 다시 봉행했다. 그러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저 혼자서 추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역사찰 주지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청암 스님은 지역불교 발전 외에도 종교인들과의 화합·소통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의 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종교인연합회에도 동참해 지난해부터 순창종교인연합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종교인들의 화합이 지역사회 화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고민 덕분에 순창종교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밑반찬 나눔사업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해마다 겨울철에 김장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김장김치는 3천포기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단지 그 기회가 저에게 왔고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에 나섰을 뿐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테지요.”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일간 끝없이 다진 지장보살 원력

고창 선운사, 11월 13일 지장천일기도 원만 회향



11월 13일 고창 선운사서 봉행된 지장천일기도 회향법회서 스님들이 천수바라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수행과 복지, 문화공동체의 실현을 지향하며 지난 2014년 2월 입재해 3년여간 진행된 고창 선운사 지장천일기도가 원만 회향했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11월 13일 경내 지장보궁에서 지장천일기도 회향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는 그동안 천일기도기간 100일마다 입재와 회향법회를 봉행하며, 불자들의 기도동참을 독려하고 이끌어왔다. 또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을 하고 지장재일법회를 통해 기도와 수행을 병행하는 한편, 매일 4분 정근을 지도해 총 8시간의 지장정근을 이어왔다.

이날 지장천일기도 회향법회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전 대중스님들과 말사 주지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대령과 관욕을 시작으로 신중작법, 천수바라, 거불, 화청, 축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인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산재가 봉행됐다.

천일기도를 원만 회향한 불자들은 도솔천에서 물고기를 방생하며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을 되새겼다.

경우 스님은 지난 천일동안 기도에 동참해 식지 않는 열의를 보여준 모든 불자들을 격려했다. 스님은 “일상생활에서도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실천하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회향법회 이후에는 지장십선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500여 불자들은 계사로 등단한 선운사 참당선원장 법만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 불살생·불투도·불사음·불망어·불음주 오계와 불악구·불양설·불탐욕·부진에·불사견의 오계를 더한 지장십선계를 수지했다.

법만 스님은 “지장성지 선운사에서의 수계법회를 통해 지장보살의 대원을 본받아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불자가 돼 달라”고 말했다.

천장, 지지, 인장의 삼장지장보살 성지로 알려진 선운사는 이번 지장천일기도의 원만 회향을 계기로 지장성지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사 공양에 고국 불교문화 ‘한가득’

길상사, 스리랑카 전통법회 봉행


고국 스님들에게 공양할 가사에 예를 올리고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

스리랑카 불교에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 길상사(주지 도제)는 11월 17일 대웅전에서 스리랑카 노동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리랑카 스님들에게 음식과 가사공양을 올리는 카티나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싼타시리 스님(구미 마하붓다사), 비안난다 스님(대구 황카라마), 반야기띠 스님(충남 아산), 다미다(경기 부천) 스님 등 스리랑카 스님 13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에서는 생소한 행사지만 스리랑카에서는 백중과 비슷한 중요한 불교명절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고국의 불교문화를 되새기고, 머나먼 타국에서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불교기와 함께 스리랑카무용단이 불탑과 스님들을 법회장소로 모시는 행렬의식에 이어 삼귀의, 오계, 〈자애경〉 팔리어 합송, 법문 등이 스리랑카 전통불교의식으로 진행됐다. 불교의례에 이어 스님들께 가사를 올리는 공양의식에서는 노동자들의 정성과 존경의 의미를 담은 가사에 정대의식(이마를 맞대는 의식)이 펼쳐져 타국에서 불교명절을 맞은 노동자들에게 큰 위안을 안겼다. 특히 법회에는 길상사 신도들도 동참해 스리랑카 노동자과 공양의식에 함께했다.

한편, 남방불교에서는 매년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카티나 법회를 갖는다. ‘카티나’는 음력 6월 보름~9월 보름의 여름철 우기(雨期) 안거가 끝난 뒤 대중이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며 함께 독경을 하는 법회다. 카티나 의식은 부처님이 〈사분율〉 제43장 ‘카티나 옷에 관한 건도(迦稀那衣健度)’에서 “안거를 마치고 해야 할 일이 네 가지 있으니 자자를 행해야 하고 경계(界)를 풀어야 하고, 경계를 맺어야 하고, 공덕의(功德衣)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연원을 두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백운사, 여래선원 낙성 및 영산재 봉행

익산 백운사(회주 우성)는 11월 13일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보성 봉갑사 도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여래전 삼존불 이운법회 및 영산재를 봉행했다.〈사진 아래〉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30여 년 전 백운사는 폐사에 이를 만큼 보잘것 없는 사찰이었다”며 “30년 동안 대작불사를 이룬 우성 스님의 원력을 본받아 더욱 정진하는 불자들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우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함께하려 노력했다”며 “불자들과 함께 기도와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운법회를 마친 불자들은 큰법당 앞에 마련된 특별법석에서 대규모 영산재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영천사, 산신봉안 점안법회

익산 영천사(주지 혜암)는 11월 13일 화엄선종 종정 무송 스님과 화엄선종 범패연구단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산신봉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아래〉

법회는 그동안 산신탱화만 봉안돼 있던 산신각에 산신상을 봉안하고, 국가위기 극복과 국민의 안녕, 지역민들의 화합·발전을 기원했다.

주지 혜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의 큰 위기가 닥쳐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오늘 법회를 계기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산신상을 봉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회 후에는 지장전에서 축원, 살풀이춤 등으로 인연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천도재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LOTUS(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 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연꽃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스스로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업보의 굴레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㉝ 탁탑천왕과의 일화



그림 · 최주현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좀 다시 상기해 볼까요? 도교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명을 늘리고, 신선이 되어 영원히 산다." 대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을 무분별하게 추구하고,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 매우 위험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도교의 수양법 가운데 하나인 방중술 자체야 잘못된 것이 아니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성적인 행태를 낳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요괴 도사, 즉 국왕을 홀려서 아이들을 재료로 한 영약을 만들게 한 그 도사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사계절에 맞추어 약재를 채취하고 아홉 번 뜨거운 불에 정련하여 단약을 만든다. 푸른 난새 타고 옥황상제 계신 곳에 오르고 흰 학을 타고 신선의 세상에 노닌다. 고요히 참선하라는 석가의 가르침에 따르고 적멸 속에서 음신을 키워 열반해도 냄새나는 껍데기나 남기고 속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희들 불교에 비할쏘냐! 유, 불, 도 삼교 가운데 위없는 품격을 가진 것 예로부터 오직 도교만이 홀로 높았더라.

불로장생이라는 실제적인 효과를 내세우면서 은근히 불교를 폄하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불로장생을 추구하면서 남의 생명, 그것도 죄 없는 아이들의 생명을 희생해도 된다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교리인지…. 바로 그게 문제네요. 적당히 그럴듯한 목적 내세우면서 혹세무민하여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이 바로 사이비종교의 일반적인 행태지요. 그리고 그런 사이비 종교에 국가 최고 지도가가 현혹된 것이 그 비극을 엄청난 규모로 증폭을 시켜버리는 것이구요. 그러니 소름이 끼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요.

다행히도 현장법사 일행이 때맞춰 도착하는 바람에 더는 끔찍한 사태로 번지지 않고, 삿된 것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 나라로서는 참으로 다행이고, 일행에게는 또 하나의 큰 공덕이 쌓이는 일이 되겠지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구하는 일, 그 이상의 공덕이 어디 있을까요? 서유기의 말대로 "이번 비구국에서 벌인 큰 싸움은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분명하게 가려주었네" 입니다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손오공이 요괴를 항복시켜 죽이려 하는 대목에서 태백금성이 나타나 "죽이지 마세요. 그 요괴는…." 이 정도 하면 우리 독자님들 이미 알아채셨겠지요. 애고고…. 그렇습니다. 태백금성이 기르던 사슴이었다네요. 웬만큼 선도를 닦은 바탕이 있는 요괴이다 보니 요괴도사 역할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 요괴도사가 왕을 홀리기 위해 바쳤던 미녀는 불쌍하게도 저팔계의 쇠스랑 아래 외로운 혼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흰 얼굴 가진 여우요괴 이었다고요. 그래서 손오공, 증인으로 태백금성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가 자초지종 왕에게 알리고 여우시체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지요. "이게 당신이 사랑하던 아름다운 여인이오! 같이 좀 놀아보시겠소?" 그리고 온갖 대접받고 떠나면서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색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남몰래 공덕을 쌓으며,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남는 것을 덜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시면 모든 병을 물리치고 충분히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건강에 좋다면, 정력에 좋다면 못하는 짓이 없는 오늘의 세태에 귀 기울일만한 따끔한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큰 공덕 세우고 떠난 현장법사 일행. 다음엔 어떤 요괴가 기다릴까요? 요즈음엔 요괴가 나타나도 좀 쉽게 물리치고, 그 김에 공덕도 쌓고…. 그런 느낌이 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고비는 웬만큼 넘었다 할 수 있거든요. 거의 인도에 왔거든요. 아직 부처님 계신 곳까지 가려면 좀 더 남았지만, 이미 인도 땅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수행의 경지로 말하면 거의 궁극에 다다랐다는 이야기도 되니까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요괴를 물리치는 힘도 더 생기고, 그만한 위치에 있으니 공덕을 쌓는 일도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약의 글에서 말했듯이 언제나 '도고마장(道高魔長)', 도가 높아지면 마군이도 또한 자라고, 요괴들 사이에서 현장법사 몸값도 더 오른다는 것이 문제지요. 무슨 몸값이냐구요? 정말 말 그대로 몸값이예요. 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그 몸을 잡아 먹으면 불로장생의 약효 또한 더해지니…. 하하 정말 몸값이지요. 그런데 몸값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 정말 현장법사를 열렬히 사모하여 반드시 결혼을 하고 말겠다는 요괴가 나타났네요. 정말 지극하게 현장법사 모시면서 "스님 오빠! 저랑 합환주 같이 들고 부부의 의식을 올려요!"하고 달라붙는…. 현장법사 정말 죽을 맛? 어떤 의미에서 죽을 맛? 농담 아니고 정말 곤경에 처합니다. 그 지극한 발원과 신심을 깨뜨리려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팔계라면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현장법사는 정말 곤욕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기쁨을 느끼는 곳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현장법사가 손오공의 꾀를 성사시키려, 요괴 손잡고 동산을 사이좋게 걸으면서 손오공이 둔갑하여 있는 복숭아를 요괴에게 권하기도 하고, 그래서 손오공이 요괴 뱃속에 들어가 한바탕 서커스를 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이거 고지식한 현장법사로서는 참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 일까지 한 것을 보면 현장법사가 얼마나 이 곤경을 벗어나고 싶었을까가 거꾸로 짐작되기도 하지요. 그런 요괴와의 싸움을 어렵게 이어나가는데, 우연히 이 요괴가 탁탑천왕을 아버지로 모시고 제사를 지낸 흔적을 발견하지요. "옳다! 되었다!" 잔머리 잘 돌아가는 손오공, 이것을 증거로 하여 천상세계의 탁탑천왕을 핍박합니다. 탁탑천왕 처음에는 "그런 딸 없다! 모함이다! 유언비어다! 중상모략이다!" 하면서 손오공을 핍박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발뺌만 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먼 옛날 늙은 암컷 쥐 요정을 잡아 죽이려할 때 애걸복걸하여 살려줬더니, 그 쥐 요정이 양아버지로 모시게 된 일이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이런 사연 드러나니 정말 굴욕스럽게도 손오공에게 사과하고 사정하고 거의 싹싹 빌다시피 하여 옥황상제에게 고해 바치는 것을 막고, 결국 쥐 요정 잡으러 직접 출동하게 되지요. 양아버지로 모시던 천왕이 직접 오니 쥐 요정이 어쩌겠어요. 결국 잡히어 오라비로 섬기는 탁탑천왕의 아들 나타태자에게 사정하는데, 그 때 나타태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탁탑천왕을 아비로 삼고 나를 오빠로 삼아 제사지내며) 올린 향을 받은 탓에 우리 부자(父子)가 애꿎게 봉변을 당하지 않았느냐!" 정말 무서운 말이지요. 그냥 스스로 양아버지 양오라비로 모시고 향을 올리니, 나쁜 일도 아니고 하여 그냥 넘겼겠지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탁탑천왕과 나타태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처신이라는 것은 이래서 어려운 것이지요. 자신이 꼭 고의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섬부주 대한민국은 이런 도리가 아주 무시되는 나라더군요. "부하가 한 일이라 나는 몰랐다"던가, "내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알아서 그렇게 해 준 것인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는 말을, 아주 너무 쉽게 내뱉지 않던가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삼쾌선생도 어떤 벼슬이든 다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잘못한 건 모두 "부하가 한 일이라 몰랐다"하면서 떠넘기고, 적당히 자신의 위세를 부리면 알아서 갖다 바치는 거 적당해 챙기고….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요. 하하. 이크, 정말 잘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는데요? 맹자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아첨하고 바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여름철에 밭일 하는 것보다 힘들다" 하였는데, 삼쾌선생도 그리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 잘 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입니다. 취소!

쥐 요괴를 살려준 탁탑천왕
요괴 행패에 대신 사과해
사람 처신의 어려움 표현

어쨌든 탁탑천왕 부자가 출동하여 흰쥐요괴 퇴치하고, 현장법사를 여난에서 구하고, 또 다시 구법에의 막바지 깔딱 고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스님들을 죽이는 나라에 도착했지요? 만 명 죽이기로 서원하고 996명 스님을 죽인 나라! 그래서 현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만 죽이면 만 명을 채워 죽일 수 있게 된 나라! 거기서 벌이는 손오공의 활약과 재치가 돋보이는 대목이지요? 국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머리를 다 깎아, 모든 이들을 스님머리로 만들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대목, 생각하면 좀 웃음이 납니다. 왕부터 시작하여 왕비, 조정의 대신을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까까머리…. 그 앞에 나타난 후줄근한 현장법사 일행 넷의 까까머리…. 우후후후, 크크크그, 웃음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손오공의 재기 넘치는 활약 덕분에 어려움을 쉽게 넘어가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그 쉬움과는 달리 일행이 이룩한 공덕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왕과 조정 대신들이 모두 스님들을 죽였던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불교를 탄압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그 공덕이 얼마나 클까요?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 생각나네요. "동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사방과 상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무주상보시의 공덕이 그보다 크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무주상보시의 공덕에 비하지는 못하겠지만, 불법을 멸한다는 멸법국에서 불법을 흠모하는 흠법국으로 국호까지 바꾸게 한 그 공덕!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세운 것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 공덕이 뒤를 받쳐 주니 앞으로 나가는 길이 더더욱 순탄하겠지요?

앞의 요약 글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스르륵~ 가볍게 넘어갔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 자칫 여러분도 식상할 수 있어 좀 과감하게 생략했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인도 땅에 확실하게 도착하여, 확실한 인도 땅이라는 표를 내려했던지 부처님을 가장한 요괴를 만나게 됩니다. 양젖으로 만든 향기로운 기름을 유난히 좋아하는 요괴, 그래서 부처님으로 분장하고 나타나 양젖을 갈취해가는 요괴, 그 부처님 분장에 신앙심 두터운 현장법사 걸려들어 잡혀가지요. 그래서 큰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서유기의 저자는 나태해지고 산만해진 마음을 경계합니다. 또 기쁨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생긴 원인이 바로 나태하고 산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조짐은 이미 이전에도 조금씩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앞의 사건들에서 조금 자만에 빠지고 나태해진 표가 나고 있었거든요. 맹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환 속에서 살아남고, 안락 속에서 죽어간다"고. 참으로 귀 기울일 만한 말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경계를 하고 단속을 하면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이룰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편안하고 즐거운 속에서 나태하면 자산의 퇴보는 물론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미 인도에 도착하여 안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에 요괴와 부처를 제대로 가리지 못해 위기에 처한 현장법사! 그러나 그 위기가 다시 "우환 가운데서 살아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그 우환 속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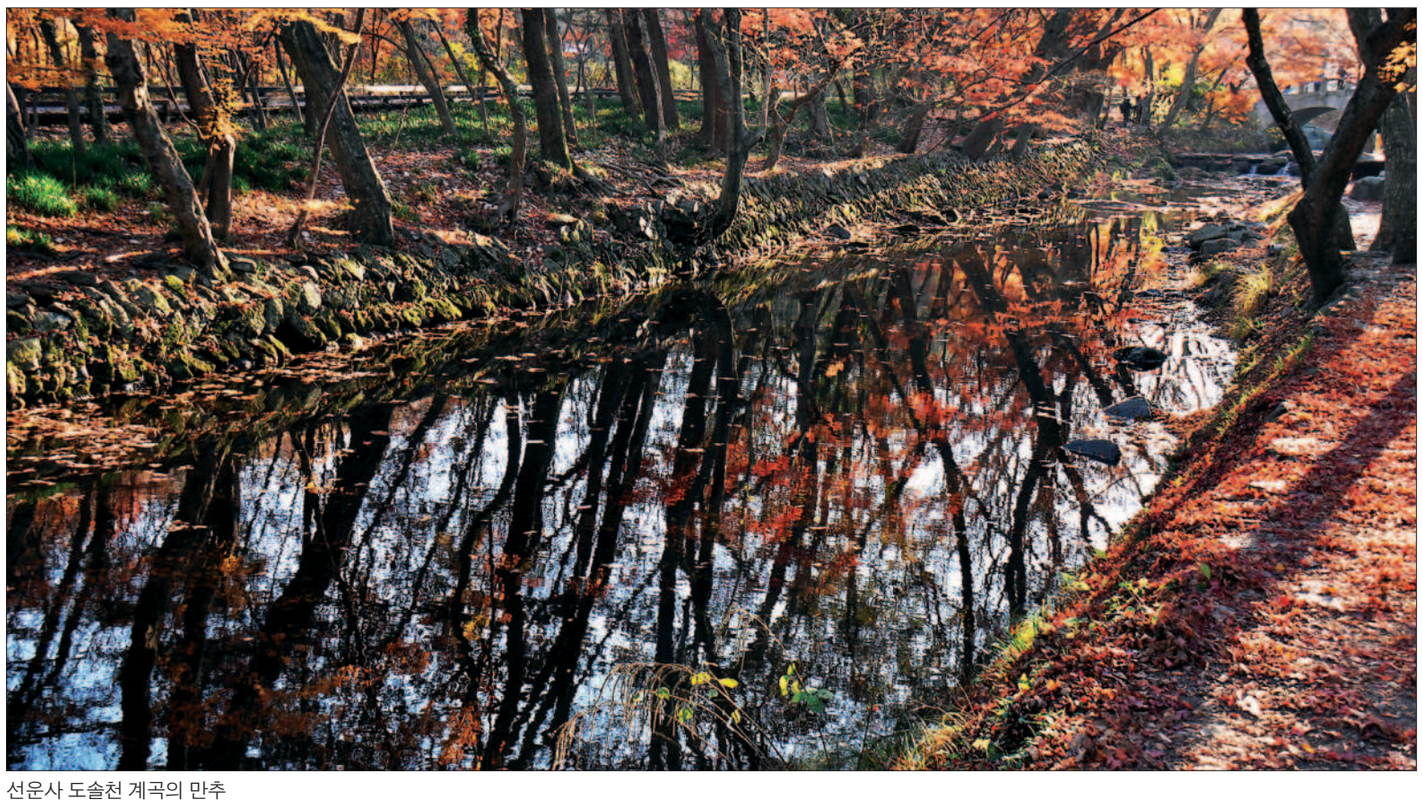




그 절집의 빛

㉔ 고창 선운사 단풍

붉고 푸른 회광반조의 빛


선운사 도솔천 계곡의 만추


선운사 애기단풍


진흥굴 앞의 천연기념물 장사송

두두물물 종의 다양성

1980년대에 '뿌리깊은 나무'에서 발행한 〈한국의 발견〉 전라북도 편에서 이 고장 사람들의 기질을 일러 "낙천적이며 평화롭고 다사로움을 드러내는" 온의 정신을 가졌다고 평했다. '온' 이라는 말은 백제의 '백(百)'이나 전주의 '전(全)'이나, 완산의 '완(完)'이나 모두 같은 뜻이라고 하면서, '온'은 완전하고, 원만하며, 순수하고, 모든 것이 어울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늘은 땅을 내고 땅은 사람을 기른다. 사람의 기질은 환경과 자연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지리가 인문의 바탕이 된다. 인문(人文)이라는 것은 삶의 무늬다. 삶의 무늬를 펼쳐보면 어느새 자연을 닮아 있다. 인문은 자연의 서정을 재해석한 무늬다. 온의 서정이 따사로이 흐르는 전라북도의 특성도 자연에 그 바탕의 원형질이 있을 것이다. 사람 기질의 바탕엔 그가 태를 묻은 곳의 대지와 하늘, 강, 바다, 숲이 깊숙이 배어 있기 마련이다. 삶도 자연의 한 부분이다. 자연의 '온'은 더불어 숲이다. 전북 고창 선운사의 숲길은 자연의 '온' 세계다. 두두물물(頭頭物物) 종의 다양성을 지닌 안정된 숲이자, 풍부한 생태공간을 자연 스스로 이룬 화엄세계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개체 수는 456건에 이른다. 그 중 절집의 노거수, 혹은 숲, 자생지 등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곳은 30 곳이다. 진도 쌍계사나 고창 문수사, 장성 백양사, 강진 백련사, 화순 개천사, 고흥 금탑사, 고창 선운사 등은 사찰의 특정나무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사찰 숲은 대체로 전라도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측면이 있다. 고창 문수사는 단풍나무 숲으로, 금탑사와 백양사, 개천사는 비자나무 숲이 울울창창하다. 특히 강진 백련사와 광양 옥룡사, 고창 선운사는 동백나무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통점을 갖는다.

한 절집에 천연기념물 세 곳

고창 선운사는 우리나라 식물의 식생분포에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 차나무 자생지로 유명하고, 난온대성 상록활엽수림, 이를테면 동백나무, 참식나무, 후박나무 등의 내륙 북방한계선에 위치하는 까닭이다. 또 사찰 한 곳에서만 세 그루의 천연기념물 노거수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진귀한 곳이기도 하다. 고창 삼인리 송악(천연기념물 제367호),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숲(제184호),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제354호) 등이 그 나무들이다. 송악과 동백나무 수림의 내륙 북방한계선이 영광과 선운산(도솔산) 선운사를 잇는 위도에 겹쳐진다.

선운사 동백나무 숲은 1483년에 산불로부터 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전한다. 500여년 수령의 동백나무 평균높이는 약 6m이고 가슴높이둘레는 30㎝ 정도다. 대웅보전 뒷쪽 산등성이에 30m 넓이의 띠 모양으로 3,000여 그루가 식수되어 있다. 절집 뒤편에 띠 모양으로 잎이 두터운 상록활엽수 동백나무 숲을 조성한 것을 보면 화재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적 목적성이 보다 분명해 보인다. 임상 내 어느 활엽수림에 비해 수분함량이 높게 나온 조사결과도 그 목적성을 뒷받침한다.

도솔천 숲길 국가지정 명승 54호

선운사 들머리에서 도솔암에 이르는 3km 도솔천 숲길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54호'로 지정되어 있다. 도솔천 주변은 다양한 활엽수들의 숲이 청정한 사찰림을 이룬다. 활엽수(濶葉樹)는 말 그대로 잎이 활짝 펼쳐져 평평하고 넓은 잎을 지닌 나무다. 단풍나무, 갈참나무, 느티나무, 서어나무, 팽나무 등 낙엽활엽수들의 식생이 왕성하다. 활엽수들의 전성기다.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국가지정 명승은 109 곳이다. 그 중 사찰 이름이 들어간 명승지는 12 곳이다. 해인사, 선운사, 대흥사, 법주사, 백양사, 송광사/선암사, 화엄사, 미황사, 낙산사, 수종사, 불영사, 청평사 등이다. 그런데 선운사와 불영사의 경우는 사찰의 계곡 일원을 명승지로 지정하고 있다. 계곡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반영한다. 선운사 가을단풍은 도솔천 계곡이 있어 본색이 여여하다. 만추의 선운사 계곡은 또 하나의 설법전이 된다. 숲의 총림이다. 만유를 반영한 개천은 마음의 거울이다. 온갖 색이 거울에 비추인다.

만추의 도솔천은 여울이 아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무여열반 도량

나뭇잎에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 원천을 생산하는 엽록체가 있다. 이 세상에서 태양에너지를 끌어 모아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유일하게 식물의 엽록체뿐이다. 엽록체가 광합성을 통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생산한다. 엽록체에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 나뭇잎은 녹색을 띈다. 그런데 잎에는 원래 엽록소, 안토시아닌, 카로티노이드 등의 색소가 함께 들어 있다. 엽록소는 말 그대로 잎에 있는 녹색 색소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스스로 나뭇잎으로 보내는 물과 영양분을 차단한다. 잎으로 가는 모든 회로를 폐쇄회로로 만든다. 광합성 작용이 급격히 쇠퇴하고, 엽록소는 분해된다. 모든 생명의 젖줄이었던 초록의 에너지가 사라진다. 초록색이 사라지면서 엽록소에 가려 보이지 않던 다른 색의 색소들이 시나브로 드러난다. 안토시아닌의 색소는 붉은 색으로, 카로티노이드 색소는 노란 색으로, 그 자연현상이 단풍이다. 단풍은 물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감추어져 있던 색소가 드러나는 것이다. 더 엄밀히 말하면 빛의 색스펙트럼 중에서 저마다의 색소가 해당 색만을 반사시킬 뿐이다. 그러면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엽록소 이외의 색소들은 단지 색만 드러내는 작용을 하는 것일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붉은 색소는 자신의 나무 아래 떨어져 땅 속으로 스며들어 다른 수종의 생장을 막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이롭고 놀라운 자연의 지혜다. 스티븐 해로드 뷔흐너가 쓴 책 제목이 〈식물은 놀라운 화학자〉다. 식물은 정교한 화학적 메커니즘이자 화학공장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단풍도 그 화학적 과정의 산물이다. 단지 눈부신 아름다움을 구사한 예술적 페인팅으로 미래 생명력을 담지한 생명과학의 빛일 따름이다.

제행무상 일깨우는 도솔천 무정설법

선운사 도솔천 숲길은 도솔천의 여울과 함께 흐른다. 봄이면 벚꽃과 연두빛의 향연이고, 여름철은 초록의 신록, 초가을엔 꽃무릇, 만추의 시간엔 만산홍엽, 겨울이면 설국의 여울이다. 도솔천은 연두-초록-빨강, 노랑 등의 형형색색-하양(white)으로 순환한다. 그 순환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우주적 주기와 리듬에 상응하는 색의 연속 스펙트럼이다. 도솔천 여울이 삼라만상이 변화하는 시간의 강으로 흐른다. 도솔천은 시간과 공간이 투영된 무시무종의 뫼비우스 띠다. 스스로 그러함으로 순환하고 반복하며 연속한다. 여래의 불성이 충만한 세계다. 시간은 빛이고, 빛은 색으로 투영한다. 새벽, 아침, 오후, 저녁, 밤의 빛이 다르다. 시간은 색의 층위이고, 다른 형식과 다른 형태를 촉진한다. 제행무상이고 제법무아이다. 교외별전으로 일깨우는 도솔천의 무정설법이다. 색으로 일깨우는 붉고 푸르른 단청의 강이고, 물빛 두루마리 경전이다.

봄꽃의 개화는 하루에 20km 속도로 북상하고, 가을단풍도 하루에 20km 속력으로 남하한다. 자연의 속력과 질서엔 어김없고 삼엄하다. 만추의 시간엔 그 여울에 나무가 간직한 내밀한 색이 여과없이 반영된다. 순환과 재생의 극적인 찰라다. 빛을 돌이켜 거꾸로 비추는 회광반조(回光返照)의 모멘트다. 낙화의 꽃잎과 비움의 낙엽은 수직의 파문을 남기는 열반적정의 고요한 아름다움이다. 만추의 선운사 도솔천(川)은 내원궁의 도솔천(天)이다. 개여울의 여울이 아니라,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무여열반, 적멸의 도량이다. 여울에 색즉시공을 일깨우는 낙엽이 우화의 꽃비다. 자등명 법등명의 보현행과 무엇이 다른가. 부처님도 보리수나무 아래서 무상정등각을 얻으셨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고 만해스님은 말씀하셨다. 저 나무 한 그루도, 저 숲도 님이고 선지식이 아닌가.

선운사 도솔천의 참나무 아래 앉아 개여울을 본다. 무수한 잎들이 개천을 덮었다. 소동파는 계곡의 물소리가 팔만사천법문의 장광설이고, 산빛 그대로는 청정법신이라 하였다. 무정설법을 눈으로 듣는다. 낙엽 하나가 일승원음의 법음을 지녔다. 모든 질량과 에너지는 보존된다. 일체의 존재와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일 따름이다. 서로 다른 형태로, 서로 다른 인연으로 침잠하는 묵시의 시간이다. 만추의 절집 숲에 앉았는데 '기른 것은 다 님이다'는 만해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파문을 남기는 것이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12절 258㎜×265㎜

100부 이상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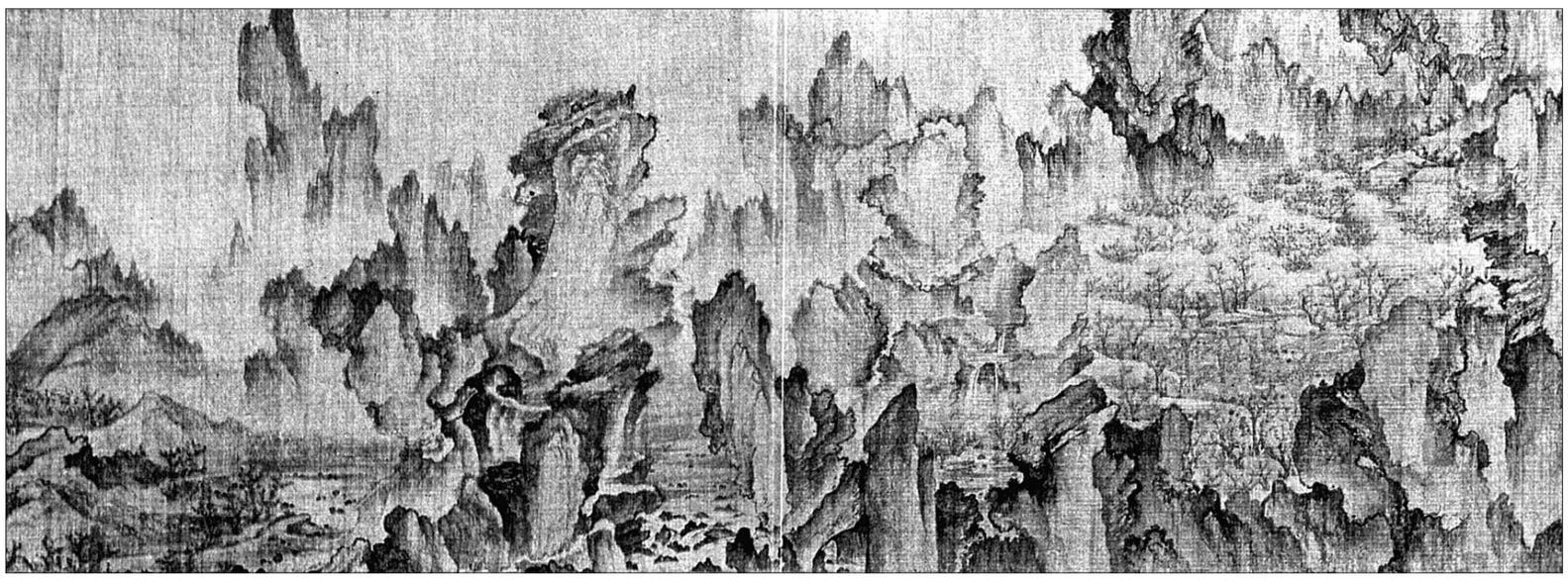
3천부 이상 @8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신미·수미대사와 훈민정음 창제 관여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㉞ 희현당 신숙주



안견의 〈몽유도원도〉(1447년, 견본담채, 38.6x106.2cm, 일본 奈良 天理大中央圖書館 소장). 조선 전기 문재로 자자했던 신숙주는 〈몽유도원도〉에 찬문(贊文)을 올릴 만큼 시서(詩書)에 능했다.

신숙주(申叔舟, 1417~1488)는 안견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에 찬문(贊文)을 올릴 만큼 시서(詩書)에 능했던 인물이다. 특히 송설체(松雪體)를 잘 썼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원대 조맹부(趙孟頫, 1254~1322)가 완성한 서체이다. 왕희지의 서체를 법 삼아 유려하고 굳센 서체를 만들었던 조맹부는 고려 후기 이제현(李齊賢, 1287~1367)과 깊이 교유했다. 그러기에 조맹부의 아내 관도승이 죽었을 때에 이제현이 멀리 호주까지 문상을 갔던 것이니 그들의 사귐은 신분과 나이, 학식과 국경을 초월했던 셈이다. 따라서 고려에서 송설체가 유행한 것은 이제현의 영향이 컸으니 신숙주가 송설체에 능한 것은 조선 전기 문화계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의 자는 범옹(泛翁)이며, 호는 희현당(希賢堂), 보한재(保閑齋)이다.

그의 환로(宦路)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더라도 화려한 전력을 거쳤다. 1438년 사마양시에 합격한 후 이듬해 친시문과에 급제하여 전농시직장(典農寺直長)이란 벼슬을 시작으로, 집현전부수찬이 된 것은 1441년의 일이다. 그는 능력이나 경륜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겼지만 역사의 평가는 영달을 선택한 변절자로 폄하한다. 절개를 저버린 사람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이처럼 가혹한 것이다.

하지만 젊은 날 서장관으로 일본에 사신을 갔을 때에 그의 문명(文名)은 일본에서도 자자하였다. 1450년 중국 사신 예겸(倪謙)과 사마순(司馬恂)도 그의 뛰어난 문재에 감동했다는 일화는 그가 뛰어난 재주를 가졌던 인재였음을 드러낸다. 동시대의 인물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은 그와 함께 국가의 우수한 인재로서 발군의 실력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궤도가 달랐다. 절세의 충신 성삼문과 시류를 따른 신숙주의 인생은 시대 상황을 살아야했던 사람의 선택인가 아니면 시절의 인연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의 명수(命數) 때문인가. 결과적으로 신숙주가 동갑이었던 수양대군(首陽大君, 1417~1468)을 만난 인연은 그의 운명을 바꾼 셈이다. 세조가 왕권을 찬탈한 후, 그는 한명회와 함께 화려한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에 대한 세조의 신임은 당 태종 때의 명신 위징(魏徵, 580~643)에 견줄 정도였다고 하니 총애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그는 훈민정음 창제에도 깊이 관여했으니 이는 출중한 언어 이해력 때문이었다. 이 일로 훈민정음 창제에 큰 공을 세운 수미대사와도 깊이 교유하였던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선종판사 수미를 전송하며 스님이 도갑사로 돌아갔다(送禪宗判事壽眉 師還道岬)〉에서 드러나는데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금성의 저녁 모습, 밥하는 연기도 끊어지고(錦城暮色炊煙斷)
도갑사의 가을 빛, 감잎마저 드물구나(道岬秋光* 葉稀)
원숭이와 학 같은 옛 벗, 다시 번뇌하지마라(猿鶴舊遊休更惱)
이제 늙은 선승, 이미 욕심이 없으리니(如今禪老已忘機)

이것은 도갑사로 돌아가는 신미대사를 위해 쓴 일종의 전별시이다. 당시 신미대사는 선종판사라는 승과 벼슬에 있었으며 도갑사로 돌아가는 신미대사와의 이별을 담담히 그렸다. 금성은 지금의 나주지방이고 도갑사는 월출산에 위치한 절이다. 특히 이 시에서 "원숭이와 학(猿鶴)"의 고사가 눈에 띈다. 이는 〈태평어람(太平御覽)〉에도 소개되었는데 바로 "주나라 목공이 남쪽을 정벌할 때에 전군이 전사하여 군자는 원숭이와 학이 되고 소인은 벌레와 물여우가 되었다(周穆公南征 一軍盡化 君子爲猿爲鶴 小人爲蟲爲沙)"고 한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미대사는 욕심을 잊은(忘機) 수행승이기 때문이기에 떠나보내도 근심할 것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편 그가 교유했던 승려로는 일암과 수미대사, 학전(學專) 승려, 교종판사 해초절암(敎宗判事 海超絶菴), 그리고 일암의 제자 등이다. 그의 문집 〈보한재집〉에는 이들과 화운한 수편의 시가 남아 있다. 하지만 그는 조선 전기 유학자들과는 다른 교유의 특성을 보인다. 바로 그가 교유했던 승려들로는 일암이나 신미대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그는 일암과의 첫 인연을 〈일암송당의 시권에 쓰다(一菴松堂卷記)〉에 상세히 수록해 두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암 송당 전 승려는 승려 중에 우수한 사람이다. 내가 정통 임술(1442) 겨울에 와성 이백옥, 평양 박인수, 단계 하중장, 참령 성군보, 제군들과 임금의 명으로 복정산의 진관사에서 독서했을 때에 전상인 또한 먼저 주석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함께 얼굴을 익혔는데 (전 승려의) 풍모는 맑고 여위였으며 마음은 훌륭하고도 밝았다. 우리 유가서(儒家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책을 널리 읽었고 더욱이 시율에 달통하였다. 마침내 침소를 맡긴 어느 날 저녁에 시권을 내서 시를 구하였으니 그가 바로 천봉에 사는 (운명을 타고난) 일암 송당이다. 제군들은 이미 전 승려를 중히 여겨 모두 시를 지었고 상인은 나에게 기록하기를 부탁했지만 나는 여유가 없다고 거듭 사양하였다.(一菴松堂專上人。釋之秀者也。僕於正統壬戌之冬。與甄城李伯玉, 平陽朴仁 ㅇ丹溪河仲章, 昌寧成謹甫諸君。受命讀書于覆鼎山之津寬寺。上人亦先住錫。始與識面。道骨淸癯。精神秀朗。於吾儒書。亦頗涉獵。而尤通於詩律。遂司寢處。一夕。出一卷求詩。 ㅈ千峯所命一菴松堂也。諸君旣重上人。皆有詩。上人屬僕記。僕敦讓未遑)

그가 일암 승려를 만난 것은 1442년 겨울, 진관사에서다. 바로 독서 휴가를 받아 진관사에 머무른 듯하다. 당시 진관사에는 신숙주뿐 아니라 이백옥, 박인수, 하중장, 성군보 등이 있었다. 당시 그가 본 일암의 첫인상은 풍모는 맑고 여위였으며 마음은 훌륭하고도 밝았다. 따라서 일암은 선승의 풍모를 갖춘 수행자였고 유가서에도 해박한 학승의 풍채를 지닌 승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암과의 첫 만남 이후, 신숙주는 일본으로 사신을 떠났으며 외로운 타향에서 일암과 나눴던 청론(淸論)을 늘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다시 상봉하게 된 내력은 이렇게 이어진다.

십여 개월을 지나고 서울로 돌아오니 상인은 이미 개성의 흥교사로 옮겼다.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상인이 새벽에 형문을 두드리니 그와 더불어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상인이 말하기를 그대와 이별한 지 3일이 지나 괄목상대하였다. 하물며 그대는 이미 나의 시권에 시를 썼으니 말할 것도 없이 (시축에 글을) 쓸 만하다. 내가 바야흐로 오래 이별하였다가 새로 만나니 기뻐서 거듭 사양하지 못한 채 그에게 말하기를 일암송당 승려이니 어찌 쉽게 말하랴. 그러나 짐짓 들으니 하늘은 변함없이 사시를 운행하여 만물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사람은 한결같음으로써 만 가지 다름에 응한다하니 지성이어야 그침이 없는 것이다. 지극하구나. 한결같음의 덕이여. 증자도 다만 진적력구(眞積力久:참을 알고 실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의 여유를 들으셨으니 도리어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들으니 고인이 소나무를 논함에 하늘에서 수명을 받아 겨울이나 여름에도 푸르다하니 대저 소나무는 여름에도 번성하지 않고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사계절이 지나도 한결같으니 그 또한 한결같음을 얻은 것이로다. 사람도 혹은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유자와 승려도 일(一)의 뜻이 어찌 다르랴. 상인이 그 진실로 암자 하나, 집에는 소나무뿐임을 이른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끝까지 소나무에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 일(一)은 이미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법문의 불이의 설이다.(經十餘月得還于京。則上人已移錫開城之興敎寺。不數日。上人晨扣荊門。與之從容竟日。上人曰。士別三日。刮目相待。況子旣詩吾卷。可無說以爲記乎。余方以久別新遇爲喜。不復辭。謂曰。上人一菴松堂。豈可易以言哉。然竊聞天得一以運四時。化生萬物。人得一以應萬殊。至誠不息。至矣哉。一之爲德也。曾子亦僅聞於眞積力久之餘。顧僕何人。而可得言哉。又聞古人論松。受命于天。在冬夏靑靑。夫松不爲夏榮。不爲冬枯。貫四時而一節。其亦物之得一者歟。在人亦或有不能及者焉。儒之與釋。一之義何嘗異也。上人其毋苟爲菴一堂松而已爾。其毋終爲松所 A也。一旣僕所不得言。而法門不二之說)

송설체(松雪體) 능한 문재
日·中 사신도 문장력 감탄
세간 '변절자' 폄하 받지만
허망한 功名의 이치 깨달아

그는 일암이 송당이란 당호의 의미를 '소나무처럼 언제나 한결같음을 얻은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시축의 말미에 서문을 쓴 연유도 "유자와 승려도 일(一)의 뜻이 어찌 다르랴. 상인이 그 진실로 암자 하나, 집에는 소나무뿐임을 이른 것은 아닐 것이다"는 것에 있었다. 이 당시만하여도 그는 충절을 숭상하는 선비였던 것이다. 하지만 세조를 만나 그의 정치 이념을 따랐기에 상대적으로 부귀를 보장 받을 수 있었지만 악평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의 다른 시 〈고산사의 시운을 차운하여(次高山寺詩韻)〉에서는 부생의 득실은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을 노래한 적도 있었다.

나는 지금 불가의 승려가 되고 싶으니(我今欲爲佛和南)
반백 공명은 한 끼의 달콤함이라(半百功名一餉)
별안간 오는 높은 벼슬, 평소의 바람이 아니었으니(軒冕 倏非素願)
부생의 득실이란 말로 허용하기 어렵네(浮生得失不容談)

고산사의 학추 승려에게 써준 시이다. 이 시를 쓰게 된 내력은 부주(附注)에서 "아들 형과 손자 종흡이 성남 고산사에서 독서를 하였다. 하루는 시축 하나를 가져와 말하기를 하동의 정 상공이 다시 고산사에서 노닐 적에 모두 시를 지었고 또 화답한 시도 있었다. 이 절의 승려 학추가 시축을 만들어 화답을 구했다. 하동은 나의 은부(가르침을 받은 스승)이다. 시축을 보니 느낌이 있어 네 절구를 지어 주고 돌려보냈다(子洞。孫從洽 讀書城南高山寺 一日持一軸來謁曰。河東鄭相公再遊於寺。皆有詩。亦有和者。寺僧學追爲之軸乞和。河東。我恩府也 見軸有感。爲和四絶還之)"고 밝혔다.

그도 한때 하동에 위치한 고산사에서 독서한 듯하다. 그러기에 "하동은 나의 은부"라고 했을 것이다. 그가 "평소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은 자신의 바람이 아니었다"고 한 것은 바로 "반백 공명은 한 끼의 달콤함"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치를 안 그였는데도 삶의 정도가 달랐던 연유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고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요즘 우리의 현실은 "한 마리 쥐가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말을 연상케 한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더라도 한 끼의 달콤함에 지나지 않는 권력의 힘은 바로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선인들이 말했던가.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의리나 절제의 미덕을 들어 본지도 오래 되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다시 생각하고 점검해야할 시점이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산문 밖의 禪 박원자 작가 (60 · 승진행)

수행자 삶 기록한 산문 밖 '행자'



"20여 년 전이다. 10년 넘게 한 달에 한 번 스님들을 만나 뜨겁게 첫마음을 냈던 초발심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운이던 때를 꼽으라면 단연 이 시간들이라고 말하겠다."

어느 작가가 최근 자신이 출간한 책의 머리에 적은 소회다. 그렇게 작가가 만난 스님들의 초발심 이야기는 모두 작가의 책 속에 아름다운 글자가 되어있다. 올해 여름 〈스님의 첫마음〉을 낸 작가 박원자가 그 글자의 주인이다. 25년 째 그 한 가지 원력에만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는 작가 박원자. 이제 그녀의 이야기도 아름다운 글자가 되기에 충분한 듯하다.

"연재한 12년은 곧 나의 행자시절"

앞서 말한 책 〈스님의 첫마음〉은 법전 · 혜자 · 무여 · 혜거 · 월암 등 한국불교의 역사가 될 노장들의 행자시절을 소개한 책이다. 1900년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 동안 한국불교 수행사와 생활상, 스승에 대한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박 작가가 1996년부터 12년 동안 월간 〈해인〉에 연재한 '나의 행자시절'을 묶은 것이다. 2008년에 〈나의 행자시절 1 · 2 · 3〉으로 출간된 바 있다. 이번 책은 법전 스님을 비롯해 불필 · 명성 · 철산 등 새로운 스님을 모시고, 전작을 다듬어 낸 개정증보판 1권이다. '나의 행자시절'은 2008년 처음 책으로 묶어져 나왔을 때도 그랬고, 연재 당시 많은 독자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한 제목으로 12년을 살았다는 것이 그 사랑의 정표다. 그렇게 '나의 행자시절'은 지금의 작가 박원자를 있게 했다. 그 인연은 1991년부터 이듬해까지, 역시 월간 〈해인〉에서 연재했던 '호계삼소'를 박 작가가 쓰면서 시작됐다. 스님의 라이프스토리를 소개하는 연재였다. 그리고 몇 년 후, 새로운 연재 '나의 행자시절'의 적임자를 찾고 있던 월간 〈해인〉의 편집장 스님이 '박원자'를 떠올린 것이다.

행자시절이란 출가자가 처음 맞이하는 뜨겁고 간절한 시절이다. 작가는 그 뜨겁고 간절한 시절의 이야기를 가뭄에 물을 받듯 받아와 식지 않는 글자로 옮겨 적었다. 그렇게 뜨거운 시절이 뜨거운 글자로 오롯이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작가 박원자 역시 수없이 출가하며 행자 아닌 행자로 살았기 때문이다. '나의 행자시절' 속 글들의 주어가 '나'인 이유는 그 때문이다. 12년을 연재해온 '나의 행자시절'은 작가 박원자의 '나의 행자시절'이기도 한 것이다. 그녀는 어떻게 그 고단한 시절의 이야기를 지치지 않고 받아 적을 수 있었던 것일까. 간단한 불연은 아닌 듯하다. 박 작가는 어떻게 불문 앞에 서게 된 것일까. 그녀의 '나의 행자시절'이 궁금해진다.

불교, 아마도 숙연

"불교, 그건 제게 아마도 숙연이었던 것 같아요."

박 작가가 대학교 3학년 때였다. 학교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포스터가 숙연의 봉인을 풀기 시작했다. 포스터는 한국불교연구원의 '불교교리 기초강좌'의 수강생 모집 포스터였다. 중국문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박 작가는 졸업논문의 주제를 '위진남북조시대의 중국문학에 나타난 불교사상'이라고 정했다. 하지만 당시 박 작가는 불교의 '불'자도 모르던 시절이었다. 난센스였다.

불교와 첫 끈을 묶다

대학 3년때 '기초교리 강좌' 수강
30대에 스님들 취재하며 초발심
12년간 '행자시절' 〈해인〉에 연재
2008년 단행본, 2016년 증보판 출간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문학에 종교와 철학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중국문학' 다음엔 왠지 '불교'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논문의 주제로 정했는데 막상 정하고 나니 막막해졌죠."

그 막막함을 풀어준 것이 바로 그 포스터였다. 박 작가는 포스터를 보게 됐고, 그 길로 한국불교연구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불교에 빠진다. 그것도 푹~ 빠진다.

"스물 셋 살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푹 빠져서 들었던 강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처음 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로운 '세계'였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는 마치 오래 전부터 기다려왔던 것처럼 그녀의 빈 곳을 채워주며 그녀의 것이 됐다. 박 작가는 불교의 세계를 알게 된 순간 안경을 하나 쓴 것 같았다고 했다. 그 동안 잘 보이지 않던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에게 불교는 새로운 '안경'이었던 것이다. 꽃이 부럽지 않은 스물 셋, 그녀는 그렇게 불교를 만났다.

'나'를 찾아서 … '초발심' 알게 돼

"중학교 때부터 신문 기자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박 작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 대신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고 자식을 키우며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박 작가는 삶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게 된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 의문은 '나'에서 시작됐다. 나는 누구인가. 삶은 무엇인가. 참으로 오래된, 깨지지 않는 그 질문에 박 작가도 그냥 지나쳐가지 못하고 걸린 것이다. 스물세 살에 만난 불교 때문일까. 뒤늦은 의문은 간단하지 않았다. 삼십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의문은 더욱 깊어졌고 답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았다. 그때 박 작가가 만난 것이 '나의 행자시절'이다.

"이십 대 초반에 불교에 입문했지만 제가 초발심을 낸 것은 스님들을 취재하기 시작한 삼십 대부터였어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던 그때 스님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뜨거운 구도와 인생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며 나의 고뇌도 엷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랬다. 그때가 바로 박 작가가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운이었던 때를 꼽으라면 단연 이 시간들이라고 말하겠다"고 했던, 스님들의 초발심 이야기를 들으러 다니던 그때다. 스스로 던진 의문들로 꽁꽁 묶여있을 때였다. 노장들이 들려주는 '나의 행자시절' 속의 일 구 일 구는 스물세 살 때 만났던 불교처럼 그녀의 결박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박 작가는 스님들이 온 몸으로 살아낸 그 절실한 시간의 기록들을 더욱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출가라는 특별한 길에서 첫마음을 어떻게 냈고 지켜갔는지 들으러 간 저에게 스님들은 깊고 뜨거운 인생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스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내가 그 시절,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고, 엄격하고 바른 스승 앞에 있었고, 때로는 치열하고 지난한 구도의 현장에 몸담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을 취재하고 돌아와 글을 쓸 때면 어느덧 내가 스님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 박 작가는 한 사람의 스님을 만날 때

작가 박원자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중국문학을 전공했다. 대학시절 불교에 입문했고, 동국대에서 역경위원을 역임했다. 1991~1992년 월간 〈해인〉에 '호계삼소'를 연재했고, 1996년부터 12년 동안 同誌에 '나의 행자시절'을 연재했다. 2008년 〈나의 행자시절 1 • 2 • 3〉, 2016년 〈스님의 첫마음〉을 출간했다. 그 외 〈혜암대종사 법어집/1995〉 • 〈이 땅의 유마 대원 장경호 거사/2005〉 • 〈길 찾아 길 떠나라/2007〉 • 〈누구 없는가/2009〉 • 〈인생을 낭비한 죄/2011〉 • 〈어떻게 살 것인가/2016〉 등의 저서가 있으며, '불교 입문에서 성불까지'를 지향하는 인터넷 도량 금강카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 "첫마음 낼 때가 깨달음 자리"

마다 출가했다. 그렇게 그녀는 '첫마음'의 아름다움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첫마음을 낼 때가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 역시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의 신행, 나의 수행 … 절(拜)

출가 수행자의 첫마음에서 오래된 의문을 풀기 시작한 박 작가의 수행은 좀 더 구체적인 길을 찾는다.

"뭔가 이제 알았다고 생각하고 뒤돌아서면 어느 새 또 다른 의문이 다가왔어요. 그렇게 또 다른 의문의 시작은 '주변'과 '타인'이었어요. 언제부턴가 모든 것들이 제가 살아가는 데 걸림돌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됐어요. 부모와 남편, 자식까지, 모든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 작가는 이제야 조금 뭔가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앎'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고(苦)의 바다에 있었다. 그 고의 시작은 '미움'이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모두 미웠다. 이 또한 답이 없는 숙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작가에게 한 소식이 들려온다. 병마를 극복한 후 참회와 하심만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알았고 진정한 지혜와 자비 그리고 용기는 참회에서 나온다는 어느 스님의 고백이었다. '참회'와 '하심'이었다. 모르는 말도 아니었다. 늘 듣고 쓰던 말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수행이란 그런 것이었다. 이미 자기 안에 다 있는 것을 찾아나서는 것이었다. 부처님의 법이 그런 것이었다.

"참회와 하심, 참 쉬우면서 어려운 일이죠. 두 법어가 나를 때렸지만 어떻게 매를 맞아야 할지 몰랐어요."

박 작가는 어느 날, 문득 절이 하고 싶어져 가까운 절을 찾았다. 그리고 삼천배를 했다. 처음 해보는 삼천배였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그 날은 성도재일이었다. 그녀가 얻은 답은 '절(拜)'이었다.

"절을 하면 마음이 정화돼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내 고요해지죠.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져요. 그리고 밝아지면 보여요. 잘못됐던 '나'가 보여요. 보이니까 참회하게 돼요. 그리고 참회는 하심에서 출발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라는 생각이 들고나니 모든 게 다 편안해졌어요."

박 작가는 참회를 통해 달라지는 자신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동안 미움의 대상이었던 주변을 찾아 직접 참회했다. 남편에게 참회하고 어머니, 친구 등 모두에게 참회했다. 박 작가는 그 후로 매일 〈금강경〉을 일독하고, 삼백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천팔십배와 삼천배도 기도 때마다 수시로 한다. 그녀의 두 딸도 틈만 나면 백팔배를 한다. 이제 남편은 그녀가 운영자로 있는 금강카페 '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에서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다. 금강카페는 청화스님의 염불선 수행을 이어 정진하는 모임이다. 그렇게 한 사람이 찾은 길 위엔 여러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구도(求道)'인 듯하다.



2006년 11월 아미타불 염불선 천일기도 입재에서 해인사 원당암 법전 스님과 함께 찍은 사진.

"출가는 다음 생, 현 삶도 중요"

수행자의 첫마음 이야기 듣고
출가 수행의 아름다움 알게 돼
25년간 130여명 수행자 만나

주변과의 갈등 '참회'로 풀어

매일 〈금강경〉 1독, 삼백배
회향작 〈부처님 일대기〉 구상



2015년 12월 운문사 천일염불선 입재식에서 보리방편문을 합독하는 모습.



2016년 2월 8회에 걸친 대승기신론 강좌를 수강하고 나서 수강생들과 함께 찍은 모습.



박원자 작가의 저작들.

회향작은 '부처님 일대기'

"출가의 핵심은 수행이고, 수행의 핵심은 변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수행이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계속 전하고 싶어요."

박 작가의 원력은 많은 수행자의 삶을 대중에게 전하는 것이다. 수행자 한 사람의 빛나는 삶이 여러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은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다. 그래서일까. 박 작가 앞에 앉은 스님들은 모두 기꺼이 입을 연다. 말을 아끼는 수행자들이지만 그녀 앞에선 아끼지 않는다. 박 작가가 2009년에 출간한 법전 스님의 일대기 〈누구 없는가 / 김영사〉를 준비할 때였다. 법전 스님은 말씀이 없기로 유명했다. 많은 대중이 걱정했다. "책 한 권이 과연 나올까." 책은 나왔다. 그 무거운 입에서 책 한 권이 나온 것이다. 그 무거운 입을 열었던 비결은 그녀가 온몸으로 그 이야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그 뜨거운 이야기들을 불러낸 것이다. 박 작가는 회향작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생각하고 있다.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다.

"'나의 행자시절'을 썼을 때처럼 부처님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부처님 앞에 앉아 부처님의 첫마음을 내던 그 순간부터 첫마음을 이룬 그 순간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었던 부처님의 시절을 받아 적고 싶어요."

그렇다. 박원자의 원력이라면 기다릴 일이다. 기다려지는 글이다.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이 박원자의 글자로 옮겨진다면 많은 불제자들이 또 다른 모습의 길을 걸어볼 수 있을 것이다. 말 없는 스님의 입을 열었던 박 작가는 이제 아득해진 부처님의 입을 열어보려 한다. 참으로 신나는 원력이다. 기다려진다.

수행자의 삶 간절히 들여다 보다

"밖에 있기로 했어요." "차라리 출가를 하지."

누군가 박 작가에 말했다. 맞는 말이기도 했다. 이름만 없지 몸과 마음이 모두 산문에 있었던 박원자였다. 들을 만한 말이었다. 박 작가도 한참 출가 수행자의 아름다운 삶에 마음이 가 있을 때, 출가에 대한 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끝내 출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130명이 넘는 스님의 삶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여다 본 영원한 행자다.

"출가라는 귀한 길은 몇 생을 걸친 서원으로 이뤄진다고 했기에, 금생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세간에서 스님들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기록해 남기는 것 또한 중요한 소임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 있기로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밖'에 있기로 했다. 밖에서 열심히 안쪽을 보기로 했다. 그녀는 오늘도 산문으로 향한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니까야서 길을 묻다 지혜란 무엇인가 ③

대상세계 규칙성을 파악하라

'대상세계'(境)를 제대로 보고 아는 데는 여러 가지 능력이 요구된다. 어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상세계란 움직이는 것이어서, '여섯의 감각기관'(六根)으로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양상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고 있는 대상을 시각으로 포착할 때에 주어지는 자료는 '동영상'이다. 그러나 실제가 동영상의 형태라고 해도 '대상과 접촉'(觸)하여 '받아들일'(受) 때에는 1차적으로는 그 영상들을 일련의 정지된 화면으로 붙잡는다. 곧 '시각의 대상'(色)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시각 자료의 특정 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출 것인데, 시각을 어느 지점에 두느냐에 따라 생겨나는 느낌과 인식과 감정의 굴곡은 다양한 층을 이룬다. 하나의 동영상에서 저마다 선택한 정지화면들의 집합, 이로써 저마다 '시각으로 구성한 세계'를 구성한다. 이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고, 동일한 사람이라도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니까야와 아함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기'(如實知見)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이러한 전제가 타당하다면, 지혜의 성취는 대상을 거시적 관점으로 볼 것을 먼저 요구한다. 전체 모습에 대한 안목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산의 정상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본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곳의 모습은 그저 포장된 길과 건물의 사이에 지나지 않지만, 정상에 서서 전후좌우와 상하를 모두 살펴보는 순간 산줄기와 강줄기가 서로 이어지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음이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전체라는 것도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지된 화면들의 집합체로서 잠깐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균형 잡힌 시선을 다시 요구한다.

미시적 시선의 필요성 또한 놓칠 수 없다. '내려 보기'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특징들은 그 속살의 드러냄을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대상이나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다가오는 사건 및 상황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본연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더 어렵다. 나아가 작다고 여긴 미세한 특징들 속에는 언제나 크고 작음의 차이가 다시 존재하기 때문에 미시적인 분석력을 정밀하게 동원한다고 해도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거시와 미시적 관점을 아무리 종횡무진 발휘하더라도 '상대적, 부분적, 제한적, 조건적'이라는 그물에 걸리게 마련이다. 〈디가-니까야〉의 첫 번째 경전에서 '견해의 그물'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숫타니파타'서 수행자의 길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고 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그림 · 나은영

그렇다면 과연 부처는 지혜를 얻기 위한 길로 무엇을 제시했던가?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여기로 모을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관심은 '움직이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움직이고 있는 대상들을 정지된 화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움직이고 있는 실제의 대상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의 파악'이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마치 하나의 외국어 문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문법'이라는 길잡이가 도움을 주듯이,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현실에 내재하는 '규칙성의 존재'를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상세계를 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크든 작든 모두 '상대적, 부분적, 제한적, 조건적'이라는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처가 지혜로써 파악하여 제시한 '교학, 교리'라는 설명체계는 우리들의 시선을 대상세계에 대한 '규칙성'의 파악으로 이끌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 부분적, 제한적, 조건적' 시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모색이 된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眞如', 대승불교의 가장 이상적 개념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불교의 구경 목적인 깨달음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경론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온다. 기신론에서 쓴 진여라는 말을 다른 경전에서는 달리 호칭하고 있다. 이를테면 금강경에서는 '반야'라고 하고 능엄경에서는 '여래장묘진여성'이라 하였다.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 하였으며 또한 '대다라니'라 하였다.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一眞法界)' 혹은 '법성(法性)'이라 하였다. 그 외에도 흔히 말하는 '불성(佛性)', 선가에서 주로 말하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할 때의 '마음' 등이 쓰인다.

이 가운데 진여라는 말이 대승불교의 시작과 함께 쓰인 가장 이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다. 산스크리트 'tathata'를 번역한 말로 현상계 배후에 있는 우주 만유에 보변(普遍)한 본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참되고 한결같은, 있는 그대로의 본래 모습이란 뜻을 가진 단어다. 이것은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진실한 실상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되었다. 종파에 따라 진여의 설명에 차이가 있었으나 진여연기설을 내세운 기신론에서는 진여를 활동하는 동적인 것으로 보았다. 무명의 연(緣)을 만난 진여 자체가 그대로 움직여 생멸 변화하는 만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진여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라 하여 이것을 물과 파도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물이 바람에 의해 움직여 파도가 일어났으나 파도가 바로 물 그대로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거하여 진여문, 생멸문을 나누어 중생의 마음 곧 일심을 설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근본을 진여라 하고 이 진여가 아뢰야식으로 전환되어 그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이 있으므로 파도가 생긴다'와 같이 '진여가 있으므로 생각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에 삼세(三細), 육추(六 麤)의 구상차제(九相次第)가 설명되면서 중생이 없을 지어 과보를 받는 이치를 밝힌다.

진여가 무명에 의해 움직여지는 최초의 상태를 아려야식(阿黎耶識)이라 하고 이를 진여와 같이 놓고 볼 때 비일비이(非一非異)라고 정의를 내린다. 비일(非一)이란 고요하던 상태와 움직이는 상태가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요, 비이(非異)란 고요하고 움직임이 동정의 상태가 다르나 그 본체는 다르지 않는 하나라는 말이다. 진여가 움직인 것은 물이 움직인 것과 같으므로 물이 움직였다 해서 물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다.

삼세육추는 業의 근본 원리
만사가 이를 벗어나지 않아

한역 경론에서 행위의 능동적인 주체를 능(能)이라 하고 피동적인 객체를 소(所)라 하여 이 능소(能所)를 주객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왔다. 전상 다음에 현상(現相)이 있게 된다. 경계 곧 대상이 나타나는 상태다. 이 세 가지 양상을 삼세(三細)라 부르며, 이 삼세가 아려야식 본식(本識) 안에 들어 있는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삼세의 과정은 의식작용이 표면화되지 않는 상태 곧 잠재적인 상태라 볼 수 있다.

삼세(三細)에서 육추로 진여가 움직여진 생멸은 점점 더 거칠어진다. 이는 생각이 표면화되어 업이 지어지는 과정의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①지상(智相)은 가장 낮은 단계의 분별 의식작용을 말한다. 객체를 보고 주객의 대립을 야기 시키는 단계이다. ②상속상(相續相)은 지상에서 생긴 분별이 증애의 감정이 되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고락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다음 ③집취상(執取相)은 앞의 상속상 때문에 그때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집착이 생기는 단계이다. ④계명자상(計名字相)은 허망된 집착이 더욱 커지면서 그 위에 다시 이름을 붙이고 말을 만들어 더욱 조잡한 아집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⑤조업상(造業相)은 집착으로 인한 말과 행동이 나타나 선악의 업을 짓는 단계이다. ⑥수보(受報)는 업계고상(業繫苦相)으로 업을 지어 그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업을 지은 결과 그 업에 속박되어 괴로움을 면치 못하게 되는 상태다. 여기에 인과의 이치가 적용되며, 이것으로 중생들의 삶의 괴로움이 설명되는 것이다. 진여에서 염연기(染緣起)로 시작되는 삼세육추의 과정은 중생의 업이 지어지는 근본 원리를 밝혀 놓은 것이다. 세상만사, 인간만사가 이 삼세육추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생사 떠난 모습이 바로 '法身'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⑯육신 희사한다는 것은

語乞者言。汝今為我取不壞身。使我得堅牢身。汝恩極重。何以可報。未來世中捨身之果æ 用施汝。我為救濟一切眾生故捨於身命。捨身者得於法身。得法身者得一切種智。使一切眾生皆得此果。捨此身者得於法身。法身者能與一切眾生利樂。能如此思惟。云何不生喜樂速捨此身。菩薩捨身時作是思惟。我為眾生作親友者。我以度生死。應度一切眾生脫於生死。以是故我今捨身。菩薩作是思惟。我此捨身功德不屬悲眾生數。還以養我功德法身。若心如是決定之時捨身無有難相。菩薩捨身所以不難。以當成法身故。是故歡喜。(어걸자언。여금위아취불견신。사아득견뢰신。여은극중。하이가보。미래세중사신지과즉용시여。아위구제일체중생고사어신명。사신자득어법신。득법신자득일체종지。사일체중생개득차과。사차신자득어법신。법신자능여일체중생이락。능여차사유。운하불생희락속사차신。보살사신시작시사유。아위중생작친우자。아이도생사。응도일체중생탈어생사。이시고아금사신。보살작시사유。아차사신공덕불속비중생수。환이양아공덕법신。약심여시결정지시사신무유난상。보살사신소이불난。이당성법신고。시고환희。)

번역

구걸하는 이가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나에게 견고하지 않은 육신을 취하여 나로 하여금 견고한 육신을 얻으라 하느뇨? 그대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여 어찌 보답을 할꼬? 미래의 세상에는 육신을 희사한 과보로 그대에게 보시하며 쓰리라" 합니다. "내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육신과 생명을 희사하거니와 육신을 희사하는 이는 법신을 얻으리라. 법신을 얻는 이는 일체 지혜 씨앗을 얻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그 과를 얻게 하리라. 이 몸을 버리는 희사하는 이는 법신을 얻고, 법신을 얻은 이는 능히 일체 중생에게 이익과 기쁨을 주리라" 능히 이와 같이 사유하기를, "생에 얽매이지 않는 기쁨으로 속히 이 육신을 버릴꼬"하며, 보살이 육신을 희사할 때,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을 위하여 친구가 되고, 내 생사를 건넘으로써 응당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생사를 벗어나게 하리니, 이로써 내가 지금 육신을 희사하리라" 합니다. 보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육신을 희사한 공덕으로 자비롭게 중생의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도리어 내 공덕의 법신을 기르리라" 합니다. 만약 마음이 이와 같이 결정했을 때 육신을 희사하면 어렵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보살이 육신을 희사할 때 어렵지 않은 것은 마땅히 법신을 이룸이요, 이것으로 기뻐합니다.

해설

〈대반야바라밀다경〉 54권에 수보리는 어찌해야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섬기는 것이 되겠느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선현이여, 만약 보살마하살이 모든 중생을 두루 이익되게 하려면 법과 뜻과 나아감에 여실하게 분별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아야 법으로써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긴다고 부르느니라. 또한 진실로 모든 부처님의 법신을 관찰하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응당 원만하게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과 세존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며 여래의 몸을 여실하게 관찰하는 것이니라."

제바보살은 본문을 통해 육신이 아니라 법신을 보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즉, 중생을 두루 이익되게 하려고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모인다. 즉, 생사를 떠난 모습이 법신임을 알려준다.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가 부처님의 법이며, 불법의 뜻이며, 나아갈 바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여래의 몸을 여실히 관찰하는 것이라는 말과 상통을 이룬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장터 순례

재래시장은 열려있는 진리의 세계이다. 화엄의 바다이다. 교과서의 활자 숲이다. 재래시장 순례는 내게 있어 또 하나의 성지순례이다.

나는 장터 구경을 성지순례처럼 즐긴다. 짬짬이 이곳저곳의 전통시장을 떠도는 장돌뱅이 스님이다. 장터에서 배우고 장터에서 길을 찾는다.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감사함과 고마움도 배우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마음의 풍요와 넉넉함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좋다. 싸구려를 외쳐대는 장사꾼도 있고 깎고 또 깎는 깍쟁이 밉상도 끼어있기 마련이다.

선글라스 장사는 앞 조끼에 가득 갖가지 안경을 매달고 다니면서 물 건너온 진품이라며 떠벌려도 밉지 않다. 품바 차림의 엿장수도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거칠면서 야한 상소리도 풍자극의 대사처럼 거부 반응 없이 들려온다. 전자제품 고친다는 돋보기 할아버지, 칼 갈아준다는 아저씨에 이르기까지 장터 사람들은 누구나 활기차고 아무나 바쁜척하며 시간 밖으로 떠돌아다닌다.

막걸리 한사발이면 극락이 빠르게 다가오고 짜장면 곱빼기면 배부른 풍요가 배꼽 부근에서 춤을 춘다.

뻥튀기는 뻥튀기 아저씨의 전유물이 아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뻥튀기 버릇이 있다. 중국산 농산물이 곧장 한국산 토종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보세품이나 짝퉁이 진품이나 수입산으로, 가짜가 진짜를 주눅들게 하는 곳도 장터만의 풍경이다.

검정고무신에 담긴 추억처럼 쏠쏠한 재미를 찾아 시장의 뒷켠까지 오게 되면 미니동물시장도 만나게 된다. 귀엽고 예쁜 강아지와 아기고양이가 새 주인을 기다리며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모습은 언제 봐도 마음이 무겁고 짠하다. 준비해간 빵과 물로 강아지와 고양이의 엄마노릇을 잠시 하지만 좋은 주인을 만나 좋은 환경에서 탈 없이 자라길 염원해본다.

인도와 네팔 등 해외에 머문 15년 동안에도 내가 즐겨찾는 수행도량은 그 나라의 재래시장이었다. 해변에 있든 산촌에 있든 오지에 있든 재래시장은 지친 나그네의 안식처로 다가왔다. 인도의 다르질링이나 마날리에 있는 재래시장에서는 몇 개월씩 머물며 길거리의 움직이는 수행을 이어갔다. 시장바닥은 시끌벅적 소란스러웠으나 마음은 편하고 하릴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배는 고팠으나 풍요를 누리는 곳이 재래시장이었다.

라다크의 '레' 라는 곳의 전통시장에서 두 달 가량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티베트 스님이 죽음을 예견하는 비법 아닌 비법을 내게 일러 주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으나 몸짓으로 손짓으로 거듭거듭 일깨워준 장의학(藏醫學, 티베트의학)에 흥미를 느껴 티베트에서 3년을 머물게 된다.

전통시장은 내게 있어 움직이는 수행장소였다. 외로운 나에게 마음을 덮어주는 도반이었고 좋은 스승이었다.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순수하고 진솔하다. 가진 것은 적지만 다투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땀방울로 행복을 일구는 모습이 아름답다. 전통시장의 저잣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고향사람 같고 친척 같고 경전의 움직이는 활자 같다. 〈화엄경〉과 〈법화경〉에 담긴 진리를 저들은 몸짓으로 풀어대며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진리는 장터·저잣거리에 널려 있다
감춤 없는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진리는 장터 바닥, 저잣거리에 널려 있음을 알아야한다. 장터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살아 움직이는 '조사어록(祖師語錄)'이다. 흥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화엄의 바다로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에서 늘상 느끼는 일이지만 사람 사는 냄새, 오고가는 정이 넘쳐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가진 게 없어도 넉넉할 수 있고 배운 게 없어도 당당할 수 있다. 재래시장에 오면 누구나 펼쳐진 〈화엄경〉을 만날 수 있다. 53선지식과 대화할 수 있다.

팍팍하고 고단한 삶이 꿈과 희망으로 영글어가는 평화의 공동체가 재래시장이기 때문이다. 장터바닥에는 늘 수줍은 진리가 겸손하게 널려있다. 드러냄과 감춤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열린 세계가 생활의 파편을 털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장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처럼 부활해 눈물방울로 떠다닌다. 재래시장은 소시민의 천국이다. 누구나 왕이 되는.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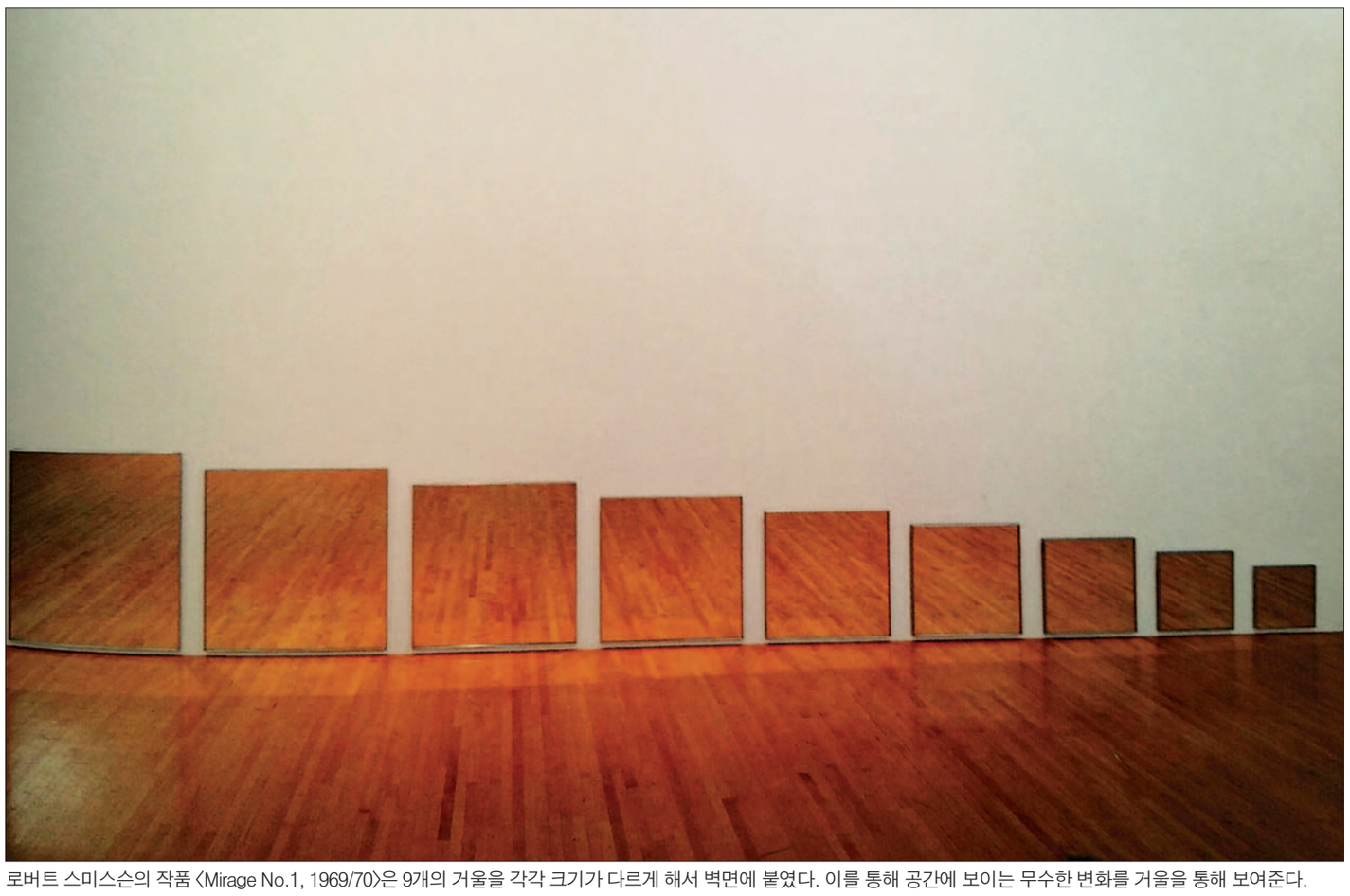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마음 거울로 세상을 보다

禪과 현대미술
㉒ 로버트 스미스슨 (Robert Smithson)


로버트 스미스슨의 작품 〈Mirage No.1, 1969/70〉은 9개의 거울을 각각 크기가 다르게 해서 벽면에 붙였다. 이를 통해 공간에 보이는 무수한 변화를 거울을 통해 보여준다.

화사한 색채들이 보는 사람의 시각을 자극하는 계절이다. 각각의 색상들이 어울려 하나의 커다란 예술작품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장 창의적이며 한순간도 동일하지 않은 움직이는 작품이다.

로버트 스미스슨(Robert Smithson, 1938~1973, 미국)은 자연의 커다란 변화를 보며 자신의 예술에 자연을 추가한다. 대지예술가로 잘 알려진 스미스슨은 거대한 자연 속에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만들어 놓는다. 이 작품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처음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 가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자연 속으로 돌아가 그 흔적을 발견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는 왜 이러한 거대한 작품을 하는가? 이 작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며 작품을 가격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낸다. 선(禪)에서 이야기하는 무상(無常)이치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특히 자연은 순환하는 가운데 변화하며 시간의 흐름을 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항상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고 이를 작품으로 수용하는 스미스슨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작품세계 즉 예술성을 인정받는다. 당시 미국 사회에 팝아트가 유행을 하며 '예술=돈'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며 많은 예술가들이 돈이 안 되는 예술을 멀리 할 때이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자신이 설정한 예술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신이 집필한 에세이 〈Entropy and the New Monuments〉이다. '엔트로피와 새로운 기념물'로 번역되는 이 에세이는 인간이 생성하고 만들어낸 것들이 어떠한 물리학적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이 행하는 예술적 행위가 물리학적 또는 과학적인 관점과는 다른 차원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안가에 만들어진 달팽이 모양의 나선형들이 지구와 달의 간격차이에 의하여 물 속으로 사라지기도하며 변화하는 모습들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하여 자연의 변화는 예측이 가능하나 그 형상은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논리처럼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단지 변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그에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아가는 철학적, 미학적 토대가 되었다.

비슷한 개념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가 자주 사용한 재료 중의 하나가 거울이다. 그는 실내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연에서 가져온 흙과 돌덩어리에 거울을 배치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술에 자연 추가한 대지 예술가
자연 속 시간의 흐름을 이미지화
9개의 거울 배치한 작품 '신기루'
공간 속 무수한 변화 묵묵히 보여

〈Mirage No.1, 1969/70〉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신기루'로 번역할 수 있는데 아홉 개의 거울을 각각 크기가 다르게 하여 벽면에 붙여져 있다. 벽면에 설치된 거울은 바닥을 비추고 있다. 거울의 크기에 따라서 보여주는 바닥의 크기도 각각 다르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변화들을 거울은 묵묵히 그대로 보여준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 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줌으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변화를 인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하지만 그 변화하는 속도는 각각의 경우에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진 스미스슨은 거울을 등장시켜 변화를 인지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거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주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일상의 삶속에서 거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일상적인 도구이며 자신의 외모나 스타일을 만드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하지만 외형을 가꾸는 거울을 매일 또는 자주 보면서 마음을 가꾸는 거울은 하루에 몇 번이나 보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보자. 시시각각 변화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은 우리의 주변에 무수히 많이 있다. 자연에 가면 많은 다양한 나무들이 화려한 색채를 뽐내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또한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자연의 모습은 커다란 화면에 그려진 그림처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아름다움과 변화들은 모두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왜 그럴까?

나무들은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일부분인 나뭇잎을 각각의 화려한 색으로 변화시키며 결국에는 모두 버린다. 그 속에는 치열한 생존의 법칙이 숨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는 인간들은 그 화려함에 심취하여 색채의 아름다움만 보게 되며 또한 동일한 대상과 색채를 본다고 하여도 느끼는 강도나 감정은 다르다.

'자신이 변화해야 세상이 변화한다'는 것을 그는 마음의 거울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연은 스스로의 생존법칙에 의하여 적정한 시기에 변화하며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아간다. 모든 것을 버림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본다.

주말에 필자가 시간을 내어 작은 암자에 갔는데 법당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허공 속으로 자신의 가지들을 키워 나아가고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저 허공이 비어 있지 않다면 나뭇가지는 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무가 실내공간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떠한가? 허공이 비어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관념이나 사상, 철학, 종교, 문화 등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제약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스미스슨은 자신의 예술의 핵심으로 진공묘유를 선택하였다고 보인다.

예술가들이 늘 고뇌하는 창의성도 진공묘유의 이치를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다. 학생들이 가끔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한다. 지금까지 미술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예술가들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예술을 해서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민을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 역시 대학시절에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럴 때 필자는 "진공묘유의 이치를 설명하며 지금까지 어떠한 예술가도 동일한 작품을 만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이며 재료와 기법에서 유사성은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개념은 없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각각의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범주가 다르고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근원적 이유는 모든 것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많은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개념들을 통하여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마치 커다란 나무가 여러 갈래의 가지들이 있으나 허공을 향하여 계속해서 커가듯이 다른 가지가 있는 것은 아무런 방해요소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선사들이 자신의 깨달은 바를 어록으로 남겨놓았는데 똑같은 표현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선사들이 깨달은 바는 둘이 아니다. 선사들은 자신이 수행하며 깨달은 바를 자신이 경험한 공간속에서 새롭게 규정하며 그 이치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수행자들이 안거에 들어가 수행을 하며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 이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스미스슨의 이 거울 작품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규정하는 규범과 같은 것이다. 칸트는 자신의 미학에서 예술가(천재)는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 버려야 한다. 자신이 인식하고 경험한 그 모든 생각들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 수 가 없기 때문이다.

벽면에 설치된 거울이 만약에 다른 색채로 칠하여져 있었다면 거울은 더 이상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거울은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일천 강에 비추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듯이 거울은 달은 비추기 위한 강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존재는 항상 어디에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주는 것이다.

스미스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지미술가로 알고 있으나 필자는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성들이 개념미술, 미니멀미술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대지는 그에게 하나의 커다란 거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지의 변화된 모습들을 만들어 가며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비행기 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의 삶은 마치 자신의 미래를 예견한 것처럼 홀연히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보여주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예술이 지향한 다양한 가치들과 더불어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마음에 거울을 보는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 내며 자신을 비워가던 그의 모습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화려한 색채의 자연 변화를 보면서 마음의 거울을 볼 수 있는 좋은 계절이다. 자연을 비롯한 모든 대상과 사물은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은 언제나 비어 있어야 한다. 어제 본 모습이 남아 있으면 오늘은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을 보면서 새롭게 자신의 삶의 가치를 규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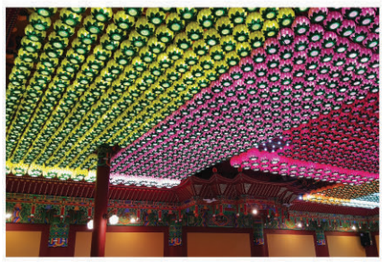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세계 茶문화·공예 한자리서 만나요

25~27일 국제 차공예박람회

세계의 차문화와 관련 공예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사)한국차공예문화협회는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2016 서울 국제차·공예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전통과 현대를 공존하는 차·공예문화를 알리기 위해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차 재료 및 제품 △차 예술 및 문화생활 △차 생활 응용 전통 및 현대 공예품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시 품목으로는 차와 가공식품, 보조용품, 목공예용품, 관련 섬유 공예와 의류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차 생활 확산으로 차와 공예 관련 생산자와 소비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 만남을 통해 차문화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055)324-0350 신성민 기자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 제9회 회원전시회 개최

23~29일 갤러리 경북서


조해종 작가의 '용두관음.'

전통미술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회장 김윤기)는 오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경북에서 제9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 회원 22명이 참여해 불교 미술과 전통공예, 전통미술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대해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은 "불화, 단청, 조각으로 시작해 건축, 전통악기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에 격려를 보낸다"면서 "이번 전시는 전통문화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깨우치게 하는 뜻 깊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기 회장은 "전통문화의 깊은 뜻과 아름다움을 현대사회에 걸맞게 재해석해 후세에 전달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2)737-8882 신성민 기자

"나와 당신, 우리의 인연 이야기 들어보세요"

광주서 힐링콘서트 여는 정율 스님

"지금 시국이 많이 어렵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마음을 위로했으면 해요. 이번 콘서트에서는 대중들이 자신 주위의 인연을 돌아보고 힐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국내외에서 음성 포교를 펼쳐 온 정율 스님<사진>이 빛고을 광주에 힐링을 전한다. 스님은 광주매일TV 개국 1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3일 오후 3시,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돌아보니 당신'을 주제로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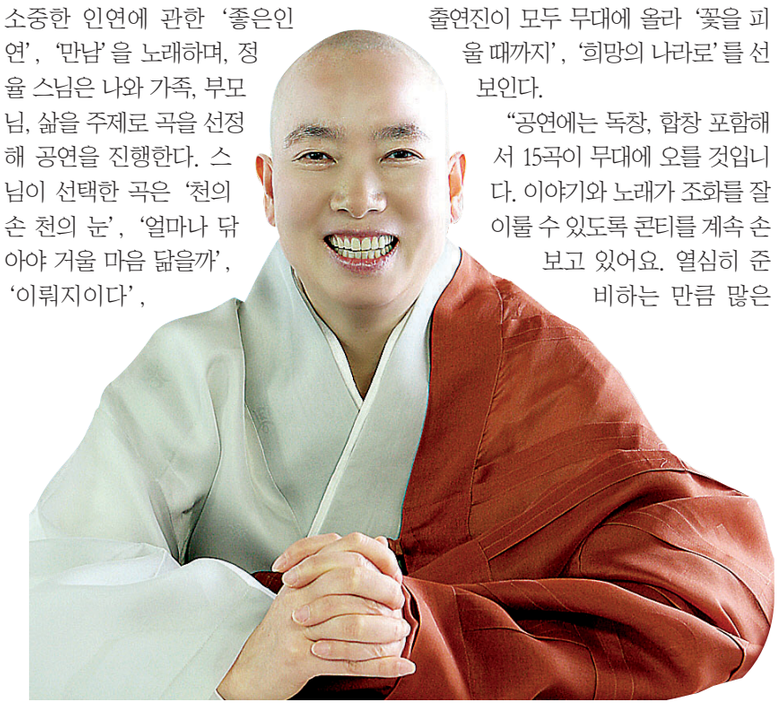
정율 스님의 이번 콘서트는 쌍방향 토크와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다. 스님은 인연을 주제로 사연을 이야기하고 직접 독창과 합창을 하는 방식으로 콘서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합창단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도 이번 공연의 매력이다. 스님이 이끄는 108부다스합창단을 비롯해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마하가섭중창단, 광주 불교계 합창단이 연합한 광주연합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쇳종과 선명상으로 시작해서 '인연'을 주제로 이야기와 노래를 풀어가려 합니다. 앞서 5월에 광주 동원사에서 지역 교육청 의뢰로 '효' 주제 힐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높았는데, 이번 콘서트는 같은 콘셉트를 확대한 것입니다."

12월 3일 광주예술회관서
부다스합창단 등 대거 참여
쌍방향 토크·음악 어우러져
조계종 승려복지에 후원도

스님에 따르면 공연은 쇳송과 선명상으로 시작해 마하가섭중창단이 나를 찾아볼 수 있는 '삼보께 귀의하는 노래(Tisarana)'를 들려준다. 이어 108인 부다스 합창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소중한 인연에 관한 '좋은인연', '만남'을 노래하며, 정율 스님은 나와 가족, 부모님, 삶을 주제로 곡을 선정해 공연을 진행한다. 스님이 선택한 곡은 '천의 손 천의 눈',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 '이뤄지이다', '구름 걷힌 달처럼', '무상', '해탈' 등이다. 대미는 희망을 주제로 광주연합합창단, 부다스합창단, 마하가섭중창단 등 출연진이 모두 무대에 올라 '꽃을 피울 때까지', '희망의 나라로'를 선보인다.



"공연에는 독창, 합창 포함해서 15곡이 무대에 오를 것입니다. 이야기와 노래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콘티를 계속 손보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많은 대중들이 콘서트에 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율 스님은 올해로 음성 포교 30주년을 맞는다. 힐링콘서트를 진행하는 이유도 30주년을 맞아 원력을 일반 시민에게 회향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광주 공연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힐링콘서트도 계획 중이다.

"인연이 닿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주제의 콘서트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내년 6월 1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힐링콘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30년의 원력을 공연을 통해 전하고 싶어요. 여기서 얻은 수익 일부는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후원할 계획입니다."

스님은 인터뷰 말미 "주제인 '돌아보니 당신'에서 당신은 부처도, 예수도, 친구도, 나도 될 수 있다"며 인연의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겨울의 입구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성악가 정율 스님이 전하는 인연 이야기가 사뭇 궁금해진다.

(062)650-2074, 2078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옛 그림과 미디어 아트의 신선한 '콜라보'

간송재단·백남준아트센터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 展

내년 2월 5일까지 DDP서
작품 간 연관성 찾아 전시
작가들 공통의 이상향 발견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 문화로 세상을 바꾸다'에 출품되는 백남준의 1980년대 대표작 '코끼리 마차'. 심사정의 '촉잔도권'과 짝을 이룬다.

조선 중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연담 김명국·현재 심사정·호생관 최북·오원 장승업과 현대 미디어아트 선구자 백남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낙관적 믿음과 이상향으로 엄혹한 현실을 극복하려 했다는 것이다. 조선화와 현대 미디어 아트의 콜라보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간송미술문화재단과 백남준아트센터는 내년 2월 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에서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 문화로 세상을 바꾸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간송이 소장한 전통 회화와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를 연결시킨 전시로 백남준 10주기를 맞아 간송미술문화재단과 백남준아트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협력했다.

두 단체는 각자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출품·전시한다. 간송에서는 조선 중기화단의 대가 연담 김명국과 조선 남종화의 대가 현재 심사정의 대표작들과 함께 기이하고 독특한 품행으로 잘 알려진 조선 후기의 호생관 최북의 산수화 및 인물화, 조선 말의 대표적 화원화가 오원 장승업의 작품들을 출품했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도 28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1950년대 독일 플럭서스 활동기의 자료들로부터 1960년대의 기념비적 퍼포먼스 영상인 '머리를 위한 선'과 1970~80년대의 대표작인 'TV 부처'와 'TV 첼로', '비디오 샹들리에 1번', '코끼리 마차' 등 28점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좋은 작품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들의 연관성에 깊은 의미를 두어 작품 간에 연결을 시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시에서 백남준의 '코끼리 마차'는 심사정의 '촉잔도권'과 짝을 이룬다. '촉잔도권'은 굽이굽이 험준한 산과 물을 건너 이상향으로 가는 과정을 8m가 넘는 두루마리에 그렸다. 코끼리가 끄는 수레에 TV를 가득 실은 '코끼리 마차'는 장구한 인류사의 발달 과정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사람과 사람의 미래에 대한 작가들의 낙관적인 믿음을 보여준다.

실제, 전시에서 소개되고 있는 5명의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상향을 지향했다. 김명국은 불교의 선과 도교 사상의 이상향을 꿈꿨고, 심사정은 몽환적인 남종 산수로 이상향을 그렸다. 최북은 유유자적한 선비의 이상향을 사랑했고, 장승업은 신선의 삶을 동경했다. 백남준은 동서양 문명의 통섭과 조화를 희망한 이상주의자였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옛 사람들의 이상과 현대 거장의 이상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내용은 같다. 바로 인간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인류사에 대한 낙관"이라며 "이번 전시회는 예술문화로 세상을 바꾸고 좀더 나은 삶의 방법을 찾고자 했던 이상주의자들의 만남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02)2153-0000

신성민 기자

개구리 알로 풀어낸 '108번뇌' 연작들

불일미술관, 권금영 작가展


권금영 작가의 작품 〈108번뇌〉 연작.

개구리와 개구리 알을 상징으로 인간의 번뇌를 표현한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권금영 작가의 '인생은 달다 그리고 108번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일미술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신진작가 공모전의 일환으로 열린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권 작가에게는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가의 개인전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108번뇌'를 주제의 연작들로 구성된다. 전시작 108번뇌 시리즈는 개구리와 개구리 알을 인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들로 판화, 설치와 페인팅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 방식으로 일상에서 부딪히는 아이러니한 순간들과 딜레마적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다. 작가는 판화와 회화, 설치의 20여점 작품에서 주로 반복적인 패턴이나 은유의 기법을 통한 상징화를 그 수단으로 이용한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1.9~2016.11.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샘앤파커스
2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허암 김명우번역)	요코야마코이츠/허암	민족사
3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4	나를바꾸는100일	마가스님	휴(한겨레출판)
5	유마경강의(상)-마하연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6	불교에관한사소하지만결정적인물음49	장웅연/니나킴	담앤북스
7	유마경강의(중)-마하연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8	유마경강의(하)-마하연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9	금강경강의(강미농의)	강미농/양관	담앤북스
10	토끼뿔거북털	월주	(주)조계종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행복하고 싶다면?… "줄이고 버리고 정리를"

모으지 않는 연습

나토리 호겐 지음 | 이정환 옮김
세종서적 펴냄 | 1만 5천원



살다 보면 물건은 자꾸 불어난다. 스트레스 받은 김에 지른 전동드라이버, 유행을 쫓아 구입한 넥타이, 한눈에 들어 구입하고 보니 옷장에 가득한 비슷한 종류의 옷, 세일이라는 말에 충동적으로 구입한 다량의 볼펜. 이뿐만이 아니다. 넘쳐나는 물건 때문에 그것들을 보관할 물건까지 새로 구입하게 된다. 책장, 찬장, 옷장, 신발장 등이 그런 경우다. 물건들은 마치 친구를 불러 모으거나 몸집을 불리는 것 같다. 물건들은 어지간해서는 줄어들지 않는다. 아니, 줄어들기는 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고 쌓여간다. 그러나 물건이 많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집은 지저분해지고 점점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어수선해져 스트레스가 쌓인다. 물건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호감을 얻으려 한다. 그런 나머지 자신은 내팽개치고 상대방의 기분만 신경 쓰다 보면 결국 본래의 자신은 사라지고 가면을 쓴 가식적인 인격만 남는다. 돈, 지식, 외모, 스펙의 갑옷으로 나약한 모습을 감추며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건 일단 손에 넣으면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마음의 갑옷을 벗으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쉽게 벗어 던지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집착 하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게 되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잊어버린다.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국내서 〈신경 쓰지 않는 연습〉으로 이름을 알린 '행동하는 승려' 나토리 호겐은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고 심플하게 살라고 조언한다.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뿐 아니라 과도한 인간관계나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생활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적당한 정도만 소유하라고 권한다. 이를 위해 마음, 관계, 물건서 조금씩 가벼워지는 가르침을 전한다.

저자의 이런 가르침은 공허한 훈계로 그치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탐욕과 허세를 부리는 우리 모습을 질타하기보다는 저자 본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는 설교하지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도쿄 사찰 주지인 종교인이자 아내와 자식이 있는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저자는 수십 년간 수행 결과인 깨달음을 방 청소, 쇼핑, 메뉴 선택, 목욕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주제로 이야기한다. 부드럽고 친근한 말투로 작고 소박한 습관이 어떻게 행복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물건이나 사람에 집착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고, 마음과 생활을 산뜻하게 청소해 보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자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비움, 단순함,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라이프가 대유행이다. 어느새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 목적이 돼버린 상황도 적잖게 목격된다. 갖고 싶어도 돈이 없어 소유 못하는 사람들의 자기 위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가야 할 목적지만 잊지 않는다면 심플한 생활방식은 먼저 행복을 맛보고, 평온한 경지에

집착하면 행복해지는 법 잊어버려
삶과 밀접한 주제로 버리는 기술 설명
'모으지 않는 연습', 자신 치유 과정

이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지름길이자 실천적 지침이다. 나토리 호겐 또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줄이고, 버리고, 정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모으지 않는 연습'은 단순한 정리 기술이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직시하고 소중한 것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것을 잘 버리는 것보다 모으지 않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게 한다. 모으지 않으면 버릴 일도 없다. 아무리 상쾌하게 잘 정리한들 다시 끌어모으고 쌓아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 원인을 알고 마음을 함께 닦으면 탐욕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은 편안해진다. 즉 '모으지 않는 연습'은 치유하는 과정이자 행복을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보통 재물이나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사람, 물건, 지식, 추억, 지위 등에 집착하는 모습을 저자는 '막대기에 매달린 지네'에 비유한다. 뒤로 물러날 줄 모르는 지네가 필사적으로 막대에 오르지만 꼭대기에 닿으면 이도 저도 못하고 단지 매달려 있을 뿐이다. 막대에 매달려 꼼짝 못한다면 그것을 놓고 땅으로 떨어지면 된다. 집착을 버리고 땅으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는 고통스럽겠지만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내던지긴 쉽지 않다. 저자는 우리가 막대기를 움켜쥔 손을 놓지 못하는 마음 뒤에는 나약한 모습과 두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돈이나 재능, 인맥을 내세워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감추려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허영이나 허세를 부리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되 주눅 들지 않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한다. 저자는 1장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마음의 정체를 나약함과 두려움이라고 밝힌 뒤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한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업무서도 과감해지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인간관계서의 여유를 강조하는 2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지만,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내용이 담겨 있다.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좋은 사람인 척하느라 무리하게 애쓸 필요 없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위로한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기에 앞서 욕망이나 기대를 줄이라는 마음 준비 운동도 일러준다. 이어 3장과 4장서는 물질적 생활과 마음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매달 갖고 있는 모든 물건 중 아무거나 무작위로 10개씩 줄인다' '구입 전에 물건 가격을 앞으로 사용할 횟수로 나눠본다' '옷, 신발, 양말 등 늘어날 것 같은 물건은 수량을 제한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누군가는 잘못을 지적해줄 테니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않아도 된다' '비판을 들으면 기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마음과 생활의 대청소 팁을 알려준다. 마지막 장에서는 좀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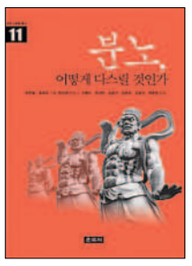
▲저자 나토리 호겐은?

1958년 도쿄 도 에도가와 구 고이와(小岩)서 태어난 나토리 호겐은 현재 못토이후도 미쓰조인 주지로 있으며, 신곤종 부잔파 포교연구소 연구원이자 민속축제 다이시코 찬불가 장인이기도 하다. 미쓰조인서 사불 강좌 및 찬불가 지도 등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베스트셀러인 〈반야심경, 마음의 대청소〉 외에 〈실천편 반야심경 얽매이지 않는 삶〉 〈올바른 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맑고 가벼워지는 반야심경〉 〈3일 만에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맑아지는 책〉 〈번뇌력(煩惱力)〉 등이 있다.

분노를 다스리는 여러 해결법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 4인 집필 | 운주사 펴냄 | 2만 2천원



분노는 갈등과 대립, 충돌과 파괴를 낳기에, 우리는 분노를 극복하고 제거돼야 할 문젯거리로 여기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인간은 인내하고 기다리며 화를 가라앉히고 물러서기를 교육받아 왔다. 불교의 인욕바라밀이나 개신교의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라"가 그렇다. 그러나 분노는 참고 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외부로부터 압박해오는 분노 요인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크게 늘어나, 결국 참는 자의 파멸로 끝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분노는 과연 무엇인가? 분노는 왜 생기고,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책은 초기불교, 선불교, 사회학, 심리학, 서양의학, 한의학에서의 분노에 대한 관점들과 연구 결과들을 입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그리고 분노를 통해 어떻게 삶을 지혜롭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규명한 연구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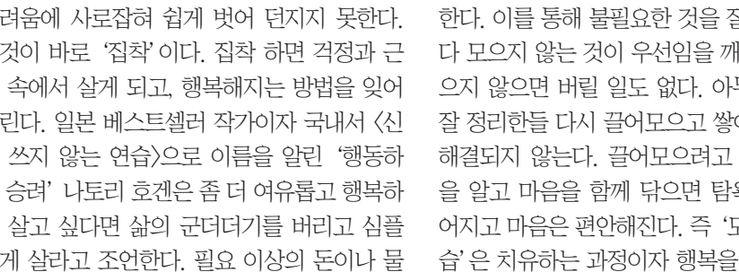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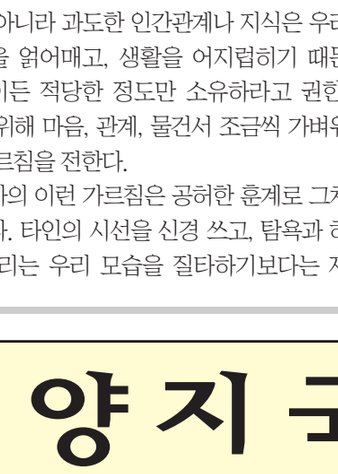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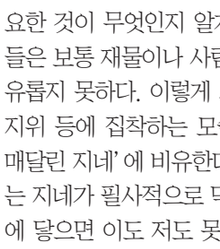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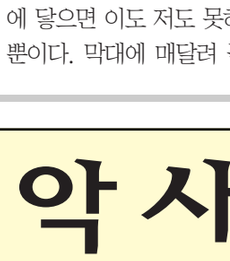
초기불교에서의 분노, 특히 붓다의 분노에 주목한 정준영은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분노의 다양한 종류와 의미를 도사와 빠띠가, 위야빠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분노서 벗어나는 구체적 방법들을 논하면서, 석가가 과연 분노한 적이 있는가를 검토한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사띠, 아누빠사나, 사무량심도 제시한다. 아울러 경전에 붓다가 마치 분노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도 있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제자를 그 근기에 맞춰 가르치려는 자비의 표현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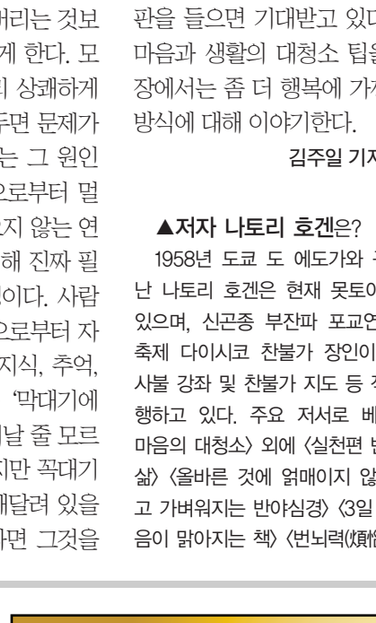
선불교에서의 분노의 대응 원리와 그 활용을 탐구한 김호귀는 선종에서의 분노를 세 차원으로 구분해서 논한다. 첫째는 범부들이 느끼는 '중생적 분노', 둘째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 수행자가 느끼는 '향상적 분노', 셋째는 수행이 완성된 보살이 느끼는 '초월적 분노'이다. 중생적 분노는 공을 자각함과 보원행으로써 극복되고, 향상적 분노는 계정혜 삼학의 수행을 통해 완성되며, 초월적 분노는 중생교화를 위한 자비와 연민의 분노로 나타난다고 제시한다. 사회학에서의 분노를 다룬 김문조는 한국사회가 분노사회가 된 주된 사회적 원천을 좌절에서 찾으며, 이러한 좌절은 사회 전반의 계급적 양극화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양극화를 통해 좌절이 어떻게 분노로 바뀌어 가는지를 밝힌다. 분노의 한국적 전형은 '울화(鬱火)'로 규정할 수 있는데, 분노와 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체계의 재구조화와 함께 분노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의미치료 등을 통한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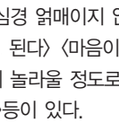
심리학에서의 분노를 논한 권석만은 우울 및 불안과 더불어 인간의 3대 부정정서 중 하나인 분노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며, 분노가 경험되는 과정에는 인지적 사고과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분노의 표현은 크게 기능적인 것과 역기능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그중 역기능적 분노를 다스리는 심리치료적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특히 자신을 돌아보는 회광반조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광기는 뇌과학적 견지서 보는 분노를 다루면서 분노를 포함한 감정의 문제를 심리적 차원이 아니라 미시적인 분자생물학적 차원 및 전기생리학적 차원서 연구한다. 뇌에서 분노를 담당하는 부분은 편도와 해마가 주요 역할을 하는데, 편도가 분노반응을 시작하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아 비이성적 행동이 나오게 되며 결국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조절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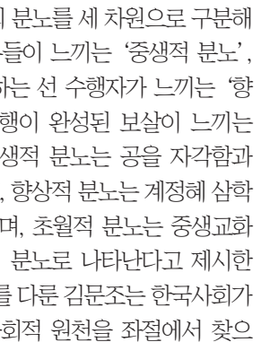
구병수는 한의학에서의 분노, 특히 감정과 기에서 본 분노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로 간주하고 우주의 근본원리인 5행에다 인간의 장기와 감정까지도 배대하여 논한다. 한의학에서 분노의 감정은 간에 배분된다. 크게 분노하면 화가 간에서 일어나 화기가 역상하여 병이 생긴다. 병을 치료함에도 5행의 원리, 특히 상극의 원리를 활용한다. 이어 한의학에서의 분노를 불교와 연관 지어 설명하면서 여러 수행법을 들어 분노의 조절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준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상대방에 대해 반감과 적대감을 느끼고 그것에 저항하기 마련이다. 즉 분노는 자신의 욕망 성취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일어나는 적대 감정이며, 따라서 분노는 자신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분노는 한마디로 자신의 생존과 안락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자기 방어 본능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나와 남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분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잘 다스려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법이 절실한 것이다. 이 책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분노에 대한 분석과 해법은 분노 유발의 요인들이 심각할 정도로 만연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폭넓은 안목을 제시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천의무봉 天衣無縫 명품 우담화
천의-재단하고 봉제하지 않은 원래부터 그대로 좋은 천상의 옷
마음까지 따듯한 프리미엄 목도리
폴리캐시미어 100%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디자인 특허등록 (제 30-0873347호)
튜브리스 에어 컨트롤 기술 적용
내부 보온공기층의 2중 원통형 설계
정전기 방지
비교할수 없는 부드러움
4중 보온효과
원사부터 품질관리까지 100% 국내산 개발 특수원사 사용



22x48cm
우담화1호 세트
목도리 /장갑/양말
₩150,000
판매처모집 / 단체주문 / 마크 자수 가능
불교용품 제조전문 우담화
053) 573-3119 010-3299-719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스님 대신 인공지능 설법하는 시대 올 것”

일본 정토종 이나다 미즈키 스님, ‘히간지’에 기고

“만약 불교를 배운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면 스님들은 어떻게 될까?”

일본 정토종 소속의 젊은 스님 이나다 미즈키(稲田瑞規 · 25) 씨의 흥미로운 발상은 이 질문서 시작됐다.

세계적 화제인 인공지능 기술에 자극을 받은 이나다 씨는 11월 11일 ‘인공지능과 불교’란 제목의 글을 불교언론 사이트 ‘히간지(彼岸寺)’에 기고했다. 이 기고문은 의외의 큰 호응을 얻으며 SNS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만약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불교와 스님들은 어떻게 될까?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까마득히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계 스스로가 학습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개발된 상태다.

이나다 씨도 현실의 인공지능 기술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신문기사를 작성하거나 영화 각본을 쓸 수 있을 만큼 뛰어나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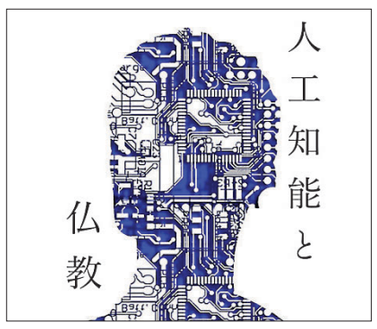
예를 들어 영화각본을 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수많은 명작 시나리오 데이터를 입력해 명작영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한 후 새로운 각본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비록 인공지능이 만든 각본이 아직은 미숙하고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부분도 많지만 점점 인간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알려진다. 지능을 가진 기계의 출현으로 그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침범당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면 불교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는 일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단 것이 이나다 씨의 주장이다. ‘팔만대장경’이란 방대한 경전을 인공지능에 입력시킨 후 불교를 학습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고문엔 세간에 큰 화제를 모았던 이세돌과 구글이 개발한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을 비유하며 ‘석가 알파’라는 가상의 인공지능을 등장시켰다. 석가 알파가 탄생하면 불교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나다 씨는 그보다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불교는 알려진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뜻한다. 그 가르침은 모두 불전(佛典)에 기록돼 있으며, 이는 곧 ‘불교=부처님의 가르침=불교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스님이라 해도 방대한 경전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나다 씨는 “경전을 모두 읽는 데만 평생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은 대기설법(對機說法)의 형식을 통해 상담자의 고민에 따라 설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순적인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대량의 경전을 빠른 시간에 독파할 수 있음은 물론 체계적인 분류와 분석도 가능하다. 이 기술은 페이스북의 친구추천 기능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유저가 입력한 몇 가지 개인 정보만으로도 수많은 지인들을 연결해 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공지능의 문장 인식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나다 미즈키(稲田瑞規 · 25) 스님이 기고문에 첨부한 삽화. 사진출처=히간지

아무리 스님이라도 인간은 방대한 경전 전부 기억 못 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적용하면 대량 경전 빠른시간 독파 가능

이 기능들을 바탕으로 이나다 씨는 ‘석가 알파’의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눴다. ①입력된 경전 내용에서 부처님의 사고 패턴을 뽑아내 부처님의 사상으로 학습한다 ②축적된 부처님의 사고 패턴은 ‘번뇌 해결 시스템’으로써 출력된다(가령 스마트폰 같은 장치를 사용해 상담 내용에 맞는 답변을 내놓고 데이터를 저장한다) ③저장된 상담 내용을 분석해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답변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인공지능에게는 ‘수행’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 석가 알파가 세상에 출현하면 짧은 시기 동안 스님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이나다 씨는 예측했다. 결과는 인공지능의 승리를 점쳤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학습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담내용을 토대로 끊임없이 개선해 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백만 아니 수억 명과도 동시접속이 가능하다. 게다가 근대 불교학자들이 이룩한 수많은 연구논문과 불교서적까지 독파한 석가 알파를 인간 스님들이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는가.

끝으로 이나다 씨는 “만약 정말로 석가 알파와 같은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지금의 승려들은 그저 장례식 같은 의식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따끔한 경고를 남겼다. 지금도 일본불교를 장례 불교 혹은 박제 불교라고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 경고를 그저 웃어넘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사람은 단순 기계화 되고, 지능을 가진 기계는 고도의 지적 활동을 통해 보다 인간에 근접해 간다는 예측이 달갑지만은 않지만 이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사찰과 대중을 보다 손쉽게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찾기 위해 웹미디어 개발을 배우고 있다는 이나다 씨는 “인공지능 석가 알파가 출현하기 전까지 승려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번쯤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성원 객원기자

박스오피스 1위 ‘닥터 스트레인지’, 스님이 숨은 영웅?

겔롱 툽텐,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 주연에 마음챙김수행법 전수

연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흥행 중인 영화가 있다.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다.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세계적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 레이첼 맥아담스가 주연을 맡아 큰 화제가 됐다. 그런데 최근 이 영화 제작에 한 스님이 자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온라인매체 ‘Wales Online’은 11월 10일(현지시간) 마음챙김 명상법을 ‘닥터 스트레인지’ 주연배우들에게 전수한 겔롱 툽텐 스님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Wales Online’은 “웨일즈에 위치한 삼예사원장 겔롱 툽텐 스님은 마블로부터 주연배우들을 위해 일해달란 제의를 받았다”며 “스님은 할리우드 대스타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마음챙김 명상기술을 가르쳤다.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틸다 스윈튼 등 배우들은 촬영 틈틈이 마음챙김 명상 수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슈퍼히어로(superhero) 영화다. 다만 일반적인 히어로처럼 물리적 힘이 세기 보단, 명상 등을 통해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고 스스로 강인해진단 내용이다.

겔롱 툽텐 스님은 “이 영화는 마음챙김수행에 관한 강한 주제의식을 지닌 작품”이라며 “촬영 쉬는 시간마다 배우들과 함께 명상수련을 했다. 400명 스태프가 돌아다니는 시끄러운 현장 속서 명상수련을 한 경험은 꽤 흥미로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닥터 스트레인지’는 당신에게 생각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할 능력이 있단 메시지를 던져주고, 마음엔 끝없는 가능성이 있단 것을 알려준다”며 “나 또한 사람들이 다른 세상을 향한 문을 실제로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겔롱 툽텐 스님, 배우 틸다 스윈튼. 사진출처=Wales Online

특히 겔롱 툽텐 스님은 무료로 이번 자문 역할에 나서 눈길을 끈다. 스님은 “이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챙김수행의 이점을 알릴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내게 매우 특별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수행자 마당 쓸 듯 평정심 잃지 말라” 트럼프 당선에 美 불교 성직자들

티베트 스님 페마 초드론 등 트럼프 및 美 국민에 제언


사진 왼쪽부터 페마 초드론, 노만 피셔, 로시 팻 앤교 오 하라, 노아 레빈

도널드 트럼프의 역전승으로 미국 시민들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불교 성직자들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티벳 불교 최초로 금강승 수행을 마친 미국인 스님 페마초드론을 비롯해 에브리데이 선(禪) 재단의 노먼 피셔 등 미국을 대표하는 불교 성직자들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자비심을 갖고 사랑하고 수행자들이 매일 일어나 아침마당을 쓸 듯 평정심을 잃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페마 초드론(티베트 스님)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사고에 빠져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일을 양극단의 상황으로 대립하는 대신, 서로 화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명상을 한다. 자비심, 상냥함, 다정함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나는 우리의 마음이 전해질 때까지 통탄에 빠진 이들을 도울 것이다.

노만 피셔(에브리데이 선 재단)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모두가 놀랐던 것처럼 놀랐지만 그렇게 많이 놀라지는 않았다. 보디사트바(보살)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매일 아침 일어나 정원을 깨끗이 쓸어낸다. 보살은 긴 게임을 하는 것과도 같다. 그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강한 힘이 있으며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암흑시대가 영웅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보적인 정치 견해를 갖고 있는 우리가 닉슨, 레이건, 부시 정부의 시대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다지 유쾌하진 않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는 트럼프 시대에 살아남을 것이다.

언급한 대통령들의 정책이 나쁘지 않았고, 그들이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잠시 동안만 슬퍼하고 이제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 달라이 라마가 일생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라. 그는 자신의 나라와 문화를 부자비한 정권의 손아귀에 잃었지만 그는 매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상적인 연습을 유지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인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한다. 그는 자신의 비극을 세상의 교훈으로 삼았다.

로시 팻 앤교 오 하라(빌리지 젠두)

우리 모두 선거 소식을 듣고 동요했다. 나는 어떤 가르침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지 자문해본다.

나는 관세음보살을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이 불행한 국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상에 귀를 기울여 듣고 시민들과 인권, 기후변화, 언론 윤리 등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땅의 고통과 보살핌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아 레빈(어겐스트더 스트림)

미국에는 무지함이 존재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지혜와 연민을 발달시키기 위해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서로 증오하는 이들, 탐욕과 혼돈으로 사로잡힌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것이다.

이보형 객원기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S8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3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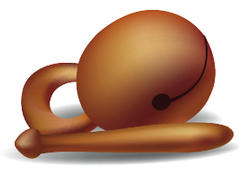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에 어떤 이가 부처님과 가르침에 의지하여
바른 길의 진리에 들어가 항상 선지식에 의지하여
따른다면 곧 이로부터 큰 원 (願)을 얻으리라.

– 사가매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신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태극 기문 명리
기문둔갑 + 명리비법
(계의신결. 작명. 영가작법)
속성! 개업반, 스님환영
태극기문학회
051-949-1234

EST 기치료센터
기치료 과정
최면상담사 과정
사주, 육효, 철학상담사과정
각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업하고자 하는분,공부하였으나 자신이 없는분,관심은있으나배울기회가없는분)
EST 기치료최면센터
010-6666-2733

금강선원 결혼상담소
책임상담,
남녀등록자,국내거주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참한 분
010-2232-2499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5960-4984
지리산 현담

알립니다
법당,신당 퇴불 및 철거 전문업체
불교용품 일체 취급
법당, 신당 제작 설치
사찰 중개도 합니다
불교용품 다 사고 팝니다
010-2001-0089
010-3200-0091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법당철거전문.개금.단청.
탱화.중.대형불상.공예
(사찰부동산중개전문)
구리시 아천동 산4-1
010-9177-7842

칡 판 매
스님이 직접 캔
칡을 판매합니다
경북 예천군 유천면 하천길 21-73
010-5585-045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 고민 해결의 지 침 서
당신의 어떠한
고민도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010-7732-3267
농협 302-1030-1238-01 배종영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51-413-3318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구성학 + 현공풍수 양택
기본과정 수강회원 모집
● 서울과정 :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 4시(180분) 개강
● 대전과정 :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오후 1시 ~ 4시(180분) 개강
● 서울 학회사무실 :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 학회사무실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번지 2층
010-5116-9313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거제)
010-7169-98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7212-2198
02)2234-219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국제불교방송 모집공고
1. 시민 참여 기자 0 명 / 2. 전국 지사장 0 명 /
3. 전국 포교당 0명 / 4. 프리랜서 전임기자 0명 / 5. 광고국장 0명 /
6. 위문공연(자원봉사자) – 국악, 무용,악기, 대형버스 면허자 /
7. 법회장소 제공하실 분, 리무진 대형버스 사용하실 분 /
8. 주 1회 동영상뉴스. 진행자(여) 0 명
※ 자기소개서 이메일로 접수 (ibbtv1@gmail.com)
대표전화 : 1833-9540 국제불교방송 (www.ibbtv.com)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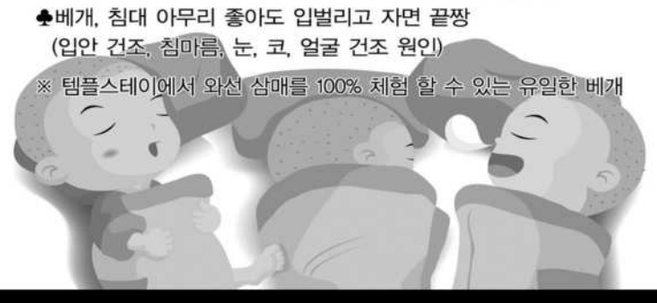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후계자를 찾습니다
35년간 수행해온 모든 것을 다 전수
받을 수 있는 후계자를 찾습니다
(스님이나 스님이 되고 싶은 사람)
"1차 전화 상담후 면접"
063-832-0108 / 010-6513-4771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뭇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뭇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해 드립니다.)
동영상 CD(외장하드)를 함께 드리며 화상강의도 가능합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著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삼악도로 가는 첫째 원인은 중생들이
허튼 욕심을 내기 때문이요, 극락정토로
가는 육바라밀의 으뜸은 아낌없이
베풀고 사는 보시이다.

- 자경문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관광 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토지 : 1400여평
- 건물 : 목조법당 48여평, 요사채 38여평
- 세계불교박물관(벼락맞은 대추나무 5400년된 회석 등 300여점 보유)
- 양도 : 13억 5천만원 (대출 5억포함)

▶ 얼음골 사찰 ◀
- 위치 : 밀양 얼음골
- 토지 : 830여평, 주차가능
- 건물 : 대웅전과 요사채 40여평
- 산좋고 물좋은 계곡 남서향 명당
- 양도가액 : 3억 5천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영양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요사채, 산시낙,토지 820㎡
- 조용하며 깨끗함, 도로인접, 마을주변
- 가액 : 1억 6천만원. 조정가능 (융자가능)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 (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양도 : 8억2천
◎ 위치 : 경북
◎ 부지 : 2000평
◎ 인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양도 : 2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암 자 안 내

- 위치 : 양산 물금 신도시 부근
- 토지 : 오봉산자락 32여평
- 건물 : 법당16여평,요사채2동
- 낙동강이 한눈에, 위치 좋은 암자
- 양도 : 스님 사정으로 몽땅1억3천만원

010-2595-7752 전무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영주 사찰(급)안내

- 토지 7,000㎡
- 한옥기와 법당, 산신각, 요사채 등
- 주변산, 바위, 약수, 토목완료
- 영주 4K 고속도로 접근성 좋음
- 가액 : 4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서울연락처: 070-8154-9393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서울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 지하철역 5분거리 버스정류장 앞
- 총 132.23㎡ (약40평)
- 가액 : 보1000만, 월100 시설비 500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70-8154-9393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 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대지 100평, 아파트 대단지 뒷편
- 산과 계곡이 있는 절
- 오존불, 각단 탱화 법당 완벽
- 방4개, 다용도 거실 큼
- 가액 : 전세 500,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가격 절충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대출 승계 가능함

010-6628-8271

아름다운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 요사채1동(25평), 법당1동(33평)
- 정자(원목), 가로 5m 세로 3m
- 총평수 300평
- 가액 : 2억 5천(은행융자 5천 포함)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람

010-3889-7141
주지스님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사천시 산세좋은곳. 사천 IC 15분 거리 위치
- 면적: 부지 55,000제곱 건물 270㎡
- 법당, 삼성각, 요사채 2동, 황토방1채
- 용왕당, 연못, 채전밭(유실수 있음)
- 산과 계곡, 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 방7, 화장실4, 심야전기, 화목보일러
- 가액: 4억 8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10-5346-4138
051-861-2233

암자안내(마산)

- 위치: 마산 무학산 입구(교방동)
- 건물 : 2층 (1.2층 전체 콘크리트 건물)
- 주변부지 사용 가능
- 가액 : 전월세, 보증금 3백만원, 월 13만원 시설비 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7169-9878

합천 무학동굴 앞 대지 및 전원주택 매각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2번지
- 대지417평(1,379㎡), 건물(전원주택)44평(147.36㎡)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8번지
- 임야 211평(699㎡)
- 특징 : 합천무학동굴은 조선시대 왕사인 무학대사가 어린시절 수련하였던 동굴이며, 동굴에는 무학대사가 숟가락으로 팠다는 샘이 있다(경남문재재연구원의 합천무학대사 유허지 발굴 보고서 및 합천향토문화지 등에 기록)고 강숙자 보살이 무학동굴앞 부지를 매입하여 1999년부터 무학동굴을 관리하고 있었다.(건물은 2008년도 신축함)
- 가액 : 4억

010-2078-9595

도심 공원 내 사찰(급)

- 위치 : 부산(공원내 계단 있음 10M 버스도로 옆)
- 대지 : 약 98평
- 1층건물 : 법당 40평, 기도방 5(2가구 가능) 2층 : 법당 40평, 기도방 2
- 텃밭 약 20평(과수나무)
- 가액 : (대출 7천 별도) 현금 2억 2천

010-5511-700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물 2채
- 대웅전, 산신각, 별도 황토방2개
- 주방, 욕실, 조경,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버스터미널 도보5분거리
- 가액 : 3억 8천만원 (융자있음)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 목조기와 7평(단청, 30년됨)
-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 방5개, 주방 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임야 : 50평
- 가액 : 1억 8천(융자 6천만원)

010-3875-6305
041-752-059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45평, 건평 92평
- 4층 건물
- 건물 : 철근 콘트리트구조 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곳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5931-107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전주 도심사찰
- 고찰터부지 250평
- 법당, 요사, 삼성각 고려석불 문화재 자료 고탱화 후불 지장 조선전기 목불(약 600년), 복장물 있고 바로 문화재 될 수 있음
- 가액 : 5억

010-3080-9393

토굴을 구합니다

- 산속이나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 싼 값으로 양도하실 분이나 임대로 빌려 주실분은 연락주십시오

010-7678-553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공양간 외 부속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급 2억 8천 (부득이한 사정으로)

010-4628-569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200평, 건평40평, 법당, 요사채, 방3개
- 친견실,공양간,샤워화장실2개 밖에 남녀화장실,산신각,용왕연못 등 시설일체 방문요망
- 가액 : 2억 5천 8백만원
- 급 양도

010-5427-3699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63-35
- 3층 건물중 1층
- 삼존불, 탱화, 에어컨
- 평수 약 20평, 거실크고 방은 1칸, 주방, 화장실, 창고2동, 전용주차장
- 가액 : 보 1,500만원 월 49만5천원 시설비 무료보시

010-4382-3448

멋진2층전원 주택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교원(급) 안내

- 위치: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2번, 3번 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7589-9600
010-3753-7844

사찰안내 또는 전세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586
- 목조 법당 25평, 요사콘크리트 슬라브 50평
- 심야보일러, 전 다소
- 가액 : 3억 5천만원 전세가 6천만원

010-5780-1415
033-762-249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임법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성당시장 약 5분거리
- 평수 : 대지 약 47평, 건물 약 27평
- 가액 : 1,000만원 월 25만원 보시고 합의 후 결정

010-5387-6767

암 자 안 내

- 위치 : 하동군 적량면 지리산 자락
- 법당 외 3동
- 등기 200평
- 실사용 가능 공간 700평
- 가액 : 2억 1천만원

011-9206-846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 2층 전체 100평 (법당 50평, 방5개, 욕실) 1층 공양간 20평, 실외화장실 2칸
- 시설 집기 일체, 시설비 없음 즉시 법회가능
- 가격: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010-8676-3423

대형 사찰 양도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삼동
- 2614평
- 대웅전포함 정각4동 전철역사 인접
- 기본계약후잔금은행대출가능
- 가액 : 65억
- 꼭 사실분만 상담가능

010-3288-1317

토 지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자락 2200여평
- 전기, 수도, 사찰 허가 필, 미력하여 불사 완성치 못하였으나, 인수하시어 불사 완성하시려는 참 뜻을 가진 존귀한 인연께 추가 큰 보시를 하려합니다
- 상세한 것은 주인직접 통화 상담 바랍니다

010-4512-0813
(무주 합장)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대연동
- 건물 4층의 4층 60평, 옥상사용가
- 법당 공양간 분리, 교통, 위치 양호
- 가액 : 전세 500, 월 55만 시설비 1,000만원

010-6416-5589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8억

010-9228-674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 1,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262-10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칠북면 단내로 266(창원옆)
- 전체 : 약 6천평, 법당 30평(모든 건물 목조) 요사1동, 방3개 산신각1동 5평, 주지실 21평
- 가액 : 약 25억(절충가)

010-8253-9919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전기, 자연우물 유 지방국도 접해 있음
- 1,300평, 두필지
- 가액 : 평당 9만원. 대출 삼천만 있음

부산 010-3868-7435
010-4911-5552
거창 010-4661-773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 대지 : 30평
- 1층 : 요사채
  2층 : 법당
- 가액 : 1억 4천만원

010-4137-2168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대지 : 69평
- 1층: 27평(방3칸, 공양실, 요사) 2층: 25평 법당 스님 친견실
- 삼존불, 각단 탱화, 법당시설 완벽
- 종무소 3평, 도시가스, 주차가능
- 가액 : 3억 9천

010-7311-5335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IC 얼음골 방향 15분 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중, 대지 328평
- 2층 건물 1층 명상홀 및 요사 59평 2층 대웅전 24평 ● 가액 : 6억
- 대나무숲속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28평과 창고 20평
- 원통문 수월관음, 연화탑, 포대화상 등 석물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010-4895-205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차선 도로변
-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중간부분 교통 원활
- 아미 관음 지장 후불 신중 칠성탱화 영가단, 소불 법당종 냉,난방기 음양 조명 등 시설완벽 불기 및 집기일체
- 신조성 1년 10개월 포교 및 명리 적합, 3층 건물중 2층 약 25평
- 보: 300백, 월30만. 주방시설은 있으나 방은 없음 시설비는 꼭 하실분에게 최소의 금액에 드리겠습니다

010-5050-6252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 평수 : 법당 30평, 삼성각
-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5개. 다락방, 욕실, 화장실3개, 주차 10대가능
- 신도시 형성 아파트 3만세대 고속도로 5분거리
- 가액: 5억

010-5019-5385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 대지 7000 평
- 옛 수도사 절터임
- 가액 : 6,500만원

010-3539-83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북구 시장입구
- 3층 건물 2층
- 평수 : 약 53평
- 방3, 에어컨 3대,최고시설 완비
- 보증금 900만원, 월 40만원 도시가스 시설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8770-38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 토지 : 대지 200평, 답 760평
- 건물 : 45평 (후불탱화, 지장보살 봉안)
- 방향 : 남향
- 야산에 위치한 아담하고 조용한절
- 전기, 전화, 인터넷 가능

010-2831-8573
(주인직접)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상인동 아파트 대단지
- 약 80평중 법당 40평
- 삼존불 외 소불 200, 신중, 영가전
- 방4개, 화장실, 욕실, 창고, 옥상가능
- 가액: 보증금 무, 월세 80만원 중간세도 가능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243-0113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1동, 칠성각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약 40평 1동
- 가액 : 3억 2천만원 (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금액은 500만원

010-9902-3969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토마스 비엔 · 비버리 비엔(명상 지도자)

〈8〉 꿈꾸기

꿈속에서 '현실 불균형' 맞추다



밤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 의료 과학과 과거의 영적 전통이 단절된 현실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각종 대체의학에 이끌리는 현상은(물론 지나치게 무비판적이고 순진한 경우도 있지만) 영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보다 통합적인 치료법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꿈이라는 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치유와 전체성을 진작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 중 하나다.

내가 상담을 위해 매니라는 남성을 만난 곳은 어느 사회복귀시설이었다. 매니는 거의 한 달을 그곳에 입원해 있으면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곳에 오기 전 매니는 거리의 삶을 청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폭음 때문에 갱생의 시도는 허사가 되고 말았다. 매니는 쉽게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당연히 우리가 나눈 대화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들이킨 한 모금의 위스키가 너무나 달콤하고 환상적이어서 지극한 행복감이 온몸을 휘감았다고 했다.

내가 보기에 매니가 참여하고 있던 중독 치료 프로그램은 다소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참가자들로 하여금 술 마시는 행위는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음주 생각을 지나치게 억압한 나머지, 매니는 꿈을 통해 '음주는 절대 안 된다'는 의식적 자아의 편향성에 반항하고 있었다.

매니의 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매니의 꿈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그의 꿈에 등장한 위스키가 지닌 마법의 힘이다. 실제 술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마법은 알코올에 대한 매니의 태도에 관하여 중요한 무언가를 암시한다. 즉 매니의 꿈에 나타난 위스키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자 마법의 영약, 치유의 물이었다. 어쩌면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음료는 위스키가 아니라 생명의 물이었는지 모른다.

자각 범위를 넓히는 '꿈'

자신의 꿈을 자각하면 가르침과 지혜가 가득한 멋진 세계가 열릴 수 있다. 꿈은 무의식을 통해 우리가 평소 소홀히 했던 대상을 떠올려주며, 이로써 우리는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보다 온전한 존재가 된다.

꿈은 어느 것이나 전체성과 균형, 온전함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반드시 즐겁지만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하고 폄하하는 온갖 어려움을 에둘러 가서는 우리가 목표하는 전체성에 이를 수 없다. 그 한 가운데를 통과해야만 한다. 어두운 장소를 치유하려면 그곳과 직면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겪는 질병이나 삶의 문제들 가운데는 우리를 제한된 관점에서 더 확장된 관점으로 인도하는 부름도 있다. 어쩌면 모든 심리적 상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중독 역시 그러한 상처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즉 자신이 입은 상처에서 영적인 차원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면, 중독은 더 전체적이고 확장된 관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꿈은 당신에게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고, 당신은 '아하! 이제야 알겠어'라는 경험을 할 테지만 지나친 목적 지향적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꿈 해석'이란 용어도, 일종의 암호 해독 행위로 여긴다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꿈 작업을 통해 일정한 통찰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꿈 작업의 주목적이 아니다.

꿈 작업의 주목적은 자신의 자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챙김을 통한 깨어있는 마음을 수면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것이다. 꿈을 통해 얻은 모든 지혜가 의식적인 말과 의미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꿈의 영역에 마음챙김을 가져가는 단순한 시도만으로 우리는 이미 온전한 전체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꿈의 내용은 의식에서 쉽게 달아난다. 꿈 꾼 내용을 의식적인 자각으로 포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꿈을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만약 꿈을 기억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면 우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잠자기 전에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시끄러운 음악을 피한다. 고요한 시간을 방해하는 일은 모두 삼간다. 자신에게 고요한 시간을 허락하라. 실은 우리 모두가 그럴 필요가 있다. 걷기 명상과 좌선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고요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어도 좋다.

다음으로, 잠에 떨어지려고 할 때 몇 차례 의식적인 호흡을 하면서 꿈을 기억하겠다는 의도를 낸다. 침대 곁에 펜과 종이를 놓아두는 '의례'를 치러도 좋다. 이는 자신이 꿈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음을 무의식에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종종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꿈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

꿈 작업의 첫 단계는 꿈의 내용을 기억해내고 기록하는 것이다. 종이에 글로 쓰는 대신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해도 좋다.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거나 글로 쓰는 것만으로 꿈에 대한 통찰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 꿈의 내용을 주의 깊은 마음으로 존중하는 자체가(설령 꿈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해도) 이미 유용하고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꿈, 평소 소홀한 것 떠올려
> 삶의 전체성과 균형 찾게 해
> 자신의 자각 범위 확장
> 즉각적 결과보다 믿음 필요

꿈을 종이에 기록하고 주변 사람과 나누는 작업은 무의식이 보낸 꿈이라는 소중한 메시지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 밖에도 꿈을 활용하는 방법은 많다.

꿈에 등장하는 인물들, 각각의 대상과 사건, 꿈이 벌어지는 장소 등 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 서로 연관을 지어본다. 이 작업을 할 때 유의할 점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상을 아무렇게나 따라가지 말고, 꿈에 나타난 특정 대상으로 계속 되돌아오는 것이다. 마음에 떠오르는 내용을 아무렇게나 따라가다 보면 흥미로운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른다.

꿈 해석은 마음을 안정시켜

물론 꿈에서 얻은 통찰이 언제나 합리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는다. 꿈의 통찰을 상식적인 말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합리적 통찰은 우리 뇌의 더 깊고 오래된 부위에서 나온 것으로, 그 부위는 말(단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상징을 가지고 사고한다.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영어는 모르고 중국어만 아는 사람과 중국어는 모르고 영어만 아는 사람이 나누는 대화와 비슷하다. 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토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다.

꿈의 언어는 상징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상징(symbol)은 다른 무언가를 대신하여 의미하는 기호(sign)와는 다르다.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말로 온전히 표현되지 않는다. "붓다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불교의 격언에서 '달'은 상징이다. 여기서 우리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달은 깨달음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을 다른 상징으로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는 '달'이라는 상징의 의미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달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꿈 상징의 의미에 대해 열려 있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꿈과 꿈 상징의 의미를 의문의 여지 없이 완벽히 해석해 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꿈 작업의 결과, 즉각적으로 편안함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꾸는 꿈은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꿈의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편안함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꿈 작업을 통해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간혹 아무리 열심히 꿈 작업을 해도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때도 있다. 그러나 꿈 작업을 통해 몇 주 혹은 몇 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꿈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안정감이 커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중독 행동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접근법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각각의 변화 단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거친 뒤에야 눈에 띌 정도의 확실한 변화를 보인다.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례들(어느 날 불현듯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느님께 귀의했더니 모든 일이 순조로워졌다는 사례 등)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변화에 이르기까지 예비적 사건과 작은 변화들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알게 된다. 겉으로는 갑작스럽고 드라마틱한 변화로 보여도 겉으로 눈에 띄게 드러나기까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미세한 변화들이 많이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다.

명상, 일상에서의 마음챙김, 일기 쓰기 등 이 책에 소개된 모든 수련법과 마찬가지로 꿈 작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에 대한 믿음이다. 즉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매일 매일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을 필요가 있다.

특히 꿈 작업에서는 작은 변화 과정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점에서 보면 불편한 꿈일수록 궁극적으로는 더 큰 치유를 가져다줄 수 있다. 당신을 많이 괴롭히는 꿈이라도 만약 당신이 그것에 자각의 빛을 비춰 통합시킨다면 가장 큰 치유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글은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석불사
• 법 명 : 인각(최성목)
• 주 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망성2길 37-10(구,596)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부처님 마음 공부

무량 청정암 열린 마음선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부처님 마음공부를 함께하실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아 래

❶ 교육과정 및 일정

과 정	요일및시간	수 업 내 용	
기초과정	매주 화요일 (요일 변경 가능)	염불선	1단계 : 불교이해 2단계 : 경전독송 이해
중급과정	매주 수요일	참 선	참선이해, 법거량
고급과정	매주 금요일	간화선	화두참구, 깨달음

❷ 수업 신청 방법
- 기초과정 : 3개월 선착순(20명 이내 한정)
- 법사와 1대 1 수업 운영
- 수 강 료 : 3개월(30만원)

❸ 교육장소 : 무량 청정암
❹ 교 수 : 무량 청정암 최정훈 법사
❺ 문 의 : 010-2559-6886

무 량 청 정 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6번길 23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우복진)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출가

고단한 북소리 들려오면
오래된 무릎을 꿇고.

누군가 나를 스치고 있다면
금생을 건 향을 피우고.

어제가 지워지지 않는 아침이면
말(言)을 아껴 길을 걷고.

비오는 날에도 새들이 보이면
젖어오는 마당으로 걸어가리.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이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 ㊦

"쪼꼬미가 사라졌어요!"

"으아앙! 쪼꼬미야, 미안해. 오빠가 정말 미안해!"

찬솔이는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트렸다. 다리를 버둥거리고, 팔을 휘저어 가슴을 쳐도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너를 먹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녁 식사에 닭볶음탕이 올라왔을 때 찬솔이는 냉큼 닭다리를 가져다가 맛있게 뜯어먹었다. 엄마가 남은 닭다리를 아빠 밥그릇에 올려놓자 은솔이 누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찬솔이를 흘겨봤다.

"왜? 지난번엔 엄마랑 누나가 먹었으니까 이번엔 아빠랑 내 차례라고."

닭은 왜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 걸까. 네 개라면 좋을 텐데. 닭 요리를 먹을 때마다 누나와 찬솔이가 다리를 서로 먹겠다고 싸우자 엄마가 규칙을 정했다. 이번에 엄마와 누나가 먹으면 다음엔 아빠와 찬솔이가 먹는 걸로.

국물에 밥을 싹싹 비벼 먹고 나자 배가 흡족하게 불렀다. 역시 반찬은 고기반찬이 최고야. 찬솔이는 똥을 누지 못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배를 손바닥으로 쓸었다.

찬솔이는 베란다로 갔다. 오늘은 꼭 산책을 시켜주겠다고 했던 쪼꼬미와의 약속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쪼꼬미야, 미안해. 내일은 꼭 산책시켜줄게. 진짜야."

그런데, 쪼꼬미가 없었다. 철창 우리 속에도 베란다에도 쪼꼬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제야 찬솔이는 저녁에 맛나게 먹었던 닭 요리가 떠올랐다. 맛있게 냠냠 뜯어먹은 고기가 쪼꼬미였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뱃속이 울렁거리며 금세라도 토할 것 같았다.

"무슨 일이니? 찬솔아."

찬솔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깜짝 놀라 뛰어왔다.

"어떻게 우리 쪼꼬미를 죽일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식구인 쪼꼬미를 먹을 수 있어!"

찬솔이는 엄마를 향해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 찬솔이의 눈에서 눈물이 쉼 없이 주룩주룩 흘렀다. 동그랗게 뜬 엄마의 눈이 가늘어지며 활처럼 휘었다.

"그럴 리가 있겠니. 쪼꼬미는 찬솔이의 귀여운 동생인데."

찬솔이는 울음을 그치고 엄마를 봤다. 눈물 콧물을 소매로 쓱 닦고 난 후에도 흐느낌은 여운처럼 남아 있었다.

"오후에 고모님이 오셨어. 쪼꼬미가 좁은 철창 우리에 갇혀 있는 걸 보시고 불쌍하다고 시골로 데려가 키우신다기에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 찬솔이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쪼꼬미도 안됐잖니. 늘 좁은 곳에 갇혀서."

"쳇, 오랜만에 오셨으면 하루 주무시고 가시지."

찬솔이에게 고모는 할머니 같은 존재였다. 할머니는 찬솔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 고모가 주름지고 거친 손으로 찬솔이를 쓰다듬어 줄 때면, 찬솔이는 살아계셨다면 할머니의 손길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하곤 했다. 고모가 시골로 간 후로 자주 만나지 못해 찬솔이는 늘 고모가 그리웠다.



그림 · 강병호

"농장 일이 바빠서 오늘 내려가셨어. 찬솔이 못 만나서 아쉽다고 하셨단다."

고모부가 퇴직한 후에 고모네는 시골로 이사를 했다. 거기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돼지와 닭, 염소 같은 동물들을 키웠다.

"주말에 고모네 놀러가자, 찬솔아. 쪼꼬미가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보자."

고모네 집에는 열세 마리의 닭들이 살고 있었다. 수탉이 두 마리, 암탉이 열한 마리. 닭들은 횃대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고, 흙바닥 위를 구르며 가려운 등을 긁기도 했다. 낮에는 마당에 나가 벌레를 잡아먹거나 곡식 낟알을 주워 먹고, 밤이면 닭장 속에서 잠을 잔다고 했다.

찬솔이는 친구 닭들 사이에서 쪼꼬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쪼꼬미는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이었다. 찬솔이를 보자 반갑게 달려와 '꼬꼬댁' 하고 인사를 했다.

"쪼꼬미가 알을 낳았단다. 와서 보련?"

찬솔이는 고모를 따라 닭장 안으로 들어갔다. 볏짚 무더기 위에 작고 예쁜 달걀이 놓여 있었다. 찬솔이는 두 손으로 달걀을 감쌌다.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지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다.

고모네 밥상은 풀떼기 밥상이었다. 찬솔이가 싫어하는 초록, 주황, 노랑 채소들이 상 위에 놓여 있었고, 쪼꼬미가 낳은 조그만 달걀이 포근한 달걀찜이 되어 상 위에 올랐다.

밥상을 앞에 두고 고모와 고모부는 두 손을 곱게 모으고 게송을 읊었다. 찬솔이네 가족들도 따라서 손을 모았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을까.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깃들었으니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고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농장일을 돕느라 구슬땀을 흘려서일까. 제 손으로 거둔 채소들로 반찬을 만들어서일까. 공양게를 읊고 나니 음식에 대해 숙연한 마음을 지니게 되어서일까. 풀떼기 밥상 위의 음식들이 하나하나 다 맛있었다.

찬솔이는 보들보들한 달걀찜을 한 숟가락 입속에 떠 넣었다. 쪼꼬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던 작고 가냘픈 병아리가 어느새 쑥쑥 자라 달걀을 낳았다고 생각하니,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다. 봄이 오면 저 작은 달걀 속에서 작은 생명이 태어날 거라고 고모가 말했다. 쪼꼬미가 낳은 달걀에서는 쪼꼬미를 닮은 병아리가 나오겠지.

찬솔이는 부끄러워졌다. 예전에 찬솔이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닭들도 쪼꼬미와 같은 존재라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다른 존재에게 빚을 지는 거라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한 존재의 생명을 먹는 거라던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게 됐다.

다음 날 아침, 찬솔이는 변기 위에 앉았다. 뿌웅, 하고 경쾌한 방귀 소리가 나더니 똥꼬에서 굵고, 길고, 촉촉한 똥이 부드럽게 쑥 빠져나왔다. 정말 상쾌했다.

농장일을 도우면서 몸을 많이 움직였기 때문인지, 모처럼 채소 반찬을 많이 먹었기 때문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쉽게 똥을 눌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찬솔이는 변기에 앉아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처음으로 맡아본 구수한 똥냄새가 콧속으로 쑥 들어왔다. 〈끝〉





대행 스님

옳고 그르고를 따진다면 이 공부 하는 데는 팡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여) 스님, 그 뱀 토막 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스님 그 집은 자손들이 애를 못 낳았어. 딸만 아홉을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아.

질문자3(여) 손이 끊어졌습니까?

큰스님 끊어졌어, 아주.

질문자3(여)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옛날에 광산 뭐 하신다고 그랬을 때 구렁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잘사셨는데 그걸 술을 담아 가지고 자셨나 봐요.

큰스님 먹기까지? 허허허.

질문자3(여) 그 뒤로 그냥 집에 그렇게 재수가 없고 사업하시던 거 다 날리시고 그랬거든요. 어제도 제가 구렁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구렁이도 한마음의 내 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큰스님 아, 그럼! 그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생명이나 그 마음이 둘이겠느냐는 얘기지.

질문자3(여) 그러니까 그 구렁이를 제 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구렁이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큰스님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즉석에서 요리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나하고 둘이 아닌 마음이 됐을 때 구렁이는 모습만 벗어졌지 그 구렁이의 마음은 내 마음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그냥 체인지가 돼 버리는 거지. 여러분의 주인공에다가 수만 개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두드러지지 않고, 수만 개를 꺼낸다고 하더라도 줄지 않는다 이거예요.

질문자3(여) 그러니까 거기에다 착을 붙일 필요 없이….

큰스님 응, 착을 붙일 수가 없지.

질문자3(여) 일부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스님 '일부다' 그러지도 마라. 일부는 무슨 일부야? 그냥 거기 맡겨 놔. '당신만이 그런 모든 살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어떤 스님도 그랬거니와 상단만 남겨 놓고 중단을 다 치우기로 했거든. 그 작업을 하다가 그걸 다 치웠는데 그 의식들, 사람이 가서 빌고 그러던 의식들을 내 마음에 한데 합쳐서 뭉쳐 놓지 않고 그거를 없앴기 때문에 동티가 난 거야. 자기 몸이 해쳐지는 거지. 그 몸이나 그 몸이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 몸을 해쳤으니 너도 좀…. 따귀를 때렸으니까 결국은 따귀가 되돌아온 거지. 그래서 어떠한 물건도 그 의식을 빼서 내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선 그거를 하면 아무 지장이 없어. 그건 약도 될 수 있고 또 물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쓰이는 데 따라서. 암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럭하면 살생도 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되기 때문이지. 외려 무명을 벗겨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가 돼 가지고 좋은 마음만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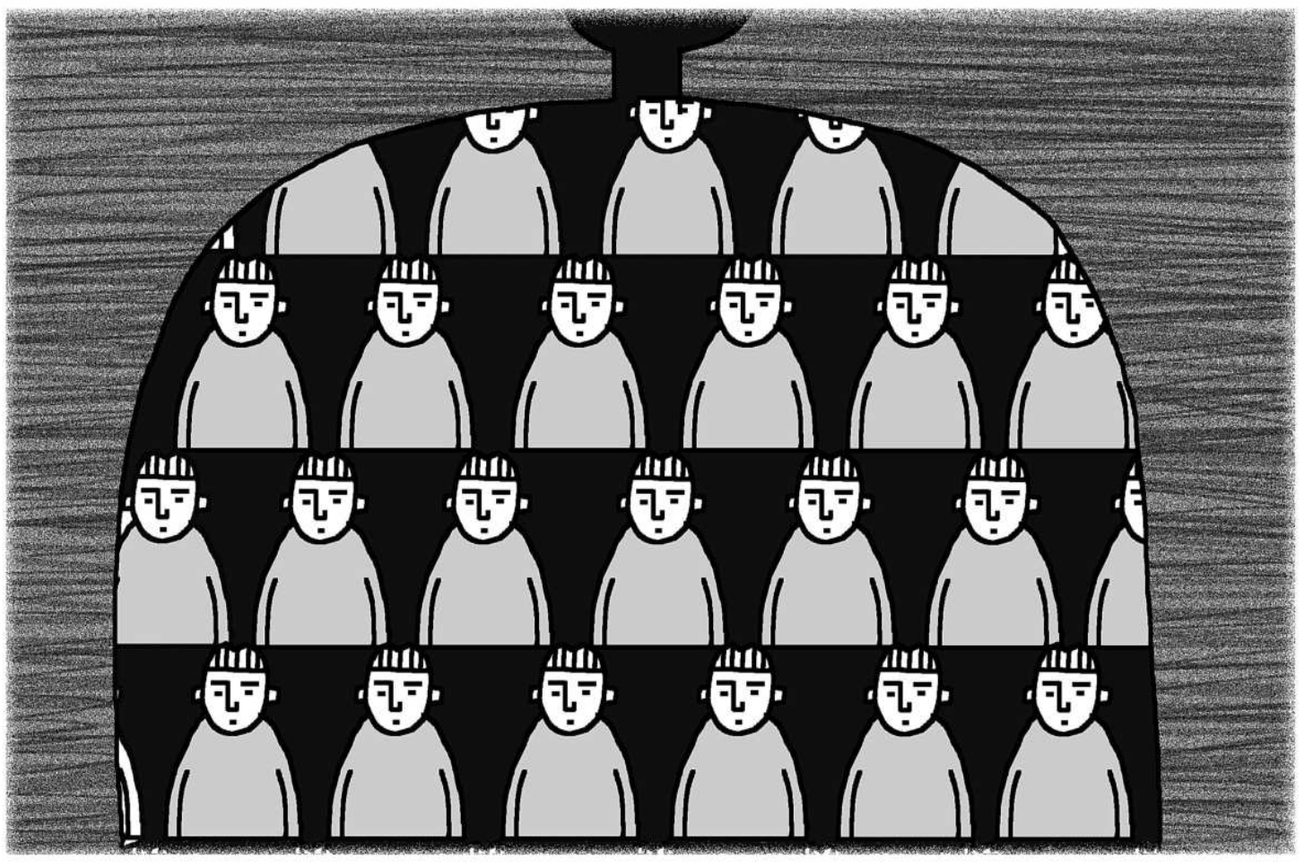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4(여) 그럼 스님, 저희들과 같은 차원에서도 스님이 알려 주신 대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큰스님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질문자4(여) 그대로 그냥 해 나가면….

큰스님 예, 예. 실천을 지금 가르치는 건데 왜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것을 말로만 해 놓고 만약에 그것이 한데 떨어진다면 이런 말을 안 한다고 아주 다짐하고 이 세상을 살아왔으니까요. 여러분한테 한마디라도 거짓된 말을 해서, 안 되는 말을 해서 여러분이 해를 본다면 나 또한 여러분과 같이 해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망을 본 놈도 도둑놈이요, 가서 훔친 놈도 도둑놈이요, 가지고 가는 놈도 도둑놈이니까. 붙잡히게 되면 다 같이 붙잡히게 됩니다, 도둑놈으로. 그러니 내가 한마디 했을 때에 내가 어찌 그것을 한만히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실된 말이 아니고 진실되게 우리가 살림하는 행이 아니라면…. 그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상의 실현과 실행이 되는데 어찌 그걸 거짓으로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익 하게 사시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저 어떠한 악이 들어오더라도…. 아까도 전화가 왔어요. 누가 어디 붙잡혀 갔답니다. 나라의 제일 큰 데로. 허허허. 그랬는데 벌써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성을 한번 들여 놓고 여기다가 턱 맡겨 놓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스르르 풀려서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문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려고 믿습니까? 오늘 없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모자라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모자라는 게 자라집니까? 죽으면, 이 몸뚱이가 없으면 부딪칠 게 없어서 공부도 못 합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하라 이거죠. 악한 거, 모든 걸 빼 버려라. 악하지 않더라도 경우를 따지지 말라 이거야.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런 거 따진다면 벌써 이 공부 하는 데는 팡입니다.

남편,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래요. 내가 항상 그럽니다. 공부를 안 하고 온통 나쁜 짓은 있는 대로 하고 나가서 잠을 자고 안 들어오고 가출하고 그러는데 부모가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배우는 시기에 배워야 할 텐데. 그러면 그거를 나무라지 말고 주인공에다 맡겨라 이거야. 그건 당신의 입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부드럽게 해 주고 나가서 안 들어왔다가 들어오더라도 "애! 너 어디로 그렇게 다녔니? 배고프지 않았니? 어떻게, 잠은 춥게나 자지 않았니?" 요렇게 꼭, "배고픈데 어서 먹어라! 내가 차려 줄게!" 하고선 이렇게 좋은, 부드러운 말을 따뜻하게 해 줘라 이거야. 그리고 그 잘못되게 한 거를 여기다 다 맡겨라 이거야.

아무리 잘못했어도 본인들은요, "너 잘못하고 이런 거 몰라? 몰라?" 그러면요, 반발심이 생겨서 더 안 듣습니다. 번연히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잘 안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이끌어서 가는 데는 자비성이 거기에 깃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속이 상하는데 무슨 자비야?" 이러겠죠. 그러나 여기다 다 맡기시고 그냥 부드럽게 말을 해 주시는 그것이 고쳐지는 방법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랑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아주 나쁘고 두들겨 패기만 하고 술 먹고 주정을 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술도 안 먹고 "내가 당신을 왜 그렇게 들볶았지?" 이러고 나중엔 착한 사람이 되니까 "아이고, 스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스님!" 이러고는 말을 잇지 못해요. 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즐겁죠. 즐겁게 살지 왜 그렇게 그냥 볶이고 삽니까?

그러니 가르칠 때도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옳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팡입니다, 벌써. 내가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한테다 한다면 여러분한테 그 슬기로운 마음이 생길 때는 생겨도 분노가 있는 대로 치밀고 이래서, 반으로 나누어진 그 상태, 상대적인 원리, 이것이 상대성 원리로서 그냥 나가기 때문에 싸움이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 하는 데는 물질적으로 놓고 빌고 온통 타의에다가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잘되게 해 달라고 빌고 이러는 기복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 하는 거지, 그렇게 빌고 해 달라고 노예가 돼서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죽어서도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그저 개나 돼지나 토끼나 닭이나 또는 새나 뭐 뱀이나 이런 소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뭔지 모르니까. 모습이 어떻게 생긴 건지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올바로 이끌어서 가는 데는 자비성이 거기에 깃들어야!

☞ 25면에서 계속

모르거든. 모르고, 쉽게 말해서 부부가 잠자리하는 데만, 그 의식만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러는지 사람이 그러는지 그걸 분간을 하지 못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된다면 얼마나 애를 쓰고 애를 써야 그 모습을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모습을 벗어나려면 참, 눈뜬 사람을 천 년 만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단 말입니다. 그 눈뜬 사람을 만나야만이 자기의 모습 그 자체를 벗으니까요, 무명을.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 견지에서도. 한 십 몇 년 전이죠. 그때 신문에도 났지만 저 산에 있을 때 김포인가 거기에서 공양주로 다니던 보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보살네 집이 김포인데, 군인이 들어와서 주둔해 가지고 몇 사단이 들어와서 그 산을 닦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단본부를 만들려고 닦는데 큰 돌이고 나무고 다 그냥 깨뜨려 내고 들어내고 이 야단을 하는데 그 보살 꿈에, 치우지 않은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딱 3일만 놔뒀다가 하면 어떻겠느냐고 가서 얘길 해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군인 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 글쎄, 듣습니까? 안 듣죠. 그 이튿날 또 그렇게 말을 해 달라고 또 와서 그래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러곤 그냥 무찔렀죠.

그런데 이런 게 그냥 토막토막 갈갈이 뜯겨서 나오는데, 사람이 구렁이가 돼서 구렁이 허물을 벗으려고 살생을 하지 않고 거기서 이파리만 따 먹고선 공부하는, 도를 닦는 구렁이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고 아무 일 없었는데 그날 밤에 말입니다, 천둥 번개만 그냥 번쩍번쩍하더니만, 군인들이 텐트를 치고 그냥 전부 잠든 연에 비가 얼마나 그냥 억수같이 쏟아졌는지…. 그 공부하던 구렁이가 돼서 더하죠, 근데 그래도 그 군인들이 하나도 비오는 소리를 못 들었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선 그 뒷산이 그냥 무너져서 뒤덮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논밭은 다 그냥 못 지어 먹게 됐는데 그 포천 할머니, 그 할멈네 집 논만 산이 무너져서 요렇게 자기네 집을 막아서 아무 일도 없었어. 그 집하고 논만. 군인들은 다, 싹 쓸려 죽은 거야.

질문자4(여) 스님, 그런 경우에는 그 대장의 판단이 잘못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큰스님 조금만 저거 했어도 좀 될 텐데 그런 거를 군대에서는 쳐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미신이라고.

질문자4(여) 그럼 그 밑의 장병들은 죄가 없었잖아요?

큰스님 죄가 없었어도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껴서 돌아가는 거지.

질문자2(남)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러일전쟁 때 일본의 내목대장이 자기 부하를 많이 죽여 가지고 전쟁은 이겼지마는 가책을 받아 가지고 일본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었답니다.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해서 전쟁은 이겼지만 이렇게 부하를 많이 죽였고 업을 지은 것 같은데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스님한테. 그 스님이 쓱 보더니 "저 뜨락에 있는 나무를 가서 흔들어 보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흔들어 보니까 이슬이 떨어지는데 "그게 어디에 떨어지는가 봐라. 시키긴 내가 시켰지만 떨어지긴 흔든 사람한테, 너한테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군에서는 명령 계통이니 대장이 판단만 잘해서 조금 늦췄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대장은 실지 일은 안 했겠지마는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였을 거란 말씀이에요.

큰스님 그렇죠.

질문자2(남) 그럼 그 업이 어디로 갑니까.

큰스님 흔든 놈이나 뭐, 흔들라고 시킨 놈이나 똑같겠죠. 허허허.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도둑질한 놈이나 망보는 놈이나 물건을 가져가는 놈이나 똑같이 도둑놈이라고요.

신도(남) 그래서 아까 큰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옳지 않은데 왜 말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교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됐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죠.

질문자2(남) 사실 이 업이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문젠데요.

큰스님 그 업은 그 셋이 다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이 다 모인 겁니다. 이 지금 여러분 몸에 모인 겁니다. 모여서 지금 작당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작당을 하는 데 말리지 말라 이거죠. 이 작당하는 데 왜 말리느냐? 왜 속느냐? 거기에 속지 말라. 속이 상하고 막 이러는 것도, 즉 말하자면 화탕지옥이다, 그게. 그냥 불같이 일어나고 속상하는 것도 화탕지옥이야. 그러면 지옥고를 당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왜 거기에 말리느냐 이거야. 거기에 속지 말고 그거를 허허허 웃고선 '그것도 그놈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곤 그냥 탁 맡겨 놓으면 거기서 다 저희들이 다시 집어먹게 되죠, 뭐.

질문자2(남) 글쎄, 그게 자기의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우주의 생명의 법칙인데요, 말려들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법칙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스님께서는 알려 주시는 것 같은데….

큰스님 아니요.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그르지 않고 또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것도 그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화해서 벗어나려면 악과 선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거에도 속지 말아야 돼요. 잘되는 것도 '내가 잘됐으니까 좋다.' 이러고선 흥겨워서 그러지 말라 이거야.

신도(남) 스님, 인과응보라는 게 죽어서 받습니까, 살아 있을 때 받습니까?

큰스님 모르고 지은 거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지은 거는 알고 받게 마련이죠.

신도(남)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알았을 때는 살아 있을 때 그 죗값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큰스님 아이, 그대로 다가오죠.

신도(남) 네. 그걸 내가 어저께 밤에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14년 전에 지은 죄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그것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질문을 꼭 스님한테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큰스님 그래서 옛날에 이런 점이 있었죠.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묻습디다. 날더러 하는 소리가 "스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자기가 귀신 노릇을 하면 귀신이 있을 거고 자기가 귀신 노릇을 안 하면 귀신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린애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고 또 물어요.

그래서 "어린애가 죄 짓는 거는 자기가 모르고 죄를 범하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알면 아는 대로 자기가 알고 어른이 돼서 받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 그런 소리는 틀렸습니다."라는 얘기죠. 뭔 소리냐 하면 세 살 먹은 애들이 놀다가, 그러니까 불집게로다가 정수리를 찔렀나 봐. 그래 가지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어린애가 알지도 못하고 불집게로 찔러서 죽였는데 어떻게 죄가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죽인 놈이나 죽은 놈이나 모르고 전자에 인연이 돼서 그렇게 저질렀으니까 모르고 또 했다 이거야. 모르고 저지른 건 모르고 또 받게 마련이니까.

질문자5(남) 스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은 그 법칙 때문에 틀림없이 올 거니까 올 것을 받는다는 자기의 그 자세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의 기본적인 태도로서도 나타날 수 있나요?

큰스님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면요, 내가 얘기한 거는요, 과거에 살던, 악이든지 선이든지 모자라는 거든지 잘하는 거든지, 전부 살던 그것이 몽땅 그냥 그 컴퓨터 숙명통에 입력이 돼 가지고 짊어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그 입력된 것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를 뭐라고 말들을 하느냐 하면 팔자 운명이니 이러죠.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운명이 이렇고 팔자가 이렇고 그러죠. 그러나 그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해라 이겁니다. 그 팔자를 못 면하니까. 자기 한 대로 못 면하니까 거기다가 다시 입력을 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잘못하는 거는 이 몸뚱이가 있는 걸로다가 잘못하지마는 이 인과로 뭉쳐지는 업보는 이 마음으로 잘못된 그 의식 자체들이 전부 걸려 가지고선, 그러니까 글씨 써 있지 않은 백지에 적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심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무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유심으로 나오고 유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 현재 행으로 그냥 막 뒤집어엎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그 마음속에서 다시 확연히 그것을 다 벗어 버리고서 나오는 거죠.

질문자5(남) 그러면 벌은 자기가 받는 건가요, 혹은 안 받는 건가요?

큰스님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죠. 그거는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신도(남) 아니, 죄를 지으면 자기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괴롭고. 그게 벌 받는 거 아닐까요?

신도(여) 그거예요, 마음이 받는 게.

큰스님 그런데 벌 받는 건데, 마음이 벌을 받고 마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이 끌고 다니면서 육체를 움죽거리면서 강도질을 해도 마음이 끌고 다녀서 했지 이 육체는 송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마음이 끌고 가서 손짓을 하게끔 손도 움죽거리게 하고 발도 움죽거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이 마음이라는 주인의 문제지, 운전수가 문제지 이 차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끌고 다니는 운전수의 문제지. 차를 타고 갈 때 도둑질을 시키느냐. 그래서 물건을 거기 싣고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선덕을 하게끔 차를 끌고 가느냐 그 두 가지에 달려 있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한 것이 누가 했느냐? 마음이 한 거란 말입니다. 마음이 한 거라면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잘못되는 걸 자기가 다스리면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영원한 친구, 네가 다스려야지 어떻게 다스리니? 나는 너 하자는 대로 하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네 그 심부름을 잘하게 하려면 네가 잘 이끌어야 될 거 아냐? 그리고 모순되게, 누가 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하고서 거기다가 충고해서 놓는 것도 자기고 충고를 받는 것도 자기고 아, 그러니까 그건 아주 묘한 법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다시 놔라 이거야. 그럼으로써 그 앞서 죄지은 것도 무너질 수가 있다 이거지. 왜, 카세트에다가 노래 넣었다가 또 노래 넣으니까 앞서 노래 넣은 게 없어졌죠? 안 그래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러 드려도 뭐 자꾸 글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도, 여기 이렇게 몇 분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자꾸 자꾸 자꾸 공부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그냥 복작거리고, 지금 외국에 와서 집도 한 칸 없이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면, 우연 중에 집도 생기고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어 가면 늘어 갔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나는 이거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쌍한 사람들, 병고에 휘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꾸자꾸 해서 여러분이 이끌고 나가세요. 그것도 보살행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냥 남을 쫓아가서 죽이고 이러던 그 업보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보살행이니까요. 그러니까 나 한 몸뚱이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다 보살행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요다음에 올 때는 여기가 꽉 차도록, 그리고 토론들 할 수 있도록 노력들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꾸 자꾸 이 공부를 하면, 우연 중에 집도 생기고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어 가면 늘어 갔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나는 이거 다짐합니다.

※위 법문은 1990년 11월 25일 모건힐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정치인, 100만 촛불 민심을 들어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대해로 흘러들어가는 거센 물결도 작은 물방울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형성된 것이다. 하나의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모이지 않는다면 큰 강물도 만들어지지 못한다. 한두 사람이 들고 있는 촛불은 그다지 사회적 주목을 받을 수 없지만 백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든 촛불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거센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들어 토요일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정권퇴진을 외치며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 모씨 일족이 중심이 된 국정농단 사건은 이제 대통령이 관련된 전대미문의 스캔들로 비화되어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도 보기 어렵지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참고인을 넘어서 피의자로 조사해야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대통령 주변인들의 국정 농단에 실망했고, 여기저기 정부예산 속에 숨겨놓은 비선실세 예산 수천억원을 확인하면서 분노했고, 이를 방치한 대통령의 무능과 무지함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미 수십년 전 국가 정보기관에서 최모 목사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지만 그 악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고 급기야는 대를 이어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과의 권력거리를 악용한 집단의 국정농단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대통령들도 집권 4년차가 되면 레임덕 현상이 오고 퇴임 후에는 대통령의 자식이나 형제, 그리고 친인척들이 구속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와 같이 국가 기밀이 새어나가고, 비선실세가 노골적으로 국정에 관여하여 장차관을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 법인을 만들어 기업으로부터 800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받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남용하는 사례는 없었다.

부처님은 상인이든, 수행자든 관계없이 누구든 성공하는 삶을 영위하려면 지혜, 근면, 후원자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하신 바 있다. 후원자가 있다는 것은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고 해도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와 부지런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보호자가 되어 대통령을 외호해 줄 수 있고, 대통령은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지도력을 갖추고 원만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은 사적인 인간관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다. 그리고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불통대통령의 상징이 되었다. 여론조사 결과 약 95%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고 응답함으로써 여론은 최악의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아직도 "자발적으로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하야, 2선 후퇴, 질서 있는 퇴진 등 여러 가지 해법들이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으로 진퇴를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원만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지지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범법 행위로 인하여 신뢰에 금이 가고 국민 대다수에 의해 불신을 받는다면 국정의 원만한 운영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은 대승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민심이 곧 천심' 이라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격언이다. 그리고 그 민심의 소재는 100만 명의 촛불집회에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국회에서 결의된 특검을 통해 범법행위가 입증된다면 대통령은 즉각 진퇴를 결정하리라 믿는다. 그 결정이 평화적 촛불 행진을 벌이는 민심과 괴리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거센 물결이 되고,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폭류로 확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기자칼럼

액자값만 2천만원, 뭣이 중헌디?



노덕현
취재부기자

8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살인적인 무더위와 안보 경제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당시 새누리당 신임지도부와의 오찬을 초호화로 즐겼기 때문이었다. 당시 오찬 메뉴로는 900g에 1억6000만원을 호가하는 송로버섯을 비롯해 캐비어, 샥스핀, 바닷가재 등이 상 위에 올랐고 이런 오찬을 두고 '민심 너머 궁전의 식탁' 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초의 일이다. 조계종 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처의 2017년 예산안을 주제로 한 교계 주요언론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여기서 공개된 조계종 2017년 예산안의 한 대목이 기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바로 '역대 총무원장 액자 제작비' 예산으로 잡힌 2000만원에 대한 것이었다.

이날 간담회는 2017년 신도시 포교를 비롯한 종단 목적사업으로 인해 일반회계 예산이 대부분 감소했음을 조계종 측이 설명하는 자리였다. 목적사업으로 인한 종단의 부담으로 대부분의 부처에서 많게는 20% 가량 예산이 감소했기에 신규로 편성된 2000만원의 액자 제작 예산은 기자들의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질문이 나왔다. "어떻게 액자 제작에 2000만원이나 들어가냐"는 기자들 질문에 종단 관계자는 "그동안 역대 총무원장 스님의 액자가 없어 신규사업으로 넣었다. 액자 뿐만 아니라 행장 등을 함께 싣는 것이기에 비용이 이렇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기분을 남겼고, 기자간담회는 마무리 됐다.

어떻게 역대 총무원장 액자값이 2000만원이 나올 수 있을까? 조계종의 역대 총무원장은 34대까지 포함해 30명이다. 3명의 권한대행까지 포함한다면 액자는 37개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로 따지면 액자 하나당 60만원가량이니, '고급 액자' 로 한다면 이 가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역대 총무원장의 행장도 다룬다니 1명당 60만원이면 어찌보면 적은 금액이다.

그런데 당장 총무원 앞 조계사 주차장에 가보자. 주차장의 컨테이너 박스에는 사무실이 없는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있다. 이들은 액자값에 해당하는 60만원이 없어 난방도 어려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겨울을 앞두고 신문사에는 이 60만원이 없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탈북불자들 · 독거어르신들의 사연도 들려온다.

왜 역대 총무원장 액자를 지금 제작해야 하나? 앞서 설명했지만 이날 자리는 여러 가지 목적사업으로 인해 긴축재정을 펼치는 것을 밝히는 자리였다.

예산안 곳곳에는 긴축을 고심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종책 실무를 맡는 종무원들의 인건비는 동결됐고, 각 부처의 예산은 크고 작게 삭감됐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종단의 3대 사업 중 하나인 포교 예산이 전년 대비 4.6% 감소돼 대형 목적사업 진행과 별개로 포교사업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여기에 세입안 곳곳에서는 위기가 느껴졌다. 전체 세입은 3%가 증가했지만 세입이 증가된 부분은 특별분담금과 직영분담금 등 일부 대형 · 기도사찰 부담분이었다. 소규모 사찰을 포함한 일반 사찰들이 부담하는 중앙과 직할, 법인 등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동결됐다. 바깥 사회의 경제는 얼어붙은지 오래고 이런 영향이 불교계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는 역대 대통령의 사진과 유품이 전시돼있다. 가톨릭 명동성당에도 역대 교구장 사진을 전시한 아카이브가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억하는 정치 · 종교지도자의 모습은 액자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니다.

국민은 힘들다. 불자들도 힘들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34대 집행부가 마지막까지 불자들, 국민들과 함께 하는 집행부로 남아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社說

법인관리법 보완 · 개정 필요하다

조계종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 이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법과 행정 미비로 '지원없는 관리법' 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행정 미비 사례는 결계 · 포살에 대한 지원이다. 법인관리법에도 의무 조항으로 종단에 등록한 법인의 임직원, 관리인과 그 도제는 결계 · 포살을 하도록 돼 있다. 종단 소속 사찰은 주지 스님이 일괄적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법인 소속 사찰은 개인이 직접 결계 · 포살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법 제정 당시에는 종단 등록을 독려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본적 행정 편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 제정 당시 우려했던 스님들의 사회활동 위축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불교 관련 법인의 경우 스님과 재가자가 결합하거나, 외부와 타종단 법인에 조계종 스님이 임원을 맡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법인관리법은 이 같은 다양성이 감안되지 못하고 있다보니 스님들 사이에서는 법인 활동을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인식만 만연해지고 있다.

이번에만 3번째 연기된 대각회 특별교구화도 법인관리법의 불안요소다. 올해 8월까지 이행키로한 5개 조항은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각회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법인관리법은 제정 당시부터 많은 갈등이 있었던 법이다. 이 같이 민감한 종책은 법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같은 종도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일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인 소속 스님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법인관리법은 '옥상옥(屋上屋)' 에 지나지 않는다. 조속한 행정 보완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

불교계, 수능 마친 수험생에 관심을

11월 17일,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오로지 이 시간만을 위해 달려온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수험생 가족에게는 "고생하셨다"는 말을 먼저 건네고 싶다.

한국사회에서 대입 고시는 매우 결연한 진검승부와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의 시험에서 인생이 방향을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에 가서도 학점과 취업이라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지만 대입 고시는 분명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러다 보니 올해 수능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들린다. 부산의 한 재수생은 수능 1교시 언어영역을 치르던 중 도시락 가방에서 어머니 휴대전화가 10초간 울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감독관은 해당 수험생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해당 수험생과 부모님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는가.

이와 더불어 수능 후에 들리는 소식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들에 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1월~2014년 9월 초 · 중 · 고등학생 자살 학생 수는 630명이다. 이 중 성적비관이 원인인 경우는 75명으로, 2015년에도 14명이 같은 이유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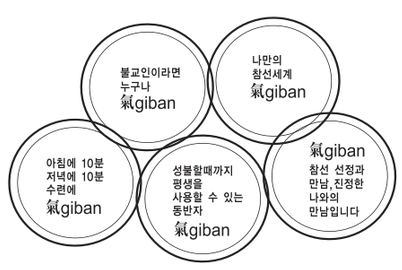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스님 10여 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은 성적비관으로 자살한 학생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11월 15일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스님과 교사 모두 "입시 경쟁에 내몰리다 목숨을 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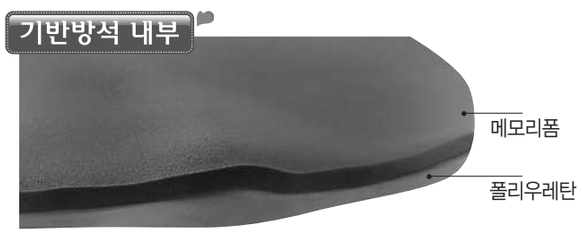
수능 후에는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불교계 역시 마찬가지다. 긴 여정을 마치고 온 수험생들에게 결과 따듯한 위로를 건네며, 나쁜 결과는 힘을 복돋을 수 있도록 불교계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www.hyunbulshop.com

깨달음수행법의 고통 해탈문인.....

진귀 수인(手印) 수행법

고통해탈과 깨달음을 향한.....
진귀방장의 특별한 수인(手印) 수행법을
한국불교 수행역사상 최초로 근기별,
병통별, 단계별, 날자별로
정리된 수행법을 공개합니다.
수행법 수강문의 : 1899-9532







※ 위 사진은 실제 진귀 수인 수행법과는 다릅니다.

깨달음 무료공개강좌 일정

4차 공개강좌 : 업(業)과의 전쟁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2017년〉

5차 공개강좌 : 주제 : 입법계품의 지혜
일시 : 2017년 1월15일 일요일 오후2시

6차 공개강좌 : 주제 : 청소년의 미래와 깨달음
일시 : 2017년 2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7차 공개강좌 : 주제 : 정견(正見)과 사견(邪見)
일시 :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8차 공개강좌 : 주제 :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9차 공개강좌 : 주제 : 자유와 평등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3시

10차 공개강좌 : 주제 : 말법시대(禪)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3시

11차 공개강좌 : 주제 : 53 선지식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12차 공개강좌 : 주제 : 달마와 원효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3시

13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센터의 수행법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3시

14차 공개강좌 : 주제 : 갈등과 평온
일시 :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2시

15차 공개강좌 : 주제 : 고통과 병통은 왜 오는가?
일시 :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16차 공개강좌 : 주제 : 자비와 사랑
일시 :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후2시

- 신청접수 : 각 회차별 무료예약 (선착순33명 제한)
- 문 의 : 1899-9532
- 강 사 : 깨달음산문 - 방장 진귀



늘 세상과 함께 _____
깨달음山門

※ 공개강좌 예약신청 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강좌부터는 예약신청 및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NAVER 깨달음산문 검색